ARCHIVE PRISM

한국영화의 장소들

#13 Summer 2023



귀로(이만희, 1976)



휴일(이만희, 1968)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

다리는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잇는다. 그중에서도 육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장벽을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 수평과 수직을 교차해 3차원으로 가로지른다는 점에서 육교는 특별한 영화적 공간이 될 요건이 충분하다. 이만희 감독은 프레임 안에 수직과 수평의 이미지를 교차시키는 구성을 즐겨 사용했는데 1976년작 〈귀로〉(이만희, 1976) 속에서 육교는 인상적인 공간으로 포착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인물의 심리는 인파 속에서 홀로 망설이는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수직과 수평의 운동이 교차하는 강렬한 이미지는 〈휴일〉(이만희, 1968)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 남자가 서울 시내를 정처 없이 헤매는 이 영화에서 육교는 도시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통로이자 쉼터가 되어준다.

육교를 보다 직관적으로 사용한 영화도 많다. 절망스러운 시대 속 방황을 해학적으로 그려낸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에서 청춘들은 부조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뚝뚝하다. 스스로 현실 적응을 거부하고 바보처럼 살기로 한 대학생 병태(윤문섭)와 영철(하재영)은 장발 단속하는 경관을 피해 도망친다. 이들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육교에 앉아 있는 거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꾸물대는 사이 경찰에 붙잡힐 처지에 몰리자 육교에 매달린다. 의로운 섬 같은 도시, 육교 한 가운데에서 몸으로 저항하는 이들의 바보 같은 행동은 웃겨서 슬프다. 도시는 사람을 단절시킨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람의 의지는 기어이 끊어진 공간을 가로질러 입체적인 공간을 창조한다. 도시를 배경으로 한 한국영화 속에서 육교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다. (송경원)

육 교

아카이브 프리즘 #13
한국영화의 장소들
2023년 8월 31일

발행인
김홍준

편집책임
최선희

편집위원
정민화
이지연

객원 편집위원
김광철
김홍구
장병원
한선희

컨셉 & 플래닝
프로파간다
www.graphicmag.co.kr

디자인
신덕호

사진
임효진

한국영상자료원
(우) 03925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TEL. 02 3153 2001
FAX. 02 3153 2080
www.koreafilm.or.kr

Copyright © 2023
한국영상자료원
모든 권리 및 저작권은
한국영상자료원에 있습니다.

Archive Prism #13
Korean Movie Places
Summer 2023

Publisher
Kim Hongjoon

Executive Director
Choi Sunhee

Editorial Board
Jung Minhwa
Lee Jiyeon

Contributing Editors
Kim Kwangchul
Kim Honggoo
Jang Byungwon
Han Sunhee

Concept & Planning
propaganda
www.graphicmag.co.kr

Design
Shin Dokho

Photography
Lim Hyojin

Korean Film Archive
400, WorldCupbuk-ro, Mapo-gu,
Seoul, 03925, Korea
TEL. +82 2 3153 2001
FAX. +82 2 3153 2080
www.koreafilm.or.kr

Copyright © 2023
Korean Film Archive All rights
reserved.

ISSN 2733-6050
Printed in Korea

한국영화의 장소들

영화에서 장소의 성질은 관객들에게 '무엇을 볼 것인가'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하게끔 신호하는 표현 요소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의 독특한 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지역적인 좌표와 위상, 연식, 외양, 건축법, 구조 등에 따라 여러 장르 안에서 다양한 용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인가가 장소성을 규정하는 매개 변수가 된다.

『아카이브 프리즘』 13호의 테마는 바로 이 공동 생활과 문화 생활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는 공간, '한국영화의 장소들'이다. 영화에서 '공간'은 풍부한 의미 맥락을 품은 '어휘'에 비견할 만큼 주제와 장르, 정서,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화는 공간을 등장시키고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적 맥락에 따라 조형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은 영화가 도입하려는 현실의 장(長)인 동시에 극적 세계 안에서 그 구체성을 허구 세계로 확장하며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획득한다. 이런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영화의 공간들을 조망한 이번 이슈의 초점은 하나의 장소를 단순히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장소가 만들어내는 의미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공간학'적 탐구에 맞춘다.

한국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위상, 장소가 규정하는 특질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폈을 때 그 맥락이 풍부하게 드러난다. 이번 이슈를 통해 우리는 허구의 인물과 사건이 묘사되는 장소의 역사성, 건축적 특질, 생활사의 조형적 요소들이 한국영화의 공간학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공학, 경관 기록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간이 영화의 의미와 주제를 강화하는 기능뿐 아니라 영화가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포착하는 측면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공간의 관점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공간이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의미 창출에 공헌하는지, 영화의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한국영화의 장소에 대한 탐색이 일상의 공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게 하기를, 영화를 보는 시야와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기를 기대한다.









한국영화의 장소들

7 대학로 KFC—결혼은, 미친 짓이다(2002)
8 자하문터널—기생충(2019)
12 누하동 한옥집—건축학개론(2012)
13 정독도서관—품행제로(2002)
16 창경궁 춘당지—우리 선희(2013)
18 피카디리극장 광장—접속(1997)
19 강남귀금속타운—칠수와 만수(1988)
20 후암동 와니의 집—와니와 준하(2001)
24 남산—최악의 하루(2016)
26 남산 케이블카—카페 느와르(2010)
30 남산 백범광장—아워 바디(2019)
34 동호대교—소공녀(2018)
37 잠수교—태양은 없다(1999)
40 한강—괴물(2006)
44 밤섬—김씨 표류기(2009)
46 홍제동 개미마을—찬실이는 복도 많지(2020)
51 연희동 라이카시네마—소설가의 영화(2022)
52 세검정 삼거리육교—우리들(2016)
54 수색교—메기(2019)
85 벽초지수목원 주목터널—아가씨(2016)
86 원릉역—파수꾼(2011)
88 일산 막동의 집—초록 물고기(1997)
92 인천 미추홀구 2층 양옥집—남매의 여름밤(2020)
94 새만금 간척지와 진서면 갯벌 – 변산(2018)
96 모항해수욕장—다른 나라에서(2012)
100 송광사—헤어질 결심(2022)

아파트

60 마포아파트
62 반포주공아파트
64 이촌점보아파트
66 은마아파트
68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70 문정시영아파트
72 금화시민아파트
74 회현시민아파트
76 서소문아파트
78 동대문아파트
80 둔촌주공아파트
82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105 **군산 소요**
129 **고전영화에 기록된 서울의 풍경**

한국영화 공간학

표2 육교
56 지하철
84 이대앞
104 플랫폼
127 반지하
128 공중목욕탕
표3 골목과 대로



일러두기

이번 호 『아카이브 프리즘』은 서울,
경기, 인천, 전라 등 한반도 왼쪽 지역의
영화 촬영지를 탐방했다. 강원,
경상, 대구, 부산 등에 산재한 촬영지는
2024년 다룰 예정이다.


모항해수욕장-다른 나라에서(2012)

한 국 영 화 의 장 소 들



대학로 KFC — 결혼은, 미친 짓이다(2002)



대학로 KFC. 1984년 오픈한 제1호 종로점과 논현점 등 시그니처 매장이 폐점한 이후 이곳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기억을 대표하는 공간이 됐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타이틀롤에 이어지는 장면은 스마트폰 지도 앱이 없던 시절, 소개팅에서 남녀가 만나는 풍속을 소묘한 시퀀스다. 약속된 코드는 모처에서 한 손에 한겨레신문을 말아 쥐고 기다리라는 것.

이들이 대면한 장소는 강남역 뉴욕제과와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남의 장소로 유명했던 대학로 KFC 앞. 샘터 사옥과 마주하며 아르코미술관과 인근한 대학로 KFC는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로서는 희귀하게 한곳에서 30년 이상 영업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업장이다. 주인공들은 이곳에서 시작해 커피숍(광화문 '우드앤브릭'), 영화관('시네코아'), 레스토랑, 찻집, 주점을 배회하며 그저 그런 대화를 나누다, 귀가 국면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결박하는 대사, "왔다 갔다 택시비 하면 여관비가 더 쌀 것 같은데요" 운운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

서울 혜화동 대학로는 옛 서울대학교 본관(1931)을 비롯, 아르코미술관(1979), 샘터 사옥(1979), 마로니에공원(1982), 전 국제협력단 건물(1976) 등 건축가 김수근의 대표작들이 산재한 모더니티의 공간이다. 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를 배후로 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표상인 서구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체인 앞에서 둘이 만난다는 설정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세기 초 결혼과 연애의 디커플링을 절충·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이 영화의 장소성을 대표하는 공간이라 할 만하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2002)

감독: 유하
출연: 감우성, 엄정화

지적이고 매너 좋은 대학 강사인 준영(감우성)은 연애 지상주의자. 셀레민트껌 향기를 풍기며 나타난 연희(엄정화)는 섹시하고 당돌한 조명 디자이너.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갖고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준영과의 관계를 지속한다.



대학로를 드나들던 세대에게 대학로 KFC는 아련한 추억의 장소다. 영화 초입,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면은 이곳에서 약속 장소를 잡던 세대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KFC 로고 자체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디테일은 시대와 함께 리뉴얼되었다. 스태프의 복장에서도 시대성이 느껴진다.



소개팅을 통해 준영과 연희(엄정화)가 이곳에서 만나는 시퀀스는 2000년 전후 대학로 KFC 주변의 공기를 생생하게 전해주면서 이 영화가 로케이션한 35곳 이상의 장소 중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자하문터널 — 기생충(2019)



기생충 (2019)

감독: 봉준호
출연: 송강호, 이선균

전원 백수로 살 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송강호) 가족. 장남 기우(최우식)에게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해준 고액 과외 자리는 모처럼 싹튼 고정 수입의 희망이다. 글로벌 IT기업 CEO인 박 사장의 저택에 도착하자 젊고 아름다운 사모님 연교(조여정)가 기우를 맞이한다.

자하문터널의 지리적 특징은 북악산을 머리에 이고 있다는 것,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 따위를 들 수 있다. 경사지 위에, 그보다 아래쪽에서 고지대로 향하는 계단과 연결되는 지점에 터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터널 상부로는 부암동, 내부순환로를 따라 이어지는 성북동 등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이 형성되어 있고, 하부는 청운동, 광화문과 맞닿는다. 터널의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의 도로는 위와 아래를 관처럼 잇는데, 특히 터널 북쪽에서 내려다보면 왼쪽으로 가파르게 휘어진 내리막길이 기하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폭우로 인해 박 사장(이선균)의 캠핑이 취소되어 갑작스럽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택(송강호) 일가가 박 사장의 집을 벗어나 향하는 곳이 자하문터널 일대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박 사장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 반지하 집까지 다다르는 장구한 여정에 터널이 놓여 있다. 장대비를 뚫고 완만하게 아래를 향하는 도로,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꺾인 계단을 지나 터널을 통과할 때 카메라는 내장 기관을 연상케 하는 자하문터널의 북쪽 입구에서 기택 일가의 추레한 모습을 찍는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음산한 터널 안에는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는다. 계급 피라미드의 높은 곳으로 향하려 했으나 급격히 아래로 추락하는 이 가족의 딱한 운명을 시각화한 결정적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박 사장 집을 나온 기택 일행은 화면 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와, 다시 왼쪽 아래로 향하는 계단으로 하강한다.









영화가 보여주는 수직운동의 마지막 국면에서, 인물들은 창백한 빛으로 가득 찬 압축된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자하문터널은 고지대로 향하는 계단과
연결되는 지점에 놓여 있다. 터널 상부로는
부암동, 성북동 등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이 형성되어 있고, 하부는 청운동,
광화문과 맞닿는다. 〈기생충〉은 이 터널의
지형적 특징을 알레고리로 활용한다.

누하동 한옥집 — 건축학개론(2012)

승민(이제훈)과 서연(배수지)은 '건축학개론' 수업 과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여행한다. 같은 동네에 살던 그들은 골목에서 우연히 빈집 하나를 발견한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낡은 한옥. 그곳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이 되고, 첫눈이 오는 날 그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한다. 약속은 지켜지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 승민(엄태웅)을 찾아온 서연(한가인)은 '집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고, 그렇게 그들은 제주도 바닷가에 집을 짓게 된다.

이 영화의 카메라는 시간과 공간의 결을 섬세하게 포착하며 '시간의 공간화'를 이루는데 그 중심엔 '집'이 있다. 〈건축학개론〉은 정릉을 비롯해 종로구 창신동 등지에서 촬영되었고, 그들의 아지트인 빈집은 서촌 지역인 종로구 누하동에 있다. 좁은 골목 한구석에 있는 이 집은 한때 어느 시인이 살았다고 하는데, 양옥들 사이에 오롯이 홀로 있는 한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건축학개론 첫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영화 〈건축학개론〉은 이렇게 묻는 듯하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걷고 있는 골목이 훗날 어떤 추억이 될지 가늠할 수 있을까?" 세월이 만든 두 사람의 추억, 그것을 환기시키는 골목, 그리고 그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집이라는 매개체. 〈건축학개론〉은 시간과 공간으로 빈틈없이 쌓아 올린, 정교하면서도 울림 있는 멜로드라마다. (김형석)





건축학개론
(2012)

감독: 이용주
출연: 엄태웅, 한가인

건축학과 승민(이제훈)은 건축학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배수지)에게 반한다. 함께 숙제를 하면서 차츰 친해지지만, 표현이 서툰 승민은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작은 오해로 인해 서연과 멀어지게 된다.



건축학개론 수업의 첫 과제는 동네 골목을 여행하며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 승민과 서연은 각자 과제를 하던 중에 우연히 만나 빈집 하나를 발견한다. 서연이 벽시계의 태엽을 감자 승민이 걱정한다. "이래도 되나, 남의 집인데 함부로." 서연은 망설임 없이 답한다. "뭐 어때요. 죽은 거 살려준 건데." 누하동 빈집은 첫사랑의 행로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인연과 기억의 메타포로 영화의 건축적 구성에 기여하는 서사적 공간이다.

영화 속 빈집이었던 누하동 한옥집. 현재는 한 클래식 공연 기획사가 인수해 복합문화공간 겸 한옥 스테이로 운영 중이다.

정독도서관 — 품행제로(2002)





품행제로
(2002)

감독: 조근식
출연: 류승범, 임은경

문덕고 캡짱 박중필(류승범)은 이웃 여학교 퀸카 민희(임은경)에게 반해 사랑에 빠지고, 중필을 짝사랑하는 오공주파 대장 나영(공효진)은 화가 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학생 상만이 나타나 중필의 세계를 건드리며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첫 키스를 하면 귀에서 종소리가 울린대." 모범생 민희(임은경)는 학교에서 유명한 양아치 중필(류승범)에게 자신의 꿈과 같은 바람을 슬며시 고백한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파란만장한 학창 시절을 그리는 영화 〈품행제로〉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는 불량 학생 중필의 걸음을 따라간다. 문덕고 캡짱이란 겉멋에 취해 허세로 가득한 중필도 사랑에 빠진다. 그것도 자신과는 정반대인 모범생 민희에게 반한다. 민희도 자신과 전혀 다른 중필이 끌린다. 민희에게 잘 보이고 싶은 중필은 민희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그리하여 중필과 민희가 주로 데이트를 하는 장소는 중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 정독도서관이다.

모범생 민희의 손에 이끌려 처음 가본 도서관은 불편하고 낯설지만 그런 건 상관없다. 건물 앞 분수대와 공원 같은 조경, 제법 넓은 연못과 물레방아, 초록빛 잔디와 등나무 벤치까지 정독도서관 주변 풍경은 마치 첫사랑의 심상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처럼 맑고 순수하고 풋풋하다. 정독도서관 벤치에 앉아 옷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두고 말싸움을 하던 두 사람은 분위기에 취해 키스에 성공한다. 그 순간 작은 종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종소리가 울리는지, 요동치는 심장 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리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아니 상관없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은 환상을 현실로 바꿔놓을 만큼 놀라운 일이니까 말이다. 순수해서 애틋하고 어설퍼서 더 소중했던 감정은 정독도서관 벤치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송경원)

정독도서관의 아치형 입구. 민희를 따라 처음으로 도서관에 온 중필이 머뭇거리다 민희 손에 이끌려 도서관에 입장하는 장소다. 정독도서관은 1938년 스팀 난방을 도입한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기록되어 있다.







민희와 중필의 데이트 장소 등나무 벤치. 앞뜰 경관이 아름답고
봄철에는 벗꽃이 만개하는 정독도서관은 실제로도 데이트 명소다.
등나무 벤치 키스 신은 한밤중 도서관의 고요한 기운에 등나무의 커튼
효과가 더해진 낭만적 분위기로 연출됐다.

창경궁 춘당지 — 우리 선희(2013)



창경궁 안에 위치한 연못 춘당지(春塘池). 사시사철 포토존으로 유명하고, 특별히 단풍이 아름답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우리 선희 (2013)

감독: 홍상수
출연: 정유미, 이선균

영화과 졸업생 선희(정유미)는 유학을 위한 추천서를 최 교수(김상중)에게 부탁하기 위해 학교에 들른다. 선희는 나온 김에 문수(이선균)와 선배 감독 재학(정재영)을 만난다. 추천서를 받아낸 선희는 나흘간의 나들이를 마치고 떠나지만, 남겨진 남자들은 '선희'란 말을 잡은 채 서성거린다.

일제강점기에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사용되면서 격하되었던 창경궁의 위상은 80년대 시작된 복원 공사를 거치면서 회복되었다. 독립된 궁이었지만 이웃하여 연결된 또 다른 궁궐 창덕궁과 경계가 없었는데, 특히 왕의 산책 장소였던 창경궁 후원은 창덕궁 후원과 합쳐지는 접점이다. 이곳에 창덕궁을 둘러싼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냇물이 모여 형성된 연못 춘당지가 있다. 경계를 밀어내는 이 장소의 성격은 영화 〈우리 선희〉에 등장하여 결말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영화 말미에 문수(이선균)와 동현(김상중), 재학(정재영)이 마주치는 곳이 춘당지 앞이다. 왜 춘당지였어야 했을까? 저들이 이곳에 모이기 전에 선희(정유미)와 남자들은 화장실로 향하는 길이 엇갈리면서 끝내 만나지 못한다. 선희는 울긋불긋한 가을빛 속으로 사라지고 남자들은 선희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고전 희극에서처럼 세 남자가 모두 한 여자를 쫓는다는 설정에서 시작한 플롯은 흩어지고 모이는 춘당지의 형상처럼 엇갈리는 관계를 구조화한다. 이 기이한 교차의 장소에서의 만남 이후에야 저들은 비로소 그들 자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한 여자를 헛되이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선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선희 주변을 맴도는 세 남자가 예기치 않게 모이는 장소가 창경궁 춘당지다. 선희가 부재한 가운데 셋은 명정전(明政殿)으로 향하며, 선희에 대한 품평을 내놓는다. "걔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마음을 안 열어요"(문수), "머리 좋지, 안목도 좋고"(재학), "고놈 참 귀엽지, 또라이 같기도 하고"(동현). 명전전에 당도한 세 사람의 롱 쇼트, 영화의 엔딩 신이다.

피카디리극장 광장 — 접속(1997)



멀티플렉스가 상용화되기 전 피카디리 극장과 맞은편 단성사, 대로 건너편 서울극장을 잇는 벨트는 황금의 트라이앵글로 불렸다. 그중 피카디리극장 앞 광장은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했다.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에서 친구, 연인과 약속을 한 사람들의 기다림과 대면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피카디리극장이 귀금속 도매상가로 변모한 지금 〈접속〉의 이러한 장소성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감독: 장윤현
출연: 한석규, 전도연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PD 동현(한석규)은 옛 애인으로부터 낡은 음반을 받고, 바로 그날 '여인 2'라는 ID가 그 음반을 신청곡으로 낸다. 동현은 '여인2'에게 그 음악을 신청한 동기를 묻는 이메일을 보낸다.

PC통신 세대의 멜로드라마 〈접속〉은 피카디리극장 광장의 장소성을 장르의 감성으로 승화한 영화다. 영화의 첫 장면은 피카디리 광장 바닥의 배우 손도장 명패를 훑고 극장 입구로 유영한 카메라가 때마침 쏟아진 소나기를 망연히 바라보는 (서로를 의식하지 못하는) 주인공들을 잡은 투 샷이다. 영화의 대단원에서, 통신을 통해서만 소통하던 수현(전도연)과 방송국 PD 동현(한석규)은 동현이 호주로 떠나기 전 피카디리 광장에서 만나기로 한다. 아담한 광장의 크기만큼 쓸쓸한 기운이 감도는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얼굴을 마주한다. 영화는 이런 장소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인간관계의 익명성과 고립감, 우연과 엇갈림 등 사이버 시대의 소통 문제를 그린다.

둘이 조우하는 엔딩 시퀀스에서 아이레벨 카메라와 수현을 잡은 로우 앵글 외에 동현이 자리한 광장과 면한 2층 카페에서 광장을 내려다보는 부감 장면이 중요하게 배치되었다. 이처럼 〈접속〉은 이 장소와 관련해 90년대 영화세대라면 잊지 못할 '앵글의 기억'을 선사한 영화이기도 하다.






강남귀금속타운 — 칠수와 만수(1988)



칠수와 만수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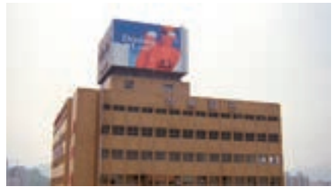
감독: 박광수
출연: 안성기, 박중훈

동두천 출신의 칠수(박중훈)는 만수(안성기)의 조수로 일하게 된다. 거대한 간판 작업을 마친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옥상에서 술을 먹고 철탑으로 올라가 세상을 향해 소리를 치며 기분을 내지만 시민과 경찰은 시국 문제로 항의하는 시위자로 오인한다.

강남귀금속타운으로 '다시 태어난' 구 청록회관. 건물명을 빌딩 이마에 달아 놓았는데 '리본시티'(REBORN CITY)다. 반포대교 남단 고가 왼편에 홀로 우뚝 서 있던 이 건물 주변은 새것과 헌것이 뒤섞인 분주한 공간이 됐다.

1980년대 후반의 강남은 개발 광풍이 휩쓸고 간 뒤 상전벽해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정점으로 한 강남의 탈바꿈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와 휘황한 고층 빌딩, 호화로운 상점과 백화점 등의 소비 시설이 밀집한 새로운 부촌의 탄생을 예고했다. 동두천 출신의 무지렁이 청년 칠수(박중훈)와 비전향 장기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연좌제로 고통받는 만수(안성기)가 한국사회에서 겪는 부조리한 상황을 그린 사회파 드라마 〈칠수와 만수〉의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1980년대 후반의 강남이다. 칠수와 만수는 지금은 강남귀금속타운으로 바뀐 구(舊) 청록회관 빌딩 옥상의 광고탑에 페인트 그림을 그리는 짝패로 등장한다. 도르래 이동판 위에서 작업하는 두 사람의 뒤로 이제 막 분양한 반포의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광고판 위에 앉아 발을 늘어뜨린 채 소주를 마시던 어느 날 술의 힘을 빌려 우발적으로 한 언동이 자살을 기도하는 운동권으로 오인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데, 건물 위쪽과 아래쪽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아득한 이념과 계급, 이데올로기의 간극이 느껴진다. 경찰은 칠수와 만수가 분신을 기도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광고판 위에서 세상을 향해 내지르는 두 사람의 말에 정치적 항거의 의미가 없을지언정 저들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한국사회의 조건이 인물들을 정치화한다. 미국식 패스트푸드점, 비디오 게임방, 쇼핑몰 등 다양한 장소들을 주제와 연결하는 촬영감독 유영길의 카메라 미학은 이 상록회관의 파노라마 쇼트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곳에서 빌보드 그림을 그리던 두 명의 젊은 화공이 소요를 꾀하는 극렬 운동권으로 오인되면서 빌딩 옥상은 경찰과 언론, 군중들에게 포위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방송사가 띄운 헬기 시점으로 묘사된 청록회관이 고립된 섬처럼 보이는 이유다.



후암동 와니의 집 — 와니와 준하(2001)



감독: 김용균
출연: 김희선, 주진모

6년 경력의 동화부 애니메이터
와니(김희선)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준하(주진모)는 춘천 와니의 집에서
알콩달콩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학을 갔던 와니의 이복동생
영민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들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애니메이터 와니(김희선)와 무명의 시나리오 작가 준하(주진모)가 함께 지내는 와니의 이층집은 영화 속에서는 춘천, 현실에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있다. 영화 속의 배경과 현실의 로케이션 장소가 다른 일은 흔하다. 이럴 때 영화가 하는 일은 후암동 이층집을 둘러싼 풍경을 춘천의 작은 동네 풍경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남산 자락의 오르막에 자리한 후암동은 서울이 아닌 어느 소도시에나 있을 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색은 없지만 그래서 더 익숙한 작은 가게들을 지나 자전거를 겨우 돌릴 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면 그 끝에 와니의 집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사연이 있는 4인 가족이 오래 살았을 것 같은, 방마다 개인의 내밀한 역사가 깃든 물건들 위로 먼지가 쌓여 있을 것 같은 집이다. 키 높이를 훌쩍 뛰어넘는 높다란 콘크리트 담벼락과 작은 숲을 연상시키는 정원의 녹음이 그러한 비밀스러운 정서의 골조가 되는데, 집 안 곳곳을 소리 없이 기어다니다 종종 발견되는 달팽이 껍데기와 똑 닮은 모양새다. 바깥으로부터 철저히 안을 지키고자 하는 외피으로서의 공간. 그렇다고 와니가 이 집에 스스로를 가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 와니는 자기만의 속도로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선다. 춘천에서 서울로, 준하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집은 전과는 조금 다른 곳이 되어 있다. (윤이나)

와니의 집으로 촬영됐던 후암동의
이층집은 2023년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집의 상징과도 같던 철문은
유리문으로 교체됐으나 집을 둘러싼 긴
담벼락과 마당 수풀은 그 모습 그대로
우거져 있다.









와니의 집, 안과 밖. 무성한 수목과 짙은 음영에 휩싸인 와니의 거처는 베일에 가려진 와니의 기억과 우울감을 암시하는 기표로 작용한다. 미닫이문을 통해 마당과 바로 통하는 거실은 와니와 동거하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준하의 작업 공간이기도 하다.



세 개의 좁은 골목이 교차하는 곳에서 준하는 와니를 기다린다. 영화 속 우유 대리점은 카페 겸 갤러리로 바뀌었지만 입면의 스킨만 조금 달라졌을 뿐 적벽돌 건물군과 주변 경관은 별로 변한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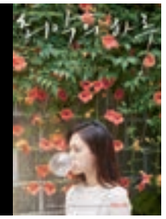
“〈와니와 준하〉는 와니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겉보기엔 단단하지만 속내는 여린 와니는 이 집에 숨어서 영원히 떠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마치 달팽이처럼. 울창한 정원 너머 숨어 있는 이 집을 발견했을 때 은둔자 같은 와니의 성격을 보는 듯했다. 촬영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리모델링했지만, 어쩌면 울창한 정원의 나무들이 집의 성격을 규정한 것 같다. 때는 여름이었고 울창한 나무는 뜻밖의 방해꾼을 불러들였다. 매미였다. 울음소리가 동시녹음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서 제작진은 곤충학자를 수소문했다. 매미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도였다. 낮에는 물을 뿌려서 소리가 조금 줄어들면 촬영을 했다. 문제는 밤이었다. 조명기를 켜면 낮처럼 올어댔거든. 우리는 조명기를 끄고 매미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촬영을 했다. 1분을 넘기지 못하고 올어댔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조명을 껏다 켰다 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가끔씩 와니의 집을 찾아간다. 와니의 집을 보면 오래전 그 순간들이 놀랍도록 생생해진다. 내년 여름에도 그곳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 김용균(감독)

남산 — 최악의 하루(2016)

일진이 사나운 어느 날의 오후, 배우 지망생 은희(한예리)는 서촌의 한 골목에서 일본에서 온 소설가 료헤이(이와세 료)를 만난다. 선배 배우가 쏟아낸 위악적인 충고로 심란해졌던 마음이 조금 진정된 상태로 은희는 배우 남자친구 현오(권율)와의 비밀 데이트를 위해 남산으로 향한다. 남산은 우리가 아는 풍경 그대로다. 때로는 곧고 때로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산책, 러닝, 등산을 하는 객들이 오가고, 나무, 계단, 전망대 등이 데자뷔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

〈최악의 하루〉에서 남산은 시시각각 모습을 바꾸며 갈등과 분쟁, 치유, 위로의 순간들을 연출한다. 산길에 접어든 시간부터 쭉 이어졌던, 기대를 저버리는 사건들의 연속을 지나 은희의 오디세이는 땅거미가 지는 시간부터 다른 입구로 들어간다. 배려심이 없는 '나쁜 새끼'인 현재의 남자 현오와 지질한 과거의 남자 윤철(이희준)을 통과하며 황폐해진 은희의 내면은 밤의 정경 속에서 서촌의 남자를 다시 만나면서 위안을 얻는다. 현실의 상투성을 벗어난 밤의 남산은 미스터리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료헤이가 상상했다는 새로운 소설의 도입부, 눈길을 걸어오다가 뒤를 돌아보는 여인에 대한 묘사처럼 어두워진 산책로의 신비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준다.





최악의 하루 (2016)

감독: 김종관
출연: 한예리, 이와세 료

배우 지망생 은희(한예리)는 연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일본인 소설가 료헤이(이와세 료)를 만난다. 그와 헤어진 후 은희는 드라마에 출연 중인 남자친구 현오(권율)를 만나러 남산으로 향한다. 같은 시간, 한때 은희와 잠깐 만났던 적이 있는 남자 윤철(이희준)은 은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남산으로 온다.

불운한 은희는 남자친구 현오, 예전에 잠깐 만났던 유부남 윤철을 남산 둘레길 한자리에서 조우하는 참사를 겪는다. 국립극장 입구에서 남산공원길을 따라 필동 방면으로 30분쯤 걷다 보면 은희가 현오와 윤철을 동시에 만나는 '최악의' 장면을 촬영한 스폿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가 료헤이의 하루도 만만치 않았다. 둘은 우연히 남산에서 다시 만나 대낮의 혼란을 뒤로하고 연극 무대마냥 빛이 쏟아지는, 끝을 알 수 없는 밤길을 걷는다. "이 길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저 길에 눈이 내리고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무표정하게 내리는 눈 사이를 걸어오다 뒤를 돌아봐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주인공은 행복해질 거예요." 료헤이가 머릿속에 떠오른 소설의 구상을 말할 때, 관객이 보는 것은 역대 한국영화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남산의 모습이다.





"언제든 기분 좋은 산책을 할 수 있는 남산이라는 공간을 영화에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최악의 하루〉에서 주인공 은희는 남산 산책로에서 낮과 밤에 걸쳐 여러 남자와 만나게 된다. 낮의 산책로는 은희가 동시에 만났던 자신의 연애 상대들과 마주치는 공간으로 양쪽 진입로 외에 다른 탈출구가 없어 그녀를 곤경에 처하게 하는 장소다. 수많은 경사로와 방향성이 있는 이 길의 입체감이 사건에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밤의 남산 산책로에서는 은희와 소설가 료헤이가 우연히 만나 어려운 하루 속에서 나름의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찍었다. 어찌 보면 창작자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인물이 같이 걷는 듯한, 약간의 환상성이 드러나길 바랐는데, 도시 가운데 있는 커다란 숲이 그 묘한 경계의 분위기를 줬다. 숲의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명을 나무 위로 올렸다. 산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그림자가 산책로 위에서 춤을 췄다. 가끔,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무보다 키가 큰 가로등 몇 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상의 공간을 영화라는 무대에 올리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새로운 얼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종관(감독)

남산 케이블카 — 카페 느와르(2010)





카페 느와르
(2010)

감독: 정성일
출연: 신하균, 문정희

음악교사인 영수(신하균)는 같은 학교 선생 미연(김혜나)과 연인 관계다. 미연에게 관심을 잃은 영수는 여행지에서 만난 학부모 미연(문정희)과 불륜 관계를 맺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지만 이별을 통보받는다. 이별 후 닥친 절망에 괴로워하던 영수는 거리에서 우연히 보게 된 선화(정유미)에게 호감을 느낀다.





승강장 주변에서 영수가 올려다보는 남산 케이블카, 한 아이가 놓친 빨간 풍선이 케이블카의 경로를 가로지른다. 영수는 케이블카 안에서 미연의 딸이 선물한 상자의 포장을 뜯고 안을 들여다본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끝내 보여주지 않는다. 확 트인 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전경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다.



임신한 소녀가 케이블카 안에서 말한다. "나 이제 두렵지 않아. 죽어도 죽진 않을 거야. 비가 오면 비를 맞을 거고, 바람이 불면 세상을 마주 볼 거야. 나 노력할 거야. 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아침을 기다릴 거야.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느껴보고 싶어."

남산 케이블카는 중구 회현동 승강장에서 남산 정상 부근을 연결한다. 노선 거리 약 600m, 평균 초속 3.2m, 편도 소요 시간은 3분 정도다. 드라마틱한 높이에서 서울의 파노라마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1962년 개통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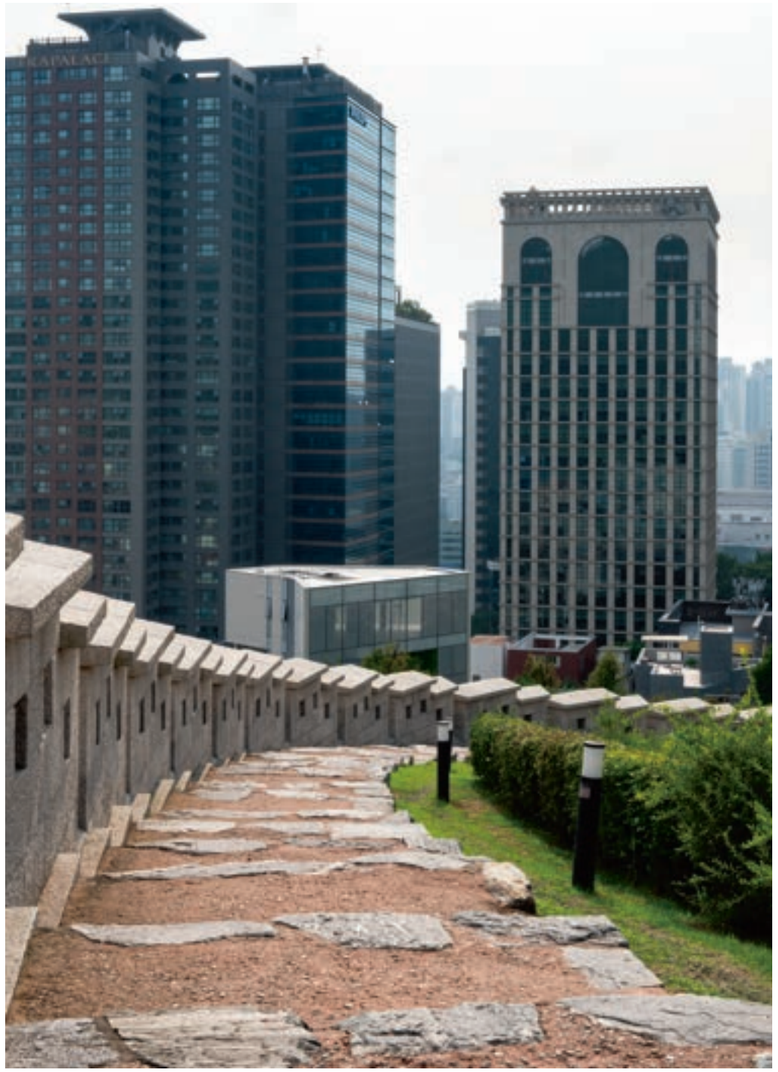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촬영지다. 〈최악의 하루〉에서 배우 지망생 은희(한예리)가 심란한 오후 시간에 남자친구 현오(권율)를 만나기 위해 남산으로 향할 때 케이블카가 나온다. 심지어 〈오! 수정〉(2000)의 플롯을 구성하는 한 챕터의 제목은 '매달린 케이블카'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연출 데뷔작 〈카페 느와르〉에 등장하는 케이블카는 〈오! 수정〉의 구조적 틀로서 케이블카를 참조한 것에 가깝다. 이 영화에는 남산 케이블카가 두 번 등장한다. 유부녀 미연(문정희)과 불륜 관계인 영수(신하균)는 미연의 딸이 선물한 상자를 들고 남산 케이블카에 오른다. 케이블카 안에서 상자의 포장을 뜯고 안을 바라보는 영수의 표정은 굳어진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끝내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인데, 보이지 않는 내용물은 영수의 감정 상태에 대한 상상을 키운다. 케이블카는 마지막 장면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임신으로 실의에 빠진 소녀(정인선)가 탄 케이블카는 위를 향해 올라간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친구의 질문에 소녀는 낳고, 키우고, 살아야 한다고 응답한다. 두려움을 떨친 모습의 그녀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면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벗어날 희망의 단초를 찾은 것 같다.

“내가 남산 케이블카를 처음 탄 것은 중학생이 되어서였다. 부모님 손을 잡고 탄 게 아니라, 서울 시내를 쏘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려 남산에 가서 타보았다. 그걸 타고 올라가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은 남산 위에 예쁜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 지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물론 믿지 않았다.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렇게 높은 데서 서울을 내려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잡념이었지만 그때는 심각한 고민을 담은 질문들이 별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다.

그런 다음 아주 이따금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던 봄날에도 케이블카를 탔다. 시나리오를 쓰면서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마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러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부터 여기서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 나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만화책 소녀를 연기한 정인선 배우가 내게 물었다.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면 돼요? 간단하게 대답했다. 올라가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 정성일(감독)

남산 백범광장 — 아워 바디(2019)





아워 바디
(2019)

감독: 한가람
출연: 최희서, 안지혜

8년째 시험에 낙방 중인 행정고시생 자영(최희서)은 지칠 대로 지쳐 고시 생활을 그만둔다. 홀로서기가 쉬울 리 없다. 그러나 자영은 우연히 마주친 현주(안지혜)에게 이끌려 생전 처음으로 달리기를 하게 되고, 조금씩 삶의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남산 백범광장은 4호선 회현역에서 남산으로 오르는 중턱에 위치한 도시 공원. 백범 김구 동상 앞으로 펼쳐진 널따란 잔디밭과 공원을 둘러싼 한양도성 성곽,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지로 유명하다.

자영(최희서)은 오랜 고시 생활과 반복된 실패로 심신이 완전히 소진되고 결국 고시 포기를 선언한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년간 시험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고립돼 살아온 자영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던 중 남산에서 야간 달리기를 하는 무리와 마주치고 생동감과 자신감으로 빛나는 현주(안지혜)에게 매혹된다. 자영은 현주와 함께 달리며 타자의 몸과 공명하고, 자기 욕망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다.

영화에서 현주와 자영은 새벽 한강에서 뛴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간의 남산을 달린다. 남산 백범광장은 자영이 처음 현주를 마주친 곳이며, 이후 둘은 광장을 둘러싼 한양도성 성곽에 걸터앉아 야경을 보며 가까워진다. 이태원 골목길과 소월길, 남산 뒷길 등 남산 곳곳을 달리며 현주는 자영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다. 그리고 그 길에서 현주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다.

자영은 현주의 죽음 후에도 그녀의 가르침을 따른다. 자기 몸을 단련하는 달리기 또한 예측 못한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삶의 활기와 욕망의 탐구는 타인의 신체나 이질적인 욕망들과 얽히고 섞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그 여정은 모호하고 모험적이라는 것 말이다.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이태원, 남대문, 충무로 등 이질적인 문화들로 연결되는 남산은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조혜영)





엄마에게 고시 공부를 포기했음을 알리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던 자영은 백범광장에서 야간 달리기를 하는 무리와 마주친다. 무리의 선두로 달리던 현주에게 시선을 빼앗긴 자영은 그 자리에 서서 무리가 광장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넋 놓고 지켜본다.



한양도성 성곽 꼭대기에 앉아 있던 현주가 자영을 향해 손을 흔든다. 둘은 남산 러닝을 마치고 같은 자리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경으로 펼쳐지는 도심의 야경이 아름답다. 실제로 '서울 밤 풍경 조망 지점'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현주와 자영이 사는 동네는 각각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상상해봤다. 현주는 오피스텔 빌딩들이 모여 있는 도심에, 자영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높은 지대에 살 것 같았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달리기로 만나게 되는 장소는 도심이 내려다보이는 도시 공원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실제 촬영을 하게 된 남산은 카메라 감독의 제안으로 가게 되었다. 저 멀리 도심의 불빛이 보이는 것이 좋았다. 자영이 속하고 싶었지만 속하지 못했던, 자영의 엄마가 자영에게 원했던 삶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영이 현주를 따라 달리기를 시작한 초반, 자영의 달리기가 자영의 삶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담고 싶기도 했다. 촬영 준비와 촬영을 위해 이태원 골목을 지나 남산 뒷길로 다닐 때면, 거의 매번 실제 러닝 동호회 사람들을 마주쳤다. 건강하게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자니 나도 영화 속 자영처럼 동경심이 일곤 했다. 지금도 운동이 삶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걸으면서 보는 풍경과 달리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풍경은 정말 다르기에 한 번쯤은 달리기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 한가람(감독)

동호대교 — 소공녀(2018)





소공녀
(2018)

감독: 전고운
출연: 이솜, 안재홍

하루 한 잔의 위스키와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만 있다면
더 바라는 것이 없는 3년차 프로
가사도우미 미소(이솜). 좋아하는 것들이
비싸지는 세상에서 포기한 건 단 하나,
바로 집이다.

동호대교는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한강의 15번째 다리다. 3호선 철도교의 주황색 철골 구조가 시그니처로, 다리 위로 전철 차량이 달리는 특유의 풍광 덕분에 동작대교와 함께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다리로 손꼽힌다.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 미소(이솜)는 친구의 집을 청소해주고 일당을 받아 나서기 전 쌀을 부탁한다. 얼마 후 쌀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담배를 피우며 집으로 가는 미소는 동호대교를 건너고 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다리 위를 걷는 미소는 두툼한 겨울 외투에, 머플러, 장갑 등을 걸친 레이어드 룩 차림이다. 손에 들린 비닐봉지는 구멍이 나서 쌀알이 줄줄 새고 그걸 비둘기가 쪼아먹는다. 자동차와 열차가 나란히 달리는 동호대교의 좁은 보행로를 걸을 때 미소의 어깨 너머로 강남의 아파트들이 보인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다리 동호대교는 부의 양극화를 극적으로 시각화한다. 한강의 모든 다리들이 강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지만 지하철 3호선 라인을 따라 한 블록 차이에 불과한 강남과 강북은 많은 '차이들'로 사람들 사이를 가른다. 그 차이를 가로지르는 미소는 물질이 중심이 된 세태를 초극하려는 몽상적 캐릭터다. 미소의 뒴뒴이를 형상화하는 동호대교의 의미는 후반부에서 한 번 더 강조된다. 뿔뿔이 흩어진 과거의 친구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에게 선물을 남기고 간 미소가 완전한 백발을 하고서 담배를 피우며 동호대교를 건넌다. 〈소공녀〉의 동호대교는 가난하지만 위엄이 있는 삶을 경축하는 연결의 장소다.





친구에게 쌀을 얻은 미소가 동호대교를 건넌다. 쌀이 담긴 검정 비닐봉지에 구멍이 나서 쌀알이 줄줄 새고 있다. 미소 왼쪽 건너편 성벽처럼 서 있는 아파트 단지가 1976년 준공되어 강남 부동산 신화의 서막을 연 압구정현대 1,2차아파트다.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은 미소의 일명 '레이어드 룩'은 매서운 세상을 견디기 위한 방어막처럼 보인다. 중앙의 철도 교각과 도로 교각이 분리되어 있는 대교 위를 열차가 질주할 때 부유하는 도시의 시각과 음향이 비정할 정도로 강조된다.



잠수교 — 태양은 없다(1999)





한탕을 노리는 매끈한 슈트 차림의
홍기(이정재), 그와는 대조적으로 흰색
티셔츠에 하와이언 셔츠를 겹쳐 입고 플립
플랍을 신은 채 쪼다니는 도철(정우성)에게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 바람 부는
잠수교에서 불균형하게 걷고 있는 두
인물을 형상화한 〈태양은 없다〉 포스터는
9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도상 중
하나다.



감독: 김성수
출연: 정우성, 이정재

권투 선수 도철(정우성)은 후배에게
KO패 당한 후 권투를 그만두고 관장의
소개로 간 홍신소에서 홍기(이정재)를
만나게 된다. 홍기의 꿈은 압구정동
30억짜리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 도철은
심부름센터 일을 하면서도 권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태양은 없다〉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던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잃어버린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잠수교라는 장소의 의미를 전유한다. 이 영화의 짝패 주인공 도철(정우성)과 홍기(이정재)는 상층부로 올라가지 못하는 청춘의 대변자들이다. 불세출의 미남 배우들의 협력작으로 지금까지 명성이 자자한 이 영화의 포스터를 잠수교에서 촬영한 이유도 두 인물의 캐릭터 유형 때문이다.

기술과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펀치드렁크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증상을 극복해야 하는 복서 도철, 사채업자의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는 하급 깡패 홍기는 그들 각자의 세계 안에서 노력하지만 위로 올라갈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 포스터 외 영화에서도 잠수교가 잠깐 등장하는데 도철과 홍기의 평행한 운명을 묘사하는 한 교차 몽타주 신에서 도철은 잠수교를 달리며 섀도복싱을 한다. 아래층의 존재들, 바닥의 삶을 무연히 증언하는 장소의 위상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반포동과 서빙고동을 잇는 이 다리는 상단과
하단에 나란히 평행을 이룬 두 개의
다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교각이다. 하단의
잠수교는 교통량 분산, 경부고속도로의
접속 효과, 홍수 시 강물의 수위 측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지만 조형적으로는
상하가 구분되는 위계의 의미를 형상화한다.

한강 — 괴물(2006)









서사의 축이 되는 복선과 주요 등장 인물이 소개된 후, 뭔가를 보고 웅성이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통해 괴물의 등장이 예고된다. 교각 아래 뭔가 매달려 흔들거린다. 교각에서 이탈한 괴물이 고수부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현서를 납치해 유유히 사라지는 배경으로 서강대교와 그 배후지가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콘크리트 인공물과 대비되면서 괴물의 동작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서강대교는 괴물의 은거지인 원효대교 북단과 함께 괴물의 주된 활동 무대로 설정된 장소다.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며 도시를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하는 한강은 1900년 한강철교 준공 이후 30개가 넘는 다리가 놓이는 동안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경제 기적의 상징물이자 번영의 증거로 표상되어 왔다. 서울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위상만큼이나 한강은 수많은 한국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해왔는데, 현대사와 관련지으면서 이곳을 가장 낯설게 표현한 사례가 바로 〈괴물〉이다.

〈괴물〉에서 한강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든 유독 폐기물이 괴물로 화(化)하는 장소이자 주인공 강두(송강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이고, 괴물과의 사투가 벌어지는 전장이다. 서강대교 남단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과 오징어를 배달하던 강두는 괴물을 보자마자 도망친다. 책을 읽던 소녀가 괴물에게 습격당하고, 강두의 딸 현서(고아성)는 괴물의 꼬리에 감겨 어둡고 음침한 교각 콘크리트 동굴에 감금된다. 이에 앞선 도입부 설정은 천만 명이 넘는 시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강에 독극물을 흘려보내는 행위에 내재된 상징적 폭력을 강조하기 위해 암울한 비전으로 한강을 시각화한다. 폐기물이 버려진 몇 년 뒤 낚시꾼의 손을 돌연변이 괴물이 물고, 몇 달 후 한 남자가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든다.

한강에서 이런 투신은 자주 일어나며 강에서 나고 자란 괴물의 성장은 한국 경제의 발달 경로와 상관관계가 있다. 괴물의 기원이 한국 경제의 피폐화로 인한 자살의 유행(IMF 외환위기)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영화는 미군 점령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 개혁에 대한 알레고리로 한강의 의미를 확장한다. 오리배가 떠다니는 목가적인 풍경의 수면 아래, 시스템의 모순이 빚어낸 무시무시한 공포를 형상화한 〈괴물〉은 한강을 보는 관점을 바꾼 영화로 기억할 만하다.



감독: 봉준호
출연: 송강호, 변희봉, 박해일, 배두나, 고아성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공격한다. 고수부지 매점 주인 강두(송강호)의 딸 현서(고아성)도 괴물에게 납치당한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딸과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강두는 슬픔도 잠시, 가족들과 함께 구출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서강대교 남단 여의도한강공원. 강변 제방 정비로 영화 속 풍경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콘크리트 경사면 대신 산책로와 유선형 계단이 조성됐고, 기슭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사람들이 강물에 바로 뛰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 고수부지 매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섰다.





영화 속 괴물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인 서강대교는
마포구 신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왕복
6차로의 다리다. 국내 최초의 닐센 아치교로 1996년
개통됐다. 1980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시 재정 문제로
공사가 10년 동안 중단된 채 방치되어 '서울의 흉물,
한강의 괴물'이라 불리기도 했다.

밤섬 — 김씨 표류기(2009)



밤알을 까놓은 것처럼 생겨 밤섬이라 불렸다. 1968년 여의도 개발 시작 전까지 62세대 594명이 거주했으나 현재는 관리 당국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무인도다. 2012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정도로 다양한 식물이 서식 중이며, 도심 속 최대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다. 영등포와 마포를 잇는 서강대교가 섬을 관통한다.

무인 행성의 우주비행사 또는 무인도의 조난자를 다룬 영화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우리들이 당연시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캐릭터의 모습을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씨 표류기〉는 그런 영화 중 하나이고, 영화의 무대가 되는 밤섬은 이와 같은 의미 맥락이 스민 공간이다.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는 한강에 어색하게 떠 있는 이 무인도는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섬으로 지형적 의미를 추출하자면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 고립된 존재의 조건을 닮은 형상을 하고 있다. 현실 속 무인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한 남자의 무인도를 묘사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라는 점에서 확실히 독창적인 면이 있다.

밤섬은 고립이라는 설정에서 시작되는 이 스토리에 최적화된 장소로 소비주의, 소외,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체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물리적인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밤섬은 아름다움, 부, 소비주의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난파된, 대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은둔자들의 비밀 기지처럼 보인다. 은유적이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인 무인도에서 주인공 남자 김씨(정재영)가 바라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처럼 섬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연대를 숙고하게 하기 위한 배경으로 남겨둘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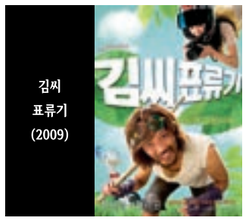








투신한 김씨가 강물에 떠밀려 모래사장에서 깨어난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한강 밤섬' 표지판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 김씨는 방전되기 직전의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한다. "119시죠? 어떻게 오셔야 되나,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와가지고." 영화에서 밤섬은 죽으려다 표류한 사내가 살기 위해 투쟁하는 공간,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 자리한 고립무원의 섬이라는 이율배반의 장소다.



김씨 표류기 (2009)

감독: 이해준
출연: 정재영, 정려원

자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 한강의 밤섬에 불시착한 남자. 모래사장에 쓴 'HELP'가 'HELLO'로 바뀌고 무인도 야생의 삶도 살아볼 만하다고 느낄 무렵, 익명의 쪽지가 담긴 와인병을 발견한 그는 알 수 없는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한다.

홍제동 개미마을 — 찬실이는 복도 많지(2020)



감독: 김초희
출연: 강말금, 윤여정

감독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영화 프로듀서 일을 그만두게 된 찬실(강말금)은 변두리 산꼭대기 마을로 이사한다. 세 들어 살게 된 집 주인 할머니(윤여정)는 어딘지 으스스하고, 아니나 다를까 집에서 귀신이 나온다. 그런데 귀신치고 좀 이상하다.



찬실이가 할머니와 사는, 가끔 장국영이 출몰하는 집. 이곳에서 찬실은 난세를 견디는 법을 배운다. 영화에서 문 앞 너머 천진하게 웃는 강아지 벽화가 몇 번 스친다. 지극히 평범한 외관의 이 집을 특정하기 위해선 강아지 벽화를 발견해야 하지만,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함께 영화를 찍고 있던 감독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신선한 오프닝 장면 후, 영화 제목이 뜨고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는 바로 산길이다. 그다음 108계단쯤은 우스워 보이는 계단이 등장한다. 감독이 죽고 오갈 데 없어진 영화 프로듀서 찬실(강말금)이 막 이사 온 동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의 개미마을이다. "여기는 뭐 용달차 한 대 못 올라오겠네요." 함께 계단을 오른 동료의 소감은 개미마을에 대한 짧고 굵은 묘사다. 이 동네가 뭐가 어때서 그러느냐는 찬실의 대꾸를 덧붙여주면 더욱 좋겠다. "그래도 여기 공기는 진짜 좋다."

한국영화에서 망한 사람들은 주로 내려간다. 지하실로 간 〈기생충〉의 가족들처럼. 그게 아니라면 올라간다. 산등성이나 비탈에 만들어진 마을, 달동네로. 개미마을은 달동네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그중 단연 유명한 장소다. 언젠가부터 오래된 마을에 유행처럼 입혀지는 벽화로 알려진 데다가 인왕산 둘레길의 길목인 덕에 감성 여행지로도 손꼽힌다. 그렇지만 살고 싶진 않은 동네다. 가난했던 옛 시절에 살던, 혹은 갑자기 망해 바닥을 칠 때나 잠시 들러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을로 여겨진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그랬던 개미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기에는 오늘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그렇지만 애써서 하는 하숙집 할머니(윤여정)가 살고 있다.

'홍제동 개미마을'과 '영화'를 나란히 검색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7번 방의 선물〉(2013)이 부녀의 행복했던 한때를 영화 속에 박제해 뒀다면,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마을 꼭대기로 힘겹게 올라와, 마침내 거기에 사는 영화다. 개미마을의 "사각형도 아닌" 방에서 쓴 찬실의 시나리오는, 아마 이 영화와 많이 닮았을 것이다. (윤이나)







담벼락 꽃 그림을 배경으로 씩씩하게 집으로 향하는 찬실을 포착한 영화 대표 스틸. 굴곡진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찬실의 내면을 요약한 이미지다. 촬영 장소는 개미마을 꼭대기 인근, 찬실이 이사 간 집으로 설정된 비탈집 근처에 있다.



찬실이와 동료들이 이삿짐을 이고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개미마을의 전경이 '제대로' 묘사된다. 가파른 비탈길은 영화 촬영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동네 주민의 말에 의하면) 촬영 이후 오르막길 초입 철제 난간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인왕산 둘레길 입구에 위치한 홍제동 개미마을. 가파른 산비탈에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과거 '인디언촌'이라는 비칭으로 불렸으나, 1980년대 주민들의 요구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사는 곳'이라는 의미의 현재 이름을 얻었다. 마을 곳곳의 벽화들은 2009년 벽화마을 프로젝트로 조성됐다.

라이카시네마는 2021년 개관한 서대문구 연희동의
예술영화관이다.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독 1층에 티켓
박스가, 지하 1층에 상영관이 위치해 있다.

연희동 라이카시네마 — 소설가의 영화(2022)





감독: 홍상수
출연: 이혜영, 김민희

소설가 준희(이혜영)는 후배가 운영하는 책방을 방문한다. 그리고 혼자 타워에 올라갔다가 영화감독 부부를 만나고, 이어서 공원을 산책하다 배우 길수(김민희)를 우연히 마주친다. 준희는 길수에게 함께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부탁한다.

소설가 준희(이혜영)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찍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고백은 즉흥적인 것처럼 가볍다가도 종종 절박하다. 〈소설가의 영화〉는 슬럼프에 빠져 글을 오랫동안 쓰지 못한 소설가의 하루를 따라간다. 준희는 우연히 영화배우 길수(김민희)를 만나고 단편영화를 찍고 싶다고 털어놓는다.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금방 친해지고 길수는 준희의 영화에 기꺼이 함께하기로 한다. 〈소설가의 영화〉 내내 준희는 자신이 찍고 싶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 "나의 영화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진짜여야 한다. 어떤 배우를 편안한 상태에 두고서,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무언가를 온전히 기록하는 것이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다." 구체적인 동시에 추상적인 이 설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건 다름 아닌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이다. 메타영화라고 해도 좋을 이 고백의 제일 끝자락에 영화는 이윽고 완성된다.

영화 속 '준희의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가 바로 연희동 라이카시네마다. 준희는 어떤 영화를 찍은 걸까. 영화 말미, 흑백으로 진행되던 영화가 끝나고 길수가 나오는 컬러 영상이 등장한다. 아마도 '준희의 영화'이리라 짐작되는 이 영상의 전모를 관객은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명백하게 목격하는 건 준희의 영화가 상영되는 장소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 준희는 라이카시네마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다. 상영관, 복도, 옥상까지 라이카시네마 곳곳을 서성이는 준희의 동선은 아마도 〈소설가의 영화〉 속에서 가장 선명한 순간일 것이다. '모든 것이 진짜인,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온전한 기록.' 우리는 준희가 만든 영화의 일부밖에 볼 수 없지만 '소설가의 영화'에 대한 기록은 진짜 공간에서 생생히 마주한다. 결국 모든 것이 진짜여야 한다는 명제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는 건 다름 아닌 연희동에 위치한 라이카시네마다. (송경원)

건물 옥상에는 영화를 보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영화에서 극장 직원의 안내로 이곳에 올라온 준희는 감탄을 금치 못한다.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해놓으셨네.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다."



'준희의 영화'를 보러 상영관에 들어온 길수 일행. 영화는 길수 혼자 보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관객석에 착석 금지 테이프를 쳐놓았던 시기에 촬영됐다.



길수를 상영관에 혼자 두고 나와 자기 영화가 상영을 시작하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준희. 현재는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인해 로비 격의 대기 장소가 1층으로 이동했다.

세검정 삼거리육교 — 우리들(2016)



우리들
(2016)

감독: 윤가은
출연: 최수인, 설혜인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소녀 선(최수인)은 방학식 날 전학을 온 지아(설혜인)와 친구가 된다. 선과 지아는 골목을 누비고 서로의 집에 오가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4학년 여름 방학을 보낸다. 그러나 개학과 함께 둘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윤가은 감독은 단편 〈손님〉(2011)과 〈콩나물〉(2013)부터 장편 〈우리들〉과 〈우리집〉(2019)까지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을 십대 초반 여자아이들의 다채로운 감정, 모험, 성장이 전개되는 장소로 만드는 놀라운 연출력을 보여왔다. 〈우리들〉의 선(최수인)과 지아(설혜인) 역시 종로구의 오랜 동네 곳곳을 누비며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비밀을 공유하고, 빛나는 우정을 쌓고, 서로를 배신하고, 불안과 애증 속에서 다시 '우리'를 꿈꾼다. 오랜 장소들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세검정 삼거리육교는 두 아이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장소다. 1994년 완공된 이곳은 종로구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큰 육교다. 세검정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육교는 신영동, 평창동, 부암동으로 연결된다. 영화 초반 지아는 육교에서 한숨을 쉬던 선을 아는 체하며 먼저 함께 놀기를 청한다. 하지만 후반부에선 육교에서 마주친 선의 아버지의 술주정을 보라에게 말해 선을 괴롭힐 빌미를 준다. 오래된 육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멀어져 관계 회복조차 어려운 아이들의 복잡한 세계가 벌어지는 장소다. (조혜영)



같은 반 아이들의 따돌림으로 슬픔에 잠긴 선. 육교를 건너던 지아는 난간에 얼굴을 묻고 있던 선을 발견하고 말을 건넨다. "야, 이선." "아, 한지아." 외로운 둘은 이곳에서 친구가 된다. "그런데 여기 되게 높다. 차도 엄청 많은데?"



선은 술에 취해 육교 위에 널브러져 있던 아버지를 데리러 오는데, 하필 그때 육교를 건너던 지아와 딱 마주쳐 감추고 싶던 사정을 들키고 만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지아를 불러 세워 아는 체를 한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서 어색하게 헤어진 선과 지아. 이때 카메라는 점점 멀어지는 지아를 돌아보는 선의 시선이 되는데, 세 방향으로 난 육교의 통행로가 둘의 감정과 공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수색교 — 메기(2019)





메기
(2019)

감독: 이옥섭
출연: 이주영, 문소리, 천우희, 구교환

성관계를 하는 엑스레이 사진이
발견되면서 병원은 발칵 뒤집힌다. 간호사
여윤영(이주영)은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과
남자친구(구교환)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병원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출근을 하는데 막상 병원에선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프로젝트인 이옥섭 감독의 〈메기〉는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청년 실업 같은 무거운 테마를 감각적인 스타일과 독특한 서사로 표현한다. 메기(천우희)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판타지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메기〉는 현실에 탄탄히 발 디디고 있는 '리얼리즘' 영화다. 특히 몇몇 장소의 '현실성'이 그 증거가 되는데 수색교가 대표적이다. 포스터의 배경 공간이기도 한 이 다리는 마포구 상암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잇는다. 영화 속에선 간호사 윤영(이주영)의 퇴근길로 등장한다. 백수 애인 성원(구교환)은 윤영을 껴안 듯이 자전거에 태우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기서 그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재개발로 인해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상암에서, 고지대의 구축 빌라들이 보이는 수색으로 가는 그들. 그들의 거처는 바로 그 동네에 있다.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가는 길엔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공간이 등장한다. 건물을 헐어버린 공터를 푸른 비밀로 덮어놓은 그곳에, 젊은이들은 마치 해변가에서 피서를 즐기듯 앉아 평화 시위를 한다. 이 장면은 〈메기〉를 대표하는 풍경이며 이 영화의 테마인 '청년의 삶과 인권'과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후 서울 시내에 알 수 없는 싱크홀이 생기고, 그 덕에 성원은 공사 현장에 취직한다. 일자리가 생긴 성원이 밤에 집으로 갈 때, 신이 나서 수색교 난간 위를 걷는다. 하지만 반지 '맥신'을 잃어버린 후 우울하게 건너는 곳도 바로 그곳. 〈메기〉에서 수색교는 삶의 애환을 함께하는 장소다. (김형석)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교는 수색과 상암을 잇는 길이 160m, 폭 18.5m의 교량이다. 다리 밑으로 여러 개의 철로가 얽혀 지나가며 특이한 풍광을 만드는데, 이는 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차량 기지(수색차량사업소, 서울차량사업소)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영화 촬영 시점과는 달리 2023년 현재 수색동 인근 지역은 재개발의 여파로 대단지 아파트가 꽤 들어서 있는 상태다.







윤영의 퇴근길. 성원은 윤영을 자전거에 태우고 수색교를 건너 집으로 간다.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들어선 상암에서, 고지대의 구축 빌라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수색으로.



싱크홀이 생긴 덕분에 공사 현장 일자리를 얻은 성원이 기쁨에 겨워 수색교 난간 위를 사뿐사뿐 걸어간다. 〈메기〉에서 수색교는 인물들의 애환을 품는 구조물로서의 장소다.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2001)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이종필, 2020)





플란다스의 개 (봉준호, 2000)




비트 (김성수, 1997)



서울로 취업한 혜주(이요원)의 생일파티를 함께한 밤, 인천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섯 명의 친구들은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과 연결된 지하상가를 전속력으로 달린다. 〈고양이를 부탁해〉의 이 장면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한 장면으로 오마주된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던 자영(고아성), 유나(이솜), 보람(박혜수) 삼인방은 회사에서 경험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토로하며 술을 마시다가 지하철 막차를 타기 위해 달린다. 서울의 지하철 막차를 타겠다는 의지는 결단코 택시만큼은 탈 수 없다는 의지와 동급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먼 길을 떠나야 하는 〈고양이를 부탁해〉의 친구들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입사 8년 차 동기 삼인방도 택시를 탈 돈이 없다. 플랫폼 건너편 자영의 "고맙다고!"라는 외침을 유나와 보람이 "돈 없다고!"로 듣는 것은, 오해만은 아닐 수 있다.

〈플란다스의 개〉 역시 고달픈 소시민의 필수적인 이동 수단으로 지하철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의 고단한 삶을 구걸이라는 형태로 목격하게 된 현남(배두나)과 윤주(이성재)의 태도를 비교해 보기에 지하철은 딱 걸맞은 장소다. 교수에게 뇌물을 바친 뒤 만취한 윤주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달려오는 지하철을 마주 보는 장면에서는, 〈비트〉에서 로미(고소영)가 선로로 뛰어드는 친구를 목격한 순간이 떠오르기도 한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이전, 2000년대 초반까지의 지하철역은 이처럼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아이돌과 유명인의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려 있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된 2020년대의 지하철역은 한국영화에서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 시절에도 지금도,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얼굴에 고단함이 깃들어 있는 것만은 똑같다면 말이다. (윤이나)

지 하 철

아 파 트

마포아파트에서 둔촌주공까지, 60년 동안의 아파트 영화들

사진: CDAPT

마포아파트
반포주공아파트
이촌점보아파트
은마아파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문정시영아파트
금화시민아파트
남산시민아파트
서소문아파트
동대문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집의 시간들(라야, 2018)





















赤道의 笑

나 원 희






Lawsons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0
사용 승인: 1962년 12월 1일
세대수: 642세대(총10개동)

마포아파트


마포아파트 주거동 입면. 출처: 대한주택공사.


마포아파트 'Y'자형 주거동과 놀이터. 출처: 대한주택공사.


준공 직후 1962년 11월 30일 촬영한 마포아파트 외경. 출처: 국가기록원.


1. 빚 독촉을 위해 택시를 타고 마포아파트에 도착하는 젯트부인. 마포아파트 특유의 방사형 계단이 보인다.


2. 마포아파트 실내로 설정된 공간. 젯트부인 강여사는 돈을 받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눕는다.


3. 마포아파트는 남편을 유학 보낸 아내의 방황을 그린 이만희 감독의 〈여자가 고백할 때〉(1969)의 촬영지이기도 했다. 마포아파트 A형 주거동 입면을 배경으로 한 스틸.


4. 지연(문정숙)의 거주지로 설정된 아파트 내부. 베란다 밖으로 아파트 전경이 보인다.

한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 1962년 12월 'Y'자형 6개동(A, B형)이 준공되었고, 1964년 11월 '—'자형 4개동이 준공되었다. 연탄을 이용한 보일러,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 시설, 발코니 등의 현대적 시설을 갖춘 마포아파트는 당시 5·16 군사정부에 의해 "구래의 고식적이고 봉건적인 생활 양식을 탈피하여 현대적인 집단공동 생활 양식을 취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문화의 향상을 이룩할"(준공식 치사 중) 주거 양식으로 선전되었다.

제트기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고리대금업자 '젯트부인' 강여사(도금봉)의 악행과 몰락을 그린 〈젯트부인〉(1967)에 묘사된 마포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양식의 향유자이지만 젯트부인에게 진 빚을 갚을 길 없는 부부의 곤경이 배인 공간이다. 카메라는 마포아파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Y'자형 주거동과 '—'자형 주거동을 자동차를 타고 도착하는 강여사의 배경으로 포착한다. 영화 속 아파트 내부는 8.71평에서 15.36평에 이르는 당시 분양 면적을 반영한 아담한 공간이며 침대와 소파가 딸린 거실을 갖춘 원룸 스튜디오 형태다.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빼앗길 처지에 빠진 교수 부부가 동반 자살하자 강여사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찰에 잡혀가는 신세로 전락한다. 영화에서 마포아파트는 현대적인 생활 양식의 이면에 도사린 속성들, 감정 없는 돈의 논리에 의해 소유권이 냉정하게 뒤바뀌는 부동산, 변제 불가능한 빚의 볼모가 되어 주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집의 얼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24
사용 승인: 1973년 1월 25일
세대수: 3,590세대(총99개동)

반포주공아파트



1979년 8월 23일 촬영한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일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1973년 대한주택공사가 남서울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분양한 거대 단지. 한강 매립지에 건립되어 주변 편의시설이 부재했으므로 단지 안에 상가와 학교, 동사무소, 은행 등 기반 시설을 갖춰 종래 아파트 단지와 차별화했다.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된, 한국 아파트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지다. 2022년 철거를 시작했고, 2028년 재건축 입주가 예정돼 있다.



2022년 2월 28일 촬영.

김수용 감독의 〈야행〉은 1974년 제작됐으나 사전검열과 영화법 4차 개정에 따른 제작사의 등록취소 문제로 1977년이 돼서야 개봉했다. 〈야행〉은 김수용 감독의 전작 〈안개〉(1967)와 마찬가지로 김승옥 원작에 윤정희와 신성일이 주연을 맡았다. 〈안개〉가 압축적인 근대화와 도시화를 관통하는 남성의 방황을 다룬다면, 은행원인 현주(윤정희)의 주관적 시점으로 전개되는 〈야행〉은 직장 동료(신성일)와 신축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서울 신흥 중산층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혼란과 불만에 휩싸인 여성의 주체성과 성적 환상을 그린다.

현주는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 된 반포주공 1단지에 산다. 1974년 제작된 영화는 1973년 처음 공급된 당시 반포주공아파트의 실내 구조와 창밖 전망을 스펙터클하게 잡아낸다. 영화 속 아파트는 은밀하게 섹스를 하는 에로틱하고 모던한 공간이자, 창밖으로 대단지 내 다른 아파트만 보이는 삭막한 신도시 공간으로 묘사된다. 또한 아파트 근처에는 베트남 전쟁 중 죽은 옛 연인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이 있는데, 현주는 현충원 헌병 앞에서 스타킹을 올리며 유혹하는 제스처를 취하곤 한다. 이 장면은 강남 개발과 베트남 참전이 모두 국가 주도의 근대화 프로젝트 영향하에 있음을 은유하는 동시에, 신흥 중산층에 진입했지만 결혼 같은 규범은 원치 않는 여성의 욕망을 드러낸다. 지난 50년간 강남 중산층 욕망의 상징이 되어온 반포주공아파트는 2023년 재건축 진행으로 사라졌지만, 〈야행〉은 그 욕망의 시작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사료로 남게 됐다. (조혜영)





〈야행〉에서 현주(윤정희)가 거주하는 반포주공 1단지는 남의 눈을 피해 동료 은행원(신성일)과 동거하는 일탈의 공간이다. 사람의 온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거대한 세트장처럼 보이는 중산층을 위한 공간에서 인물들은 반쯤 타성에 젖은 채, 혼란스러운 만남을 이어간다. 인근 국립묘지엔 여고 시절 선생이었고, 월남전에서 전사한 애인이 묻혀 있다. 현주 입장에서 이 아파트는 첫사랑을 추억하는 장소라는 성격도 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이장호의 데뷔작 〈별들의 고향〉(1974)에서 화가 문오(신성일)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영화 초반부 문오와 경아(안인숙)가 가까워지는 국면에서, 신축 아파트 외부를 슬쩍 패닝한 카메라는 문오의 아파트 내부를 연속적인 짧은 커트로 묘사한다. 직업(화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 공간에서 경아는 변기가 그려진 캔버스를 가랑이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은 채 거꾸로 쳐다본다. 건축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 외경만큼 싱그런 감각의 몽타주로 묘사된 두 사람은 약간의 탐색을 거쳐 이곳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8길 3
사용 승인: 1974년 7월 8일
세대수: 144세대(총1개동)

이촌점보아파트



2018년 7월 8일 촬영.



1. 결말을 예비하는 이 장면에서 허민이 사는 점보아파트를 바라보는 이화의 표정이 밝지 않다.



2. 베란다에서 이화를 배웅하고 난 후. 멀리 보이는 푸른 띠의 반도아파트(1977), 그 앞은 점보아파트와 이웃한 저층 아파트 왕궁맨션(1974). 촬영 당시에는 모두 신축 아파트였다.



3. 빌로드 소파와 쉬폰 커튼, 어항, 전집이 꽂혀 있는 유리 책장 등 70년대 인테리어로 장식된 아파트 내부. 극 중 허민은 대형 평수 아파트에 혼자 사는 세련된 이혼남으로 설정되어 있다.



4. 고뇌하는 문호의 흡연 장면과 몽타주된 굴뚝 쇼트. 당시 아파트 대단지에 빠짐없이 설비된 이 굴뚝은 중앙 난방을 위한 필수 시설로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배출하는 구실을 했다. 에너지 공급 체계가 바뀌면서 용도가 없어졌지만 철거되지 못하고 화석처럼 남아 있는 것들도 일부 있다.



5. 라스트 신에 70년대 중반 용산구 이촌동 강변을 따라 건축된 일군의 아파트 단지가 포착됐다. 오른쪽부터 반도아파트(1977), 렉스아파트(1974), 왕궁맨션(1974), 한강맨션(1971). 래미안첼리투스(2015)로 재건축 준공된 렉스아파트를 빼곤 모두 현존한다. 동작대교가 착공(1978)되기 전, 멀리 한강대교가 막힘없이 보인다.

삼익건설이 1974년 완공한 아파트. 왕궁맨션(1974), 현대맨션(1974), 렉스아파트(1974), 반도아파트(1977)와 함께 1970년대 중반 무렵 이 지구에 건축되었다. 58~70평형 144세대로 이뤄진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단지다.

〈겨울여자〉(1977)의 표피를 지배하는 '도시성'에 기여하는 장소 중 하나가 극 중 허민(신성일)의 거주지로 설정된 이촌동 점보아파트다. 두 번째 남자 석기(김추련)의 죽음에 이은 비통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지점에 등장하는 이곳에서 이화(장미희)와 민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18층 고층아파트를 밑에서 바라본 휘어지는 시야각의 화면, 베란다 너머 근래 건축된 아파트 단지들, 자전거 하이킹 신에서 중산층 주거지로 변모한 동부이촌동 일대를 소묘하는 시퀀스는 70년대 들어 개벽하듯 변모하던 주거지의 경관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은유하는 공간적 배경이 된다. 남자를 거듭 만나면서 겪은 상실감을 통해 각성한 이화는 허민에게 다가가지만 청혼을 승낙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이 아파트는 혼란스러운 현대의 성 모럴이 이화에 의해 현시되는 장소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사용 승인: 1979년 8월 30일
세대수: 4,424세대(총28개동)

은마아파트



2022년 9월 24일 촬영





모래(2011)
감독: 강유가람, 출연: 강성칠, 유정옥.
"2010년 촬영을 시작한 다큐멘터리 〈모래〉는 우리 가족이 사업 실패로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던 은마아파트를 9억에 팔고 떠나는 2011년의 모습까지를 담고 있다. 어느새 12년 전 일이 됐다. 당시 은마아파트는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들썩였다. 부모님 마음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휘청거렸고, 나 역시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하지만 7억 담보와 은행 이자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우리 가족은 결국 은마를 떠났고 나는 그 순간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 녹물이 나오고 개미가 들끓었던 30년 된 아파트를 은행 빚에 시달리면서도 붙들 수밖에 없었던 한 가족의 초상은 중산층 핵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인 'My Father's House'는 잘못 지어진 이름이다. 은마는 성별 역할 분담에 충실하게 사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입지를 탐색하고 부동산을 사는 데 공을 들였던 '어머니'의 집이기도 했다. 한 가족이 중산층으로 남고자 했던 순간에 가장 큰 버팀목이 되었던 강남 아파트 한 채. 3억 빚을 지고 우리 집을 샀던 그 사람은 아직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까? 2023년 현재 은마아파트는 아직 재개발되지 않았으며, 호가는 22억을 넘는다. 공동체 상영이 잡히면 관객과의 대화를 하러 가기 전에 꼭 시세를 검색해보곤 한다. 사람들이 놀라는 만큼 나 역시 종종 놀라거나 후회를 했다. 그때 집을 팔자고 부모님을 설득하지 말고 버티자 했어야 했나, 하는 부질없는 상상을 하며. 한국사회에서 은마아파트만큼 사교육과 부동산 투자의 부조리함, 그리고 열망이 촘촘히 얽혀 있는 공간이 있을까." – 강유가람(감독)





벌새(2019)
감독: 김보라, 출연: 박지후, 김새벽.
〈벌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94년 무렵 은마아파트는 한국사회 안에서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강남의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에 지어진 강남 시대의 신호탄이자, '8학군'으로 불리는 과잉된 사교육 열풍의 진원지이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재개발을 통한 제2의 부흥을 꿈꾸는 퇴락한 공간이다. 주인공 은희(박지후)의 집으로 설정되어 있는 은마아파트는 자본주의의 욕망이 투사된 고가의 아파트라는 대외적인 이미지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 부풀려진 욕망과 그 안에 웅크린 폭력, 관계의 단절을 다루기 위해 아파트 내부는 공간의 분리를 강조하는 구조로 시각화된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의 초상을 대변한다. 일상의 사소한 균열이 거대한 붕괴(성수대교 붕괴)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은희의 아파트는 그 균열이 자라나는 장소다. 전교 1등을 하는 오빠와 문제아 언니, 폭력적인 가부장의 틈바구니에서 가족의 유대에 대한 소망은 갈 길을 잃는다. 1990년대 중반의 은마아파트는 〈벌새〉의 참된 테마, 재생을 위해 파괴되기 전의 세계를 묘사하는 데 적절한 장소성을 제공한다.

세무 공무원 출신 기업가 김태수의 한보건설이 1979년 준공한 대단위 아파트. 강남8학군,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요지라는 입지에 힘입어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한국 중산층의 최선호 아파트로 유명하다. 십수 년 전부터 재건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사용 승인: 1982년 5월 25일
세대수: 1,924세대(총27개동)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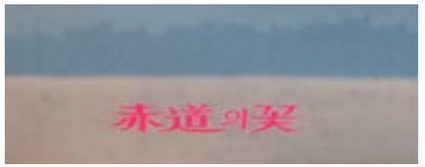


2019년 9월 29일 촬영.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군 중 8차 이후에 지어진 단지로 신현대아파트라고 부른다. '차' 단위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9, 11, 12차가 된다. 동호대교 인도에서 바라보면 왼쪽 단지군이 1976년 최초 입주한 1, 2차를 비롯해 4~8차이고 오른쪽 단지군이 신현대 단지다. 신현대를 포함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재산 가치로 환원되는 한국 아파트 신화의 정점에 자리한 상징적인 주택 단지다.

앞 동에 이사온 여자를 염탐하는 남자의 이야기 〈적도의 꽃〉(1983)은 그들이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개연성을 갖는 서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파트 영화라고 할 만하다. "지난봄 다섯 번째로 근무하던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다시는 취직하기 않기로" 결심한 미스터 M(안성기)이 하는 일이란 망원렌즈 카메라로 이웃 주민들의 일상사를 관찰하는 짓 따위다. 어느 날 매혹적인 여자 선영(장미희)이 이사 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난 후 M은 병적으로 그녀의 수상한 사생활을 감시하고("저녁 8시에 웬 사내가 찾아왔다. 밤 10시에 사내는 돌아갔다. 여인은 머리를 빗었다. 밤 12시에 그녀의 방에서 불이 꺼졌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물 공세와 연락에 매달린다.

〈적도의 꽃〉에서 선영의 아파트는 성적 일탈이 벌어지는 애욕의 공간인 반면 M의 아파트는 그것을 목격하고 분노하지만 끝내 선영에게 집착하게 되는 자폐적인 장소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두 공간의 성격을 대비시켜 시각화하는데 가령 중산층 인테리어와 장식품이 들어찬 선영의 집과 달리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그림이 거실 벽에 걸린 M의 아파트는 사람 사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황량해 보인다. 영화는 마치 성채처럼 보이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 외벽을 망원렌즈로 담은, 타는 듯한 화면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1. 대단지 아파트가 신기루처럼 보이는 오프닝 신. 지순한 사랑을 꿈꾸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들의 공간이다. 오프닝 시퀀스는 역순으로 엔딩 신에서 반복된다.


2. 113동과 114동을 스치면서 115동 옆 미스터 M(안성기)의 아파트 내부로 진입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멈출 무렵 은둔하는 남자의 정체가 스스로의 내레이션으로 드러난다.


3. 맞은편 아파트로 이사 온 선영(장미희)을 훔쳐보는 M은 나아가 여자의 사생활에 개입하면서 비극으로 끝날 서사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4. 육중한 매스의 아파트가 인물을 포위해 압박하는 듯하다. 영화에서 아파트는 인간성을 마모하는 현대 매커니즘의 일부처럼 묘사된다.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31길 56
사용 승인: 1989년 3월 30일
세대수: 1,316세대(총10개동)

문정시영아파트



2019년 4월 30일 촬영



1. 개 짖는 소리에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고윤주를 잡은 로우 쇼트. 'ㄱ'자형 아파트 동 구조가 개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4동과 8동이 이 구조로 되어 있고, 윤주는 4동 거주자로 설정되어 있다.



2. 영화의 시그니처가 된 추격 신은 판상형으로 설계된 이 아파트의 복도에서 촬영됐다. 바둑판을 방불케 하는 아파트의 입면을 따라 두 인물이 간격을 두고 질주하는 장면은 숨 막히는 연속성의 향연을 보여준다.



3. 영화에서 옥상은 사건이 벌어지고, 악행이 발각되는 중요한 공간이다. 여기서 현남은 망원경으로 경치를 신기하게 바라보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4. 고윤주의 아내 배은실(김호정)을 포착한 편의점 인서트. 한국 로손이 간판을 내리기 직전, 문정동 지점에서 촬영된 장면이다.



5. 영화 말미에 현남은 윤주를 도와 개 찾는 전단을 아파트 담장에 부착한다. 도로에 면한 문정시영아파트 4, 6, 8동의 외벽을 이루는, 물결 모양 창살과 조적조 담장은 영화 촬영 이후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1989년 입주한 서울시 시영 아파트. 1988년 서울올림픽 직후 개최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의 선수촌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8~10동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지그재그 모양의 경사형 비상 계단을 시공한 특별한 단지였다.

봉준호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2000)의 배경이 된

봉준호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2000)의 배경이 된 아파트. 방이동 대림아파트, 성남 신흥주공아파트에서도 일부 찍었지만 영화의 주 무대인 이곳에서 아파트 추격 신 등 중요한 장면 대부분을 촬영했다. 아파트의 안과 바깥, 공원 등 인근 장소들이 고루 등장하며 각기 존재 이유를 가진다. 봉준호 감독이 신혼 초 실제 거주했던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관리사무소, 지하실, 옥상, 분리수거장 등 구석구석 숨겨진 장소들이 의미심장한 맥락을 가지고 등장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대학 강사 고윤주(이성재)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 서민 아파트는 가장 평범한 일상과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구현한 공간이다. 개 짖는 소리에 병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고윤주, 윤주의 범행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를 쫓는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 박현남(배두나), 죽은 개를 영양식으로 처리하는 경비(변희봉) 등 영화의 주요 인물들은 개의 실종에 얽힌 사건의 당사자로 이 아파트 단지 곳곳을 교차하며 배회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부한 장소에서 서늘하고 스산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봉준호식 설정이 시작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159
사용 승인: 1969년 4월 21일

금화시민아파트



2014년 2월 11일 촬영한 금화시민아파트 2동 건물.
사진: 박선양.



준공 직후 1969년 8월 촬영된 금화시민아파트.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금화산 중턱에 위치하여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금화시민아파트는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 1969년 서민주택 대량건설정책에 의해 지어진 주택단지다. 당시 서울시장이 "청와대에서 잘 보이는 자리에 지어야 한다"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부실 시공 문제로 철거되기 시작해 2000년대에 들어서는 소수 동만 남아 있다가 2015년 완전 철거됐다.



1. 막 이사 온 용현이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장면. 아파트의 퇴락한 외관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



2. 옆 동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영(장진영)을 지켜보는 용현. 산 중턱에 얼기설기 지어진 아파트여서 동 사이 공간이 오히려 이곳의 폐쇄성을 가중시킨다. 한국 아파트 건축사 초기에 준공된 까닭에 독특해 보이는 구조가 많다.



3. 〈소름〉은 복도식으로 지어진 5동 건물에서 촬영되었고, 5동은 촬영 직후 재개발 문제로 철거됐다. 복도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는 1968년 지어진 1차분을 철거한 자리에 재건축된 천연뜨란채아파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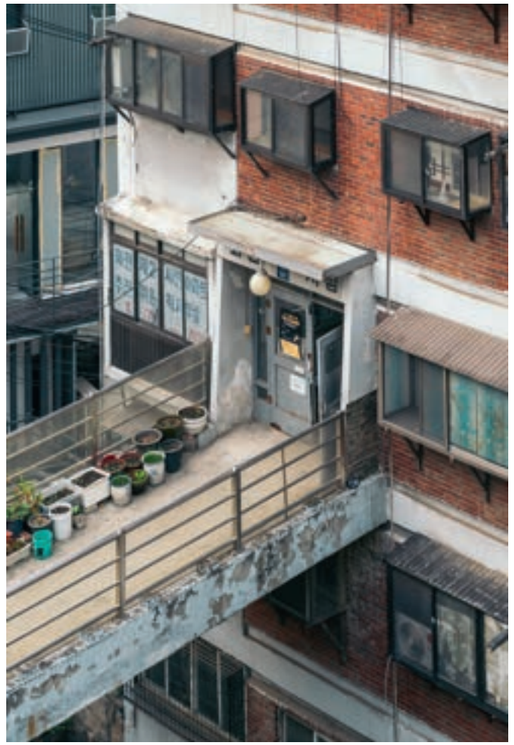
한국인의 약 45%가 아파트에 거주한다. 근대화의 산물이자 중산층 풍요의 표식인 이 한국의 대표적 주거 공간은 아파트 괴담 〈소름〉에서 공포 요소의 원천으로 도입되었다. 어두운 복도와 벗겨진 페인트, 철골을 드러낸 건물의 표면, 눅눅한 계단 따위를 공포의 기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낡은 아파트 단지가 괴물과 살인자, 외계인, 유령을 대신하는 이 영화는 벼랑 끝에 몰린 인물들의 운명을 느린 템포의 미스터리로 묘사한다. 1969년 준공되어 촬영 당시엔 흉물로 변한 서울시 서대문구 금화시민아파트의 진가가 드러난 것도 영화가 설계한 공포의 기원 때문이다.

〈소름〉은 택시 기사 용현(김명민)이 철거 직전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이 공간의 음울한 내력을 탐문하는 이야기다. 영화는 이곳의 주민들과 가까운 공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용돌이치는 운명에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영화를 연출한 윤종찬 감독은 1995년 502명의 사망자,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를 용도 폐기된 아파트의 스산한 기운으로 재현했다. 서울의 부유한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아파트가 괴담의 진원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곱씹게 한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8길 101
사용 승인: 1970년 5월 28일
세대수: 464세대(총2개동)

회현시민아파트







2019년 11월 12일 촬영.

2003년에 철거된 건 1968년에 지은 회현 제1시민아파트였고, 현재 안전 문제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건 1970년에 지은 2차 아파트다. 남산시민아파트 혹은 회현시범아파트로 불리기도 하는 회현시민아파트는 〈무한도전〉 같은 예능 프로그램부터 〈스위트홈〉 같은 넷플릭스 드라마, 빅뱅의 '거짓말' 뮤직비디오와 '서든어택' 같은 게임까지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건축물이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세트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고색창연한 폐허의 공간이다. 독특한 'ㄷ'자 구조와 그 가운데 있는 중앙 정원, 어두컴컴한 복도와 퇴락한 내부, 그리고 구름다리. 마치 스릴러 영화를 위해 만든 구조물 같은 이곳은 2000년 이후 르네상스를 맞이하며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했던 한국영화가 애용하는 장소가 됐다.

〈친절한 금자씨〉(2005)를 통해 영화적으로 각광 받기 시작한 회현시민아파트는 〈주먹이 운다〉(2005)에도 등장한다. 바닥 인생을 사는 상환(류승완)이 할머니 (나문희)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파트다. 〈추격자〉(2008) 역시 이곳과 잘 어울리는 영화다. 김해곤 감독의 〈숙명〉(2008)은 아마 회현시민아파트를 가장 잘 활용한 영화일 듯하다. 도완(김인권)의 집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장소까지 꼼꼼하게 담았고 우민(송승헌)과 도완이 옥상에서 바라보는 뷰 역시 인상적이었다. 독립영화로는 김광복 감독의 〈사월의 끝〉(2017)이 있다. 영화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서 촬영했는데, 복도의 을씨년스러움을 한껏 살린 연출이 돋보인다. (김형석)

1960년대 후반 판자촌을 재개발하여 건축한 남산 인근의 회현시민아파트는 준공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존하는, 서울 유일의 시민 아파트다. 당시로서는 고층이었던 10층 높이의 아파트로 준공 초기엔 현대적인 만듦새로 각광을 받았다. 6층에 설치된 구름다리가 건물들을 연결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회현시민아파트의 기하학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첫 번째 사례가 〈친절한 금자씨〉(2005)다. 회현시민아파트는 극 중 금자(이영애)의 집으로 설정되었는데, 금자가 집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현기증〉(1958)을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계단 쇼트의 몽타주가 등장한다.

회현시민아파트의 안과 바깥을 활용하여 아래로 향하는 계단, 삼각형 모양의 계단과 난간의 형상을 극단적인 부감 쇼트로 촬영했다. 금자의 뒤를 밟는 전도사(김병옥)가 갑자기 튀어나와 금자를 놀라게 하는 곳도 아파트 내부 계단이다. 박찬욱 영화의 시각적 시그니처 중 하나인 계단의 쓰임새로 인해 선택된 장소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
사용 승인: 1972년 6월
세대수: 108세대(총1개동)

서소문아파트



도로와 면하는 1층에 상가를 두고 그 위로 주택을 올린 주상복합아파트로 1972년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는 작명 유행에 따라 서소문상가아파트라고 했다. 이 아파트의 시그니처는 완만한 유선형의 이루는 형태로 하천을 복개하고 건물을 올린 결과다. 고층 빌딩 속 소담하게 자리한 휘어진 아파트가 자아내는 독특한 경관 덕분에 시민 사진가들의 출사지로도 인기를 끌었다.



2017년 4월 23일 촬영.







서소문아파트는 〈멋진 하루〉의 말미, 고조된 긴장이 이완되는 시점에서 병운(하정우)과 희수(전도연), 은정(장소연)이 만나는 장소이고, 은정이 사는 곳이다. 도시의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어(낮에 비가 왔다) 로맨틱한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서 셋은 은정이 희수에게 건내는 돈을 두고 '따뜻한' 신경전을 벌인다.

서소문아파트에 거주하는 은정은 근근이 사는 형편이지만 단단한 내면의 소유자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도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다. 1970년생 아파트 단지의 풍모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1970년 준공된 서대문구 미근동의 서소문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다. 서소문아파트의 독특한 분위기는 단지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서울의 중심지 한가운데 버티고 선 아파트는 쉽게 철거할 수도 새것으로 바꿀 수도 없다. 덕분에 빠르게 변하는 도심지 한가운데에서 홀로 다른 시간 축에 선 외딴섬이 되어버렸다.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이 아파트는 강변을 따라 곡선으로 지어진 독특한 외관 덕분에 한층 이색적인 공간으로 소비되곤 한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분명 살고 있음에도 그 안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신기한 구경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서울 곳곳을 누비는 영화 〈멋진 하루〉(2008)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윤기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운다. 건물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닮아간다. 아니 그 반대인 걸까. 〈멋진 하루〉의 카메라는 도심 속 섬이 되어버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어딘지 여유롭고 느긋하게 바라본다. 막 사는 것 같지만 어쩐지 자유롭고 미워할 수 없는 병운(하정우)처럼. 집 한 채에 목숨을 건 자본의 욕망은 오래된 아파트에게 세월의 축적을 통해 형성될, 집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카메라는 기어이 거기서 사람의 자리를 발견한다. (송경원)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5
사용 승인: 1967년 1월
세대수: 129세대(총1개동)

동대문아파트





2023년 7월 22일 촬영.

더 나은 집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은 유별나다. 집의 소유 여부, 수준과 격차가 각자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내 집을 향한 소망을 집착 또는 망상으로 만든다.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섬뜩한 무단거주자를 소재로 한 영화 〈숨바꼭질〉(2013)은 이 기이한 열망을 소재로 한다. 부유한 사람의 생활 방식을 탈취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을 다루면서 계급의 충돌에 대한 극명한 우화를 전달하는 이 이야기의 무대를 제공한 것은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의 동대문아파트. 촬영 당시 준공 50년을 넘긴 퇴물 아파트였던 동대문아파트는 일(日)자형 복도식 아파트로 건물 가운데를 비워둔 중정형 구조를 하고 있다. 방들이 도열해 있는 복도가 길게 뻗어 있고 그들 사이를 다리로 연결한 듯한 형상인데 중정을 통해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동대문아파트가 선택된 이유는 명확하다. 숨겨진 공간이 계속 드러나는 미로와 같은 구조 자체가 숨어 있다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들, 그 욕망, 망집의 형상화이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선사하는 허정 감독의 연출은 오래된 아파트와 주인공 성수(손현주)가 거주하는 고급스러운 신축 아파트를 대비하여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소재한 6층 아파트로 1967년 완공했다. 최초의 중정형 아파트이며 현대식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와 전경 덕분에 영화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방송 등에 자주 등장했다. 입주 초기에는 '연예인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주로 이주노동자, 노인층 등이 거주한다.

1. 〈숨바꼭질〉에서 성수가 처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바깥에서 본 아파트 외관. 주민들이 거주하는 본 건물이 낮은 상가 건물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안과 바깥이 차단된 형상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감금과 억류의 세계다.



3. 오토바이 헬멧을 쓴 괴한과 성수의 추격 신은 중정형 구조의 특성 안에서 구현된다. 일(日)자 모양의 수직 나선형 구조에, 빨래를 널 수 있도록 중정에 수평으로 설치된 빨랫줄이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구분선으로 작용한다.



2. 유년기 트라우마의 기원인 형 성철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성수는 길고 나란한 복도에서 일군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스친다. 이 버려진 아파트의 거주자들은 신원불명자, 탈북민, 이주노동자 같은 유령적 존재들이다.



4. 성수와 검은 오토바이 헬멧의 격투는 복잡하게 설계된 아파트 공간들에서 짧은 쇼트들의 연속 편집으로 연출된다. 복도와 브리지를 급격한 꺾임으로 연결한 중정의 협소한 이동 통로에서 스릴러 장르의 모드로 액션 시퀀스가 벌어진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 일원
사용 승인: 1980년 3월
세대수: 5,930세대(총145개동)

둔촌주공아파트



2016년 7월 30일 촬영.







고양이들의 아파트(2022)
감독: 정재은.

"〈집의 시간들〉은 암흑 속에서 동네 소리를 먼저 들려주며 시작한다. 그 소리만으로도 나는 다시 그 시절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다. 라야 감독과 함께 집집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와 집 안팎의 풍경을 기록하느라 바빴던 2016년 5월의 둔촌주공아파트로. 영상 속 산들산들 흔들리는 나뭇잎과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동네에 흐르던 느긋한 시간의 흐름도 함께 담겨 있다. 먼 훗날, 나이가 많이 들어 그곳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오더라도 〈집의 시간들〉을 보면 언제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된다.

〈고양이들의 아파트〉는 〈집의 시간들〉에 담긴 온기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던 수년의 시간을 기록한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무가 베이며 동네가 망가지는 동안 남아 있던 고양이를 구하겠다고 분주한 영화 속 등장인물은, 그러니까 나는, 당시는 물론이고 아파트가 사라진 후에도 어떻게 버티며 지냈는지 몰랐던 시절을 보내고 있다. 수년 후, 완성된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보면서, 그제서야 나는 고요히 사그러지던 죽음을 직시할 수 있었다. 비로소 둔촌주공아파트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 이인규(『안녕, 둔촌주공아파트』, 『둔촌주공아파트, 대단지의 생애』 저자)





집의 시간들(2018)
감독: 라야.

강동구 둔촌동에 세워진 초대형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 재건축을 둘러싼 이런저런 낙수와 이곳에서의 시간을 기리고 반추하려는 토박이 주민들의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단지다. 2019년 철거되었고 2025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란 이름으로 재건축 준공될 예정에 있다.

'사라짐'으로써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구조물이 있다. 2019년에 철거된 후 재건축을 거쳐 2025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가 그렇다. 198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145개동에 5,930세대가 살았던, 단지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었던 곳. 한때는 아시아 최대의 아파트 단지였던 그곳이 헐린다는 건, 단지에 서식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커다란 사건이었다. 라야 감독의 다큐멘터리 〈집의 시간들〉(2018)은 둔촌주공아파트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인물이 화면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으로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단지의 '곧 사라질 풍경들'과 어우러지는 이 영화는 간단한 형식이지만 울림이 있다. 사람들은 집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말하고, 여기엔 그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유기체 같은 존재로서의 집. 이 다큐는 '재건축'이라는 거대 사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들의 아파트〉(2020)는 인간이 아닌 고양이의 관점으로 본 대단지 아파트 철거 이야기다. 사람들의 거처가 사라진다는 건 그들과 공생했던 동물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다큐는 단지에 살았던 고양이들의 '삶'을 염려하며 그들의 거처와 이주를 담아낸다. 단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의 생태적 의미를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이다. 특히 모든 것이 철거된 단지를 부감으로 잡아낸 풍경은 고대 유물 발굴지처럼 파헤쳐진, 개발 이전의 맨땅을 드러내는 인상적인 이미지다. (김형석)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567
사용 승인: 1978년 4월 15일
세대수: 3,930세대(총30개동)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2018년 1월 26일 촬영.

〈복수는 나의 것〉(2002)에서 아나키스트 영미(배두나)의 집은 서민 아파트다. 마천루가 즐비한 강남의 외곽에 위치한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롯데월드와 월드타워 등 잠실의 시그니처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멀리 한강이 보이는 초반부 전경 쇼트로 이 아파트는 처음 등장한다. 이후 영미의 아파트 안팎의 외경이 모두 등장하는데 공간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은 영미가 오 사장(송강호)의 전기충격 고문으로 살해된 이후다. 여기서 잠실주공아파트는 보통 시민들의 거주지에서 복수의 순환을 암시하는 서스펜스의 공간으로 바뀐다. 5단지 앞 주차장,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미장센의 조형성을 극대화하는 장소가 된다.

장기밀매 사기 일당을 도륙하고 영미의 아파트로 진입한 류(신하균)는 주차장에 늘어선 경찰차와 앰뷸런스의 숲을 지나간다. 영미의 방이 있는 8층에 내린 류는 시신 운반을 구경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집 배달원(류승완)의 죽음을 본다. 경찰의 추리를 피하기 위해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류가 영미의 시신을 운반하는 경찰들과 합류하는 신에서 서스펜스가 폭발한다. 얼굴을 덮은 흰색 천이 흘러내리고 영미의 시신이 나타나자 류의 구멍 난 배에서는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류는 영미의 손을 잡는다. 회전하는 복수의 다짐은 엘리베이터를 팽팽한 긴장으로 부풀린다.

1977년 입주 당시 주공 아파트로는 최고층 대단위 아파트였다. 지하철 2호선을 끼고 있으며 롯데타워, 석촌호수 인근에 있다. 5단지 외에 1단지부터 4단지는 모두 재건축되었고, 5단지도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복수는 나의 것〉의 배경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514동에서 생긴 일.



1. 차영미가 사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514동으로 진입하는 류.



2. 8층에 도착한 류는 중국집 배달원의 시신이 운반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다.



3. 의심을 피하기 위해 10층으로 뛰어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탄다.



4.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류와 경찰, 흰 천이 드리워진 들것.



5. 천이 흘러내려 영미의 죽은 얼굴을 보는 류.



6. 류는 영미의 손을 잡고 복수를 다짐한다.

이 대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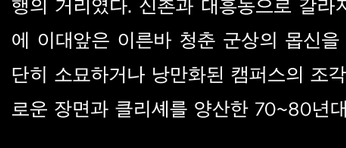
전통의 사학 명문 이화여자대학교 앞은 등하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거리이면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카페와 주점, 개성 있지만 값은 저렴한 옷을 파는 가게, 미용실, 액세서리 가게가 빽빽이 들어찬 젊음과 유행의 거리였다. 신촌과 대흥동으로 갈라지는 이화여대 사거리에서 정문 쪽으로 이어진 완만한 경사 덕분에 이대앞은 이른바 청춘 군상의 몸신을 찍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주인공 인물의 출신을 간단히 소묘하거나 낭만화된 캠퍼스의 조각들을 스케치할 때 촬영지로서 환영받았던 이대앞은 다수의 흥미로운 장면과 클리셰를 양산한 70~80년대 한국영화의 공간 중 하나로 기억할 만하다.



1. 1975년의 이대앞.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에서 영철(하재영)은 미팅에서 만났던 여학생을 자전거 뒤에 태우고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 맞은편 건물 위에서 찍어 이화여대 정문의 상징과도 같은 이화교(1958년 건축)의 모습을 뚜렷하게 포착했다.



2. 1977년의 이대앞. 하교하는 학생 무리를 망원렌즈로 잡은 전형적인 이대앞 신. 화면 가운데 저 멀리 푸른 투피스를 착용하고 친구들과 담소하며 걸어오는 학생이 〈겨울여자〉(김호선, 1977)의 주인공 이화(장미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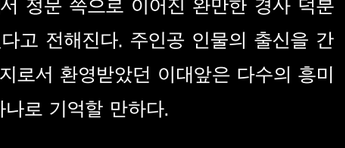
3. 〈겨울여자〉 이대앞 신에서 카메라에 잡힌 세 명의 학생. 모자를 착용한 여성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을 끼고 가는데, 당시 캠퍼스 풍속을 비꼰 설정 쇼트로 여겨진다. 해당 『타임』은 1976년 3월 15일자 '이동하는 미국인들' 특집호.



4. 1983년의 이대앞. 〈바보선언〉(이장호, 1983) 인트로 시퀀스에서 저속 촬영으로 담은 이대앞. 인파가 눈치채지 못하게 위장한 카메라를 노상에 뻗쳐 두고 한 프레임씩 찍어 사람들이 개미처럼 떼 지어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했다.



5. 〈바보선언〉에서 가짜 대학생 혜영(이보희)을 납치한 동철(김명곤)과 육덕(이희성)의 택시가 정문 앞으로 돌진한다. 일종의 즉흥 촬영이며, 택시를 보고 놀라는 학생들과 경비원 모두 영화와 무관한 일반인이다. 초상권 개념이 희박했던 시절의 장면이다.



6. 1987년의 이대앞. 화면 중앙에 〈기쁜 우리 젊은 날〉(배창호, 1987)의 혜린(황신혜)이 친구들과 걸어온다. 혜린을 짝사랑하는 영민(안성기)의 시점에서 본 장면으로 88올림픽을 앞둔 사람들의 옷차림과 분위기가 10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벽초지수목원 주목터널 — 아가씨(2016)





감독: 박찬욱
출연: 김민희, 김태리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조진웅)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귀족 아가씨(김민희). 그녀에게 백작이 추천한 새로운 하녀 숙희(김태리)가 찾아온다. 백작과 숙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가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상속녀 히데코의 막대한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기꾼 백작(하정우)과 소매치기 출신 소녀 숙희(김태리)가 히데코를 속이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논쟁할 때 배경이 된 장소다. 관상용으로 길러진 주목이 군집을 이룬 곳으로, 저택에 딸린 호화 정원이라는 설정을 감안하더라도 빽빽한 줄기 사이로 들어온 일광이 땅바닥에 촘촘하게 그림자를 만든 이국적 풍광은 집착에 가까운 저택 인테리어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촬영한 저택, 정원과 이곳은 조금의 이질감 없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다.

이곳은 또한 히데코와 시급히 결혼하기 위해 안달하는 백작과 히데코와 백작 사이에서 흔들리는 숙희의 대립이 시작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 플롯 관점에서도 중요한 공간이다. 이 장면은 후반부에 카메라 시점이 바뀐 채 다시 한번 보여지고, 여기선 히데코가 둘이 싸우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며 숙희가 그곳을 떠나자 백작은 숙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히데코와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 속고 속이는 게임에서 반전의 복선을 감춘 장소로 변모하는 순간이다.

이곳은 파주출판도시에서 동북쪽으로 20km 남짓 떨어져 있는 벽초지수목원 안에 있다. 주목이 터널 형상을 하고 있어 주목터널이라고 불린다. 수목원 정문으로 입장해 왼쪽으로 100m쯤 가면 보인다.







원릉역 — 파수꾼(2011)



파수꾼
(2011)

감독: 윤성현
출연: 이제훈, 박정민, 서준영

아들 기태(이제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겪고 나서 아버지(조성하)는 아들의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자 한다. 기태의 책상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그는 사진 속 기태와 나란히 있는 희준(박정민)과 동윤(서준영)을 찾아간다.





원릉역은 〈파수꾼〉의 유일한 휴식처다. 기태, 희준, 동윤 세 친구는 오래된 역에서 다시 오지 않을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선로 바로 뒤로 아파트 단지가 우뚝 솟아 있지만 어쩐지 이곳과는 동떨어진 세계처럼 보인다. 세 친구가 시시껄렁한 연애 이야기를 하며 기찻길을 걸어가는 이 장면은 여자 아이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월미도로 여행을 가는 시퀀스로 이어진다.



희준과 동윤 모두 곁을 떠나고 혼자가 된 기태. 애착이 깃든 야구공을 만지작거리며 어떤 결심을 하는 듯 보인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쓸쓸한 역사의 풍경이 기태의 심정과 맞물린다.

〈파수꾼〉은 10대 소년들의 예민한 상처가 곪아 들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잔인하도록 지켜본다. 아들 기태(이제훈)의 자살 후 아버지(조성하)는 아들의 친구 희준(박정민)과 동윤(서준영)에게 찾아간다. 이후 알게 된 진실은 화해할 방법을 몰랐던 이 소년들이 끝내 한 몸과 같던 서로에게 상처 입혔다는 것. 시종일관 불안함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한 휴식처는 세 친구가 함께 시간을 나누던 철길이다. 서울 외곽 더 이상 기차가 찾지 않는 원릉역은 마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처럼 보인다. 기찻길 뒤편의 아파트와 학교는 마치 이들에게 무관심한 세계와도 같다. 서로의 진심을 내보일 수 있는 철길에서 기태, 희준, 동윤은 함께 걷고 대화하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야구도 한다.

셋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길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줄어든다. 기찻길을 가득 메웠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처음엔 희준이, 다음엔 동윤이 기찻길을 떠난다. 한때 하나의 레일 위를 걸었던 세 소년의 걸음은 기차 선로처럼 갈라진다. 길이 갈라지는 건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기태는 어떤 무게를 감당해야 했을까. 원릉역으로 이어지는 철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다양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아직 채 영글지 못하고 져버렸던 그들의 잔인했던 초여름이 무색하게 기차역 구석진 땅에는 소담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송경원)





원릉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철도역이다. 승객 수 감소로 2004년 여객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군용 화물 열차가 가끔 통과해 완전 폐역은 아니다. 깨진 술병, 담배꽁초 등 선로 곳곳에 방치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흔적이 영화 속 세 친구의 열굴을 호출한다.

일산 막동의 집 — 초록 물고기(1997)



초록
물고기
(1997)

감독: 이창동
출연: 한석규, 심혜진, 문성근

막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행 기차에 오른 막동(한석규)은 우연히 기차 안에서 미애(심혜진)를 만나고 그녀의 장미빛 스카프를 줍는다. 고향에 돌아와 먹고살 궁리를 하던 막동에게 미애의 정부이자 조직 폭력배 보스 배태곤(문성근)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언젠가는 작은 식당을 차려 뿔뿔이 흩어진 온 가족이 다시 함께 살기를 바라며, 막동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초록물고기〉는 갱스터 스토리이자 멜로드라마이고 장소에 관한 탐구이기도 하다. 주인공 막동(한석규)이 나고 자란 집, 유년기의 기억으로부터 변질된 동네의 풍경이 캐릭터의 진화 경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방향타를 상실한 상태의 청년 막동이 범죄 세계에 빠져들고 가혹한 운명의 희생자가 되는 서사의 주요 무대를 제공하는 공간이 막동의 집이다. 그의 평범한 시골집은 고층 빌딩으로 뒤덮여 가는 고향 마을 일산의 변화와 손쉽게 대조된다. 중산층의 각광을 받던 1기 신도시 일산의 풍경은 IMF 외환위기 직전 경제적 풍요의 착각에 들떠 있던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도에 그린다. 막동은 냇가에 초록물고기가 헤엄치던 시골 마을로 돌아왔지만 그의 기억은 유효하지 않다. 주거와 생활의 요구를 서울과 나눠야 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경기도 위성도시들을 배드타운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던 초입의 일산은 공동체의 기억을 말살하는 폭력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장소다.

영화의 마지막은 화사한 중산층 가족들의 외식 장소가 된 식당의 풍경이다. 막동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 식당에 그의 죽음을 사주한 태곤(문성근)의 가족이 밥을 먹으러 온다. 멀리 휘황한 아파트 숲이 보인다. 죽음, 신체적 기형, 상실감, 정서적 상실감 등이 복잡하게 얽힌 이 장면은 아카시아가 자랐던 자리에 삭막한 고층 빌딩이 들어선 세상에 갇힌 현대 한국의 초상을 압축한다.



다 쓰러져 가는 막동의 집.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고향집에 모인다. 배경에 살짝 잡힌 백석교회는 아직까지 같은 자리에 있다. 집이 있던 곳은 카센터, 박스 회사, 인쇄 회사들이 들어서 공단 거리가 됐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큰나무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된 막동의 집. 평상 뒤 버드나무는 이곳이 막동의 집임을 알려주는 시각적 표식이다. 그 뒤로 신도시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막동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옛 고향집 사진. 일산 신도시 개발 전 풍경을 담은 이 사진은 미애가 갖게 된다. "여긴 어디야?"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나 줄래요? 갖고 싶어." "예 가지세요."





2023년 여름, 막동의 집이 있었던 백석교회 주변. 오른쪽 지붕 위, 건물 틈을 비집고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것이 막동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인지는 확실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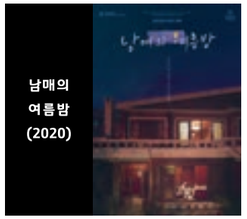
대곡역 인근의 철도 건널목. 막 제대한 막둥은 신도시 개발 여파로 새로 생긴 대곡역에서 머뭇거리다 집을 향해 철도 건널목 방향으로 간다. 교외선은 운행을 멈춘 상태이지만, 건널목과 (위치가 바뀐) 경고판의 '멈추자 살피자 건너자' 문구는 아직 그대로다.



인천 미추홀구 2층 양옥집 — 남매의 여름밤(2020)

‘서양식으로 지은 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한옥을 제외한 모든 집을 다 양옥집이라 불러도 된다. 하지만 한국인이 감각하는 양옥집은 반드시 2층이어야 하고, 마당이 있어야 한다. 1970~1990년대에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구옥이 되어버린 집, 효율적으로 공간을 쪼개놓은 다가구 주택과 빌라 틈새에 덩그러니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아직도 헐리지 않은 집이어야 비로소 양옥집이라고 불릴 자격을 얻는다.

〈남매의 여름밤〉에서 남매가 잠시 머물게 되는 할아버지의 집이 바로 그 양옥집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이 양옥집에는 실제로 자녀들을 출가시킨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를 보면 윤단비 감독이 왜 노부부를 설득하면서까지 여기서 영화를 찍어야 했는지 알 수 있다.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아빠(양홍주), 고모(박현영)와 함께 옥주(최정운)와 동주(박승준) 남매가 이 집에 머무는 여름 한 계절은 시간 여행과도 같다. 누구나 한 번쯤 살아봤거나 살아보고 싶었던, 하지만 이제는 보기도 어렵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양옥집은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의 통로가 된다. 다만 가장 오랫동안 이곳에 살며 집과 함께 늙어간 할아버지(김상동)의 존재가 시간의 흐름과 양옥집의 운명을 상기시킬 뿐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자명한 진실은 양옥집이 처한 현실과 닮았다. 사람이 살아야 집이 그 몫을 다한다면, 새로운 세대의 추억에조차 남아 있지 않은 양옥집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남매의 여름밤〉이 애틋하다가 마침내 슬퍼지고 마는 것은, 또 하나의 주인공인 이 양옥집의 운명 때문인지도 모른다. (윤이나)



감독: 윤단비
출연: 최정운, 양홍주

방학 동안 아빠(양홍주)와 함께 할아버지(김상동) 집에서 지내게 된 십대 소녀 옥주(최정운)와 어린 동생 동주(박승준).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 남매의 여름이 시작된다. 거기다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박현영)까지 가세하면서 옥주의 가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아버지의 다마스에 실려 할아버지가 사는 오래된 2층 양옥집 앞에 내려진 옥주와 동주. 남매는 시간의 켜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곳에서 여름 한 계절을 보내게 된다. 옥주는 이곳 계단참에 앉아 할아버지가 홀로 감상하던 ‘미련’을 듣고 가족 구성원들은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며, 빨래를 널며, 집밖을 응시하며 대화를 나눈다. 영화에서 2층 양옥은 배경 이상의 구실을 하면서 남매와 가족의 소담한 일상을 품는다.



1976년 12월 21일 사용승인된 인천 미추홀구 2층 양옥집 전경. 1970년대 전국적으로 유행한, 콘크리트 난간과 발코니, 벽돌 마감, 박공지붕을 가진 이른바 ‘불란서주택’의 전형을 보여주는 주택이다. 2023년 현재도 노부부가 거주 중이다.

새만금 간척지와 진서면 갯벌 – 변신(2018)



변신
(2018)

감독: 이준익
출연: 박정민, 김고은

무명 레퍼 학수(박정민)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잊고 싶었던 고향 변신으로 향한다. 향에 강제로 소환된 학수는 징글징글하게 들러붙는 옛 친구들로 인해 지우고 싶었던 흑역사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2023년 다시 찾은 변산면 변신로 둥그러미펜션 맞은편 둔덕은 짐풀이 우거져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영화가 묘사한 장소의 정취를 느끼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이었다.

〈변신〉은 고향을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고향을 버리지 못한 청년 학수(박정민)가 다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과정을 담는다. 영화는 레퍼의 꿈을 꾸던 주인공 학수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고향 변신으로 향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변신의 풍광을 담고 있는 영화 〈변신〉에서 감독은 고향을 단순한 그리움의 대상이나 추억의 장소로 포장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고향을 기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향으로 상징되는 공간이 사람들을 품는 방식에 대한 영화다. 그런 의미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변신〉의 또 다른 주인공은 변신반도 일대다.

사실 학수는 변신이라는 지역이 의인화한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하고 싶지만 변하지 않은 현실에 절망한 학수는 도시로(굳이 말하지면 변신이 아니라면 어디라도 좋았을 곳으로) 탈출해보지만 소용없다. 결국 거스를 수 없는 중력처럼 되돌아온 변신에서 그는 많이 변해버린 친구들을 만나고 깨닫는다. 지기가 괴롭혔던 친구 용대(고준)는 건달이 됐고, 지기를 종이했던 선미(김고은)는 작가가 됐다. 세기 테어니기 위해 일을 깨야 하는 것처럼 학수는 진서면 갯벌에서 용대와 주먹다짐을 하고 깨진 끝에 변화를 받아들인다. 몸으로 깨닫는 치열한 변화가 있는 반면 변하지 않아서 소중한 것도 있다. 선미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던 학수는 버딕을 픽은 뒤 선미와 함께 해변 둔덕에서 변신반도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변하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지각한다. 그렇게 "내 고향은 기닌해서 보여줄 것은 노을밖에 없네"라며 투덜거리던 철부지 레퍼는 비로소 노을을 온전히 미주 볼 지격을 얻는다. (송경원)



부안군 진서면 간척지 갯벌. 트리우미 관계인 학수(박정민)와 용대(고준)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존심을 건 인핀 승부를 벌인다. 영화는 치고 박고 뒤엉킨 끝에 고거의 앙금을 털어버리고, 화해하게 되는 감상적인 무대로서 갯벌이라는 공간을 강조한다.



"내 고향은 폐항, 내 고향은 기닌해서 보여줄 것은 노을밖에 없네." 엔딩 시퀀스에서 학수는 선미(김고은)와 노을을 미주하며 지신이 어릴 때 쓴 이 시구의 내력을 들려준다.



부안 지방도로변 평범한 동네 먹다른 곳에 펼쳐진 사람 한 명 없는 고즈넉한 갯벌이 영화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다.



모항해수욕장 — 다른 나라에서(2012)





감독: 홍상수
출연: 이지벨 위페르, 유준상, 정유미, 권해효

모항이란 해변 마을로 어머니(윤여정)와 함께 빚에 쫓겨 내려온 영희과 막냉(정유미)이 불안에서 시나리오를 쓴다. 안느라는 이름의 세 여인(이지벨 위페르)이 등장하고, 그들은 차례로 모항으로 내려온다.

〈다른 나라에서〉의 젊은 여성 주인공 원주(정유미)와 그녀의 어머니 박숙(윤여정)은 서해안 비닷가 마을 모항에 모여 그들이 떠안고 있는 빚에 대해 근심한다. 영화는 어머니와 딸이 비닷가에서 보내는 림보 같은 시간을 다루는데, 플롯에는 공통의 구심점이 있다. 반복되는 해변의 장소들과 술, 음식, 우연한 만남, 노래, 시시덕거림 속에서 표류하는 인물의 행로다. 영화의 무대가 되는 '모항'은 말의 의미 그대로 '어머니의 항구'(母港)로 해석될 수 있다. 모항의 갯벌 앞엔 목가적인 펜션이 있고, 해변에는 노래를 부르는 안전요원(유준상)이 있다. 세 차례에 걸쳐 이곳을 방문하는 여인 안느(이지벨 위페르)는 펜션에 숙소를 정하고 해변으로 나가 안전요원을 만난다. 한 명의 배우가 연기하는 세 명의 '안느'로 구성된 플롯은 '모항'의 의미를 반추케 한다. 이 대목에서 모항은 '배들의 근거지가 되는 항구'라는 맥락을 갖는다. 환언하면 각지의 길을 따라 항해하는 배들이 이입집산하는 모체(母體)가 되는 장소라는 뜻이다.

모항해수욕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중심 관광지 격포항과 인근한 채석강에서 자동차로 10분쯤 남쪽으로 이동하면 나오는 특별할 것 없는 해안 지대다. 안전요원의 거처인 캠핑장 텐트, 안느가 묵는 펜션(웨스트블루 펜션), 안느가 찾는 등대 따위는 모두 실존하는 곳이지만 영화에 등장할 만한 비범한 기시성이 부재하다. 영화감독이자 미상의 한국 남자(문성근)와 연애하는 유부녀, 한국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긴 이혼녀인 안느의 다중 정체성이 수렴하는 곳이 바로 여기, 모항이란 이름의 익명의 공간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변신과 격포를 거쳐 도착하게 되는 모항해수욕장에서 세 명의 안느가 보내는 시간을 다룬다. 영화가 촬영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해변은 거의 변한 것이 없지만 신 중턱에 새로운 속박 시설이 들어선 것이 눈에 띈다.



주요 인물들이 이합집산하는 장소인 웨스트블루펜션은 영화에서 본 것 그대로다. 해변에서 조금 떨어져 치기 드문드문 다니는 2차선 도로 왼쪽에 있는 이곳에서 인물들은 만나고, 기다리고, 다투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



안느는 안전요원에게 등대가 어디에 있는지 반복해서 묻지만, 안전요원은 모른다고 한다. 등대는 〈다른 나라에서〉의 주요 서사 장치 중 하나다.



왼쪽은 등대로 가는 방향이고, 실제로 100미터쯤 길을 따라 들면 등대가 나온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안느는 안전요원과 해변이 있는 오른쪽으로 간다. 2023년 다시 가본 이곳의 도로 위 방향 표지와 노랑 중앙선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된 상태다.

영화 촬영 후 방파제 공사가 있었던 탓에 주변 풍광이 꽤 바뀌어 등대로 이어진 돌담은 이제 없다. 흰색에서 녹색으로 색이 바뀐 것도 이곳 등대의 성격이 변모했음을 알려준다. 녹색 등대는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접근하지 말라는 국제항로표지협회의 표식 규정이다.

송광사 — 헤어질 결심(2022)



헤어질
결심
(2022)

감독: 박찬욱
출연: 박해일, 탕웨이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형사 해준(박해일)은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와 마주하게 된다. 해준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수사를 통해 서래를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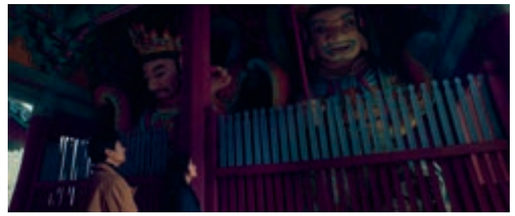
서래(탕웨이)는 형사 해준(박해일)과 변사 사건의 유가족-수사관 관계로 얽힌다. 바위산에서 추락해 사망한 남자 기도수(유승목)의 부인이자 살인 용의자로 의심받는 서래는 해준이 또 다른 촉을 발동하게 한다. 훔쳐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호감을 교환한 두 사람이 수사와 탐문인지, 연애인지 분간하기 힘든 사사로운 감정을 키워가다 선을 넘기 시작하는 곳 중 하나가 전라남도 순천의 절 송광사다.

부슬비가 내리는 절 안에서 거대한 법고와 나무 기둥을 사이에 두고 서래를 마주한 해준은 “서래 씨가 나하고 같은 종족이라는 거 진작에 알았어요”라고 말한다. 하늘의 구름과 파도가 그려진 절에서 애틋함을 호흡하면서 해준은 서래의 손이 거칠어진 것을 눈치채고 핸드크림으로 어루만진다. 이 제스처는 마치 무용수의 몸짓처럼 다음 쇼트로 이어진다. 항상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탐정의 행색을 한 해준에게 서래는 여러 개의 주머니가 달린 코트에 대해 묻는다. 인물의 얼굴만 보이고 몸은 보이지 않지만 그 주머니를 뒤지다가 립밤 튜브를 발견한 서래는 자신의 입술과 해준의 입술에 차례로 그것을 바른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암시하는 이 시퀀스는 에로티시즘의 고전적인 순간을 남도의 고즈넉한 고찰로 옮겨온다. 연약해 보이는 살인혐의자 여인과 감각이 발달한 형사가 관음증, 불면증, 언어 장벽, 끌림과 죄책을 교환한 끝에 절정에 이르는 장소가 송광사의 경내다.









4분 20초 분량의 송광사 시퀀스는 피의자와 수사관으로 만난 두 사람이 사슬처럼 엮이게 되는 초입에서 경계를 위태롭게 넘는 단계의 관계를 서술한다. 눈을 부릅뜬 사천왕상 아래에서 둘은 “한국 여자들은 손이 참 부드럽죠?” “간병인들은 장갑 많이 안 씁니까? 굳은살이 이게...”로 시작하는 긴 대화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위 있어서.”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해준에게 서래가 하는 말이다. 둘 뒤로 보이는 전각이 개울 위에 세워진 우화각이다.





퇴색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전각의 측면부를 지나 둘은 오른쪽 통로로 들어간다. 계곡의 바위 위에 세워진 침계루라는 이름의 중층 누각으로, 위치는 영화의 동선과 일치한다.





“서래 씨가 나하고 같은 종족이란 거 진작에 알았어요... 나도 언제나 똑바로 보려고 노력해요.” 해준이 대사를 독점하는 이 신에서 서래는 빙긋이 미소만 지을 뿐이다. 종고루라는 이름처럼 여기엔 법고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종도 달려 있다.



보조국사 감로탑과 관음전을 이어주는 계단. 광각렌즈로 찍어 스케일감이 느껴지는 계단 중간에서 해준은 “내가 무서워하는 건 피 많은 현장, 냄새 때문에”라는 결말부 플롯 때문에 고안·배치된 대사를 한다.









유서 깊은 사찰의 빛바랜 불화 아래에서 서래는 주머니가 12개나 되는 해준의 저고리를 뒤져 립밤을 찾아내 해준과 자신의 입술에 그것을 바른다. 옷의 유래를 주절주절 설명하면서 몸을 뒤로 빼던 해준이 호흡을 잠시 멈추고 “나는요, 깨끗해요”라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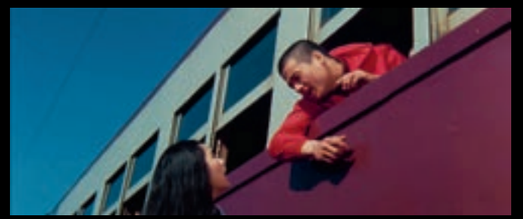
반도의 봄(이병일, 1941)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



바람 불어 좋은 날 (이장호, 1980)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



그들도 우리처럼 (박광수, 1990)



클래식(곽재용, 2003)

기차역 플랫폼은 도착과 떠남, 만남과 이별, 설렘과 체념이 교차하는 전환의 장소이다. 그런 만큼 오프닝과 엔딩에 자주 사용된다. 초기 한국영화에서 플랫폼은 근대성의 장소이자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줄 상경을 위한 첫 관문으로 그려지곤 한다.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는 경성역에서 수하물 운반원으로 일하고 있는 영복(이원용)의 고향 회상으로 시작된다. 그곳은 소와 말이 일을 하는 곳으로, 기차와 자동차가 있는 경성과 다르게 속도가 느린 전근대적 공간이다. 영화에 대한 영화인 〈반도의 봄〉(이병일, 1941)은 배우 지망생 정희(김소영)가 영화 제작자 영일(김일해)을 기차역에서 만나는 것으로 시작해, 플랫폼에서 조선영화 발전을 위해 일본 유학길에 오른 둘을 배웅하는 동료들의 클로즈업으로 끝난다. 서사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그들의 어두운 얼굴표정은 성장의 열망과 강화된 일제 침탈이라는 현실의 교차를 말없이 표현한다.

한편 1970년대 청춘영화로 오게 되면 플랫폼은 현실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입영열차를 타고 떠나는 젊은 남성과 뒤늦게 도착해 배웅하는 연인의 그림으로 정형화된다.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에서 입영열차를 탄 병태와 기차 창문에 매달려 입을 맞추는 영자, 그리고 떠나는 기차 꽁무니를 프리즈 프레임으로 결정화하는 엔딩은 무기력한 젊은 남성성의 장면화로 한국영화에서 반복된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이장호, 1980)과 〈클래식〉(곽재용, 2003)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은 또한 끝내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들도 우리처럼〉(박광수, 1990)에서 거대한 시대전환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중으로 상징되는 영숙(심혜진)을 플랫폼에서 기다리다 홀로 탄광촌을 떠나는 지식인 태훈(문성근)의 엔딩처럼 말이다. (조혜영)

플 랫 폼

군산 소요

25년 전 〈8월의 크리스마스〉(1998)가 군산 구도심의 전경을 생활의 감각으로 묘사했다면, 17년 전 〈타짜〉(2006)는 인물 캐릭터에 조응하는 군산의 장소들을 캐스팅하듯 잡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장률 감독의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2018)에선 표랑하는 인물들의 배경으로 월명동, 영화동의 주택, 숙소, 식당, 상점, 거리 등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 일제강점기에서 연유한 근대 건축물과 굴곡진 역사가 배태한 흔적 위로 오늘날의 일상 경제가 순환하는 군산 구도심 일대를 영화 속 인물들의 행로를 따라 소요해보았다.

군산 소요 가이드맵



1. 신흥동 일본식 가옥
2. 이웃 게스트하우스
3. 소현고택 앞 가로
4. 조선족 여자와 조우하는 어느 집 앞
5. 오성세탁 앞
6. 말랭이마을 앞 공터
7. 여미랑 정원
8. 동국사 소녀상
9. 동국사 골목
10. 월명터널
11. 소설여행 카페
12. 초원사진관
13. 일해옥 옆 이면도로
14. 군산세광교회 앞 도로
15. 월명동 가로
16. 조정형외과의원 앞
17. 해망굴 앞 도로
18. 대흥사 앞 공터
19. 군산서초등학교
20. 영화건강원 앞
21. 칼국수명궁
22. 구(舊)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23. 정주상회 앞
24. 불타는구공탄 앞 주차장
25. 국제반점
26. 부잔교 일원
27. 내항 폐건물
28. 경암동 철길마을
29. 군산고속버스터미널
30. 선유도

1. 신흥동 일본식 가옥

도박판에서 쓴맛을 본 고니(조승우)는
이곳에서 관록의 타짜 평경장(백윤식)
에게 화투 기술을 사사하며 와신상담한다.
도박판에서 일가를 이룬 평경장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이 저택은 군산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신흥동 일본식 가옥(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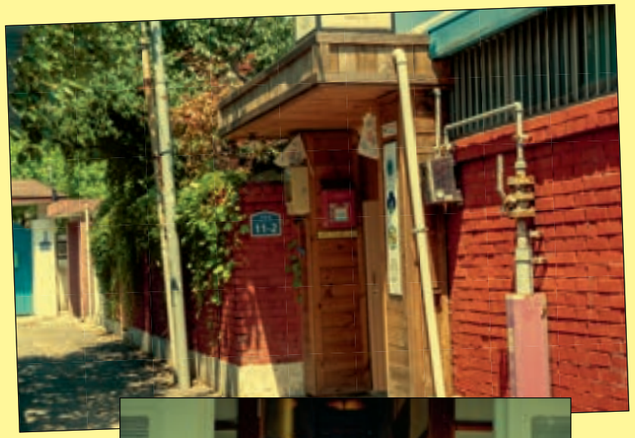
타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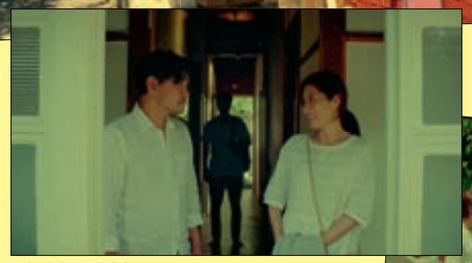
신흥동 일본식 가옥은 이곳과 담을 공유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된 윤영(박해일)이 음악 소리에
이끌려 당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일제강점기 학생으로 분한 성악 가수는 망국의
설움을 담은 노래 '황성옛터'를 구슬피 부른다. 실제
장소와 영화 속 윤영의 동선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군산: 겨워를 노래하다

2. 이웃 게스트하우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칼국수명궁 주인장의 소개로 게스트 하우스에 찾아간 서울 커플은 주인 이 사장(정진영)을 만난다. “이상한 데”와 “끌리는” 곳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 집은 복도 옆으로 방들이 도열한 일본식 가옥이다. 송현(문소리)이 호감을 품은 이 사장과 이야기할 때 윤영(박해일)의 실루엣이 깊은 심도의 복도 뒤편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른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과 붙어 있는 집이며 여전히 ‘이웃’이란 이름의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3. 소현고택 앞 가로

영화 초입, 군산에 도착한 커플이 두리번거리며 걷는 월명동 가로 풍경. 카메라는 인물들의 뒤편에 있는 고풍스런 일본식 주택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이후 가옥은 대수선을 거쳐 현재 ‘소현고택’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4. 조선족 여자와 조우하는 어느 집 앞



양지바른 어느 집 앞에서 송현(문소리)을 조선족으로 오해하는 행인이 등장한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해도 연거푸 자신을 조선족 ‘순이’로 호명하는 이 상황이 송현은 못마땅하다. 목 뒤의 큰 점을 확인하기 위해 송현의 목을 꺾은 뒤에야 황망하게 떠나는 이 여인은 태생과 국적, 혈통 너머의 경계를 가리킨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5. 오성세탁 앞

제자로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고니(조승우)와 그를 돌려보내고 싶은
평경장 (백윤식)이 옥신각신하는 곳이다.
흰색 타일의 오성세탁은 이후 폐업했지만
벽 간판은 그대로 있고, 담배 가게
명판을 단 맞은편 명신슈퍼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타짜

6. 말랭이마을 앞 공터

조선족 여인에게 봉변을 당한
송현(문소리)이 장난치는(목 뒤 큰 점을
확인하는 행동) 윤영(박해일)에게
발칵 화를 낸다. 인물들 뒤편으로 보이는
주택은 적산가옥의 외피를 벽돌로
조적한 혼종 양식의 가옥이다. 이 집을
끼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군산시가
'근대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정비한
말랭이마을이 나온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7. 여미랑 정원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일본 같아. 나
진짜 일본 좋아하는데." 송현(문소리)이
감탄하자 윤영(박해일)은 일본에서
옥사한 윤동주 시인을 들먹이며 심기를
건드린다. 일본식 주택과 정원으로 꾸며진
이곳은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 1930년대 근대
군산의 생활사를 복원한 숙박 시설이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8. 동국사 소녀상

동국사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송현을
뒤로하고 윤영은 정원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 앞에 쭈그리고 앉는다.
불상과 소녀상 또는 기도와 애도가
대비되는 시퀀스다. 소녀상 앞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윤영의
제스처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한 시공간에 응축하면서 영화 내내
반복되는 '거울'의 모티브를 환기한다.
동국사(국가등록문화재 제64호)는
한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일본식
사찰이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2018)

군산은 혼종의 도시다. 과거와 현재, 근대와 현대, 일본과 한국, 이주와 정주가 두서없이 섞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에 새겨진 자취와 장소성이 모티프이자 구조의 핵심이 되는 영화가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이다. 재중동포 감독 장률은 문화적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경계의 공간 군산으로 향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은 시간, 언어, 정체성을 특정하기 어렵다. 도회적인 노인이 운영하는 칼국숫집 '명궁', 한국의 일본식 사찰인 월명동 동국사, 윤영(박해일)과 송현(문소리)이 배회하는 월명동, 영화동 일대의 거리, 윤영이 드러누워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고하는 경암동 철길마을 등이 모두 하나의 문맥을 형성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고지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 미군부대에 기원을 둔 전투기의 비행음도 같은 맥락이다. 군산의 거리에서 송현은 출신을 짐작하기 힘든 조선족 여인의 추궁을 받고, 일본인 관광객을 만나며, 일제강점기 울분에 찬 시간 속으로 들어가거나 가짜 이주민 정체성과 대면한다. 판타지와 현실, 혹은 꿈과 현실을 오가는 이야기의 속성은 군산시의 관광안내도를 바라보는 윤영의 뒷모습으로 열리고, 군산버스터미널을 나서는 윤영과 송현으로 닫히는 영화의 수미쌍관 구조로도 뒷받침된다. (감독: 장률 / 출연: 박해일, 문소리, 정진영)

9. 동국사 골목

정원(한석규)은 집으로 돌아온 지원(전미선)과 어느 골목에서 조우하는데, 어색하고 어두운 표정에서 지원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읽는다. 이곳은 동국사 담벼락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생활의 공간. 〈8월의 크리스마스〉는 시종일관 인위성을 배재한 일상의 풍경을 과묵하게 담아낸다.



8월의 크리스마스

10. 월명터널

질주하는 차량 탓에 소음이 엄청난 터널 안에서 윤영(박해일)은 송현(문소리)에게 큰 소리로 성적 농담을 건네지만, 핀잔만 듣는다. 터널 출구에서 투사되는 빛을 받은 인물들이 실루엣처럼 보인다. 월명터널은 월명동과 해망로를 연결하는 시설로 인물들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11. 소설여행 카페

극 중 윤영(박해일)과 송현(문소리)이 만나는 곳으로 잠깐 나오는 장소이며 게스트하우스 이 사장(정진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송현(문소리)에 대한 윤영의 불편한 심사가 표출되는 공간이다. 장소는 '소설여행'이라는 게스트하우스 부속 카페다. 카페로 들어가는 입구는 변한 것이 없지만 카페 자체는 옆 동으로 옮겼고 인테리어 역시 바뀌어 윤영과 송현이 마주 앉아 있는 뷰는 이제 볼 수 없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12. 초원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



정원(한석규)이 운영하는 사진관이며 〈8월의 크리스마스〉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 여기서 정원은 다림(심은하)을 만나 사랑을 키우고, 다림은 연락이 끊어진 정원을 기다리며 이곳을 배회한다. 영화 촬영을 위해 오픈 세트로 지은 것이었으나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같은 자리에 복원돼 현재에 이른다. 기념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군산 구도심의 대표 관광 스폿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

변두리 사진관의 주인 정원(한석규)은 시한부 판정을 받아들이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한다. 그런 정원에게 스무살의 주차단속원 다림(심은하)이 해맑게 다가온다. 더 이상 삶에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원이지만 서서히 스며드는 일상의 시간마저 막을 도리는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 하면 '초원사진관'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영화가 진정 아름다운 이유는 특정 장소를 특별하게 포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은 점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이동 과정의 시간과 동선이 중요하다. 군산에서 주요 장면을 촬영한 〈8월의 크리스마스〉는 가상의 시공간이 아니라 군산 월명동 일대의 기억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았다. 월명동 골목길,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거리의 궤적을 거친 다음에야 초원사진관에 다다를 수 있다. 본래 초원사진관 자체는 임시로 지은 세트였지만 월명동 구석구석의 시간과 기억이 더해져 추억 속의 진짜 집이 지어진다. 그렇게 불치병에 걸린 남자의 특별한 사연은 느린 걸음으로 군산 월명동을 여러 바퀴 산책한 뒤 비로소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 관객에게 스며든다.
(감독: 허진호 / 출연: 한석규, 심은하)
— 송경원

13. 일해옥 옆 이면도로

무거운 짐을 든 다림(심은하)을 발견한 정원(한석규)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다. 다림을 스쿠터에 태우고 가는 길은 소고기뭇국 맛집 일해옥 옆으로 나 있는 이면도로로 촬영 당시나 지금이나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이다. 도로는 그대로지만 25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도로변 상가 대부분이 업종을 바꿨고 배후엔 아파트가 들어섰다.



8월의 크리스마스

14. 군산세광교회 앞 도로

정원(한석규)이 스쿠터에 다림(심은하)을 태우고 달리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장면의 초입이다. 가로 경관이 많이 변했지만 인물 배경 멀리 보이는 동신아파트는 아직 그대로 있다. 월명공원 인근 언덕에 위치한 동신아파트(1992년 준공)는 촬영 당시 월명동에 있던 유일한 아파트다.



8월의 크리스마스

15. 월명동 가로

정원(한석규)은 다림(심은하)을 태우고 월명동 가로를 달린다. 일제강점기 격자형 도로 체계로 설계된, 100년 전쯤 만들어진 가로 위에서 정원과 다림은 조금 더 가까워진다. 세월이 수반하는 자연스런 변화에 2010년대 중반 본격화된 도시재생사업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주변 경관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



8월의 크리스마스

16. 조정형외과의원 앞

주차단속원 다림(심은하) 일행은 식당 주인장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다. 밥 먹으러 들렀을 뿐인데, 식당 주인은 이들에게 왜 장사도 못 하게 하냐고 역정을 낸다. 영화 속 진미식당과 간판 일부가 보이는 동인슈퍼는 이제 없지만 식당 옆 조정형외과의원과 원경의 건물들은 건재하다. 초원사진관 인근에 있다.



8월의 크리스마스

17. 해망굴 앞 도로

크레딧이 나오는 인트로 장면에서 정원(한석규)이 스쿠터를 타고 등장해 군산서초등학교 교가를 들으며 시내 도로 쪽으로 달리는 시퀀스다. 영화에선 안 보이지만 이 주변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건립된, 해망동과 시내를 연결하는 해망굴(등록문화재 제184호) 앞 도로 일대다.



8월의 크리스마스

18. 대흥사 앞 공터

식당에서 쫓겨난 다림(심은하)과 동료가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는 장소. 여기서
다림은 지나가던 정원(한석규)과 우연히
조우해 잠시 담소를 나눈다. 군산
중앙로 방면 월명공원 초입에 위치한
사찰 대흥사 앞 공터이고, 영화 초입
크레딧 장면에서 정원이 스쿠터를 타고
등장하는 곳과 동일한 장소다.





8월의 크리스마스

19. 군산서초등학교





8월의 크리스마스

"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모두
가버린 텅 빈 운동장에 남아 있기를
좋아했었다. 그곳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정원의 내레이션).
정원(한석규)은 이곳에서 철봉에
매달리고,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하고,
한 번은 다림(심은하)과 함께 뜀박질을
한다. 초원사진관과 함께 〈8월의
크리스마스〉의 장소성을 대표하는
곳이다. 학교는 촬영 이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되었다.

20. 영화건강원 앞



송현(문소리)이 칼국수명궁으로 향하는
길에 포착된 점포. 현재 주인장이
출생했을 때 부친이 기념으로 식수한
것이라는 건강원 앞 느티나무는 이곳
영화동의 명물이다. 배경에 보이는
인상적인 아파트는 1989년 준공된 한신88
아파트이며 스틸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연천동 산신동자'는 이곳에 있던
다른 8곳의 점집과 함께 2년 전 철거됐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21. 칼국수명궁

영화 초입 윤영(박해일)과 송현(문소리)은
식사를 하기 위해 들러, 허름한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 노인 백화(문숙)를 만난다.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윤영에게 "그냥
눌러앉는 데가 고향"이라고 대꾸하는
이 신비로운 여인은 군산과 연고가 없는,
뿌리 없는 존재다. 식당이 있던 블록이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면서 칼국수명궁은
길 건너편으로 옮겨 변함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22. 구(舊)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2007)의 주요 인물 민우(김상경), 신애(이요원), 진우(이준기)는 문화극장이라는 곳에서 영화를 보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목격한다. 1980년 5월이라는 시대 분위기를 붓질로 그린 영화 간판과 근대 건축물에 설치한 크고 작은 돌출 사인으로 연출했다. 문화극장으로 분한 구(舊)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국가등록문화재 제600호)는 1938년 건립된 근대 건축물로 현재는 군산의 기억 유산을 전시하는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23. 정주상회 앞

문화극장 건너편, '정주상회'라는 가게 이름이 신애(이요원) 뒤편에 뚜렷하게 보인다. 군산 구도심 영화동에 실재하는 가게다. 공실 상태에서 오랜 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여름이면 덩굴이 집을 삼키는 형상을 연출하지만, 덩굴 잎 사이로 영화에 찍힌 푸른 간판 일부를 볼 수 있다.





화려한 휴가

24. 불타는구공탄 앞 주차장

고니(조승우)의 부탁으로 고광렬(유해진)이 돈 가방을 고니 가족에게 전달하기 전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다. 재개발로 인해 놀부네집과 노래방은 철거되었지만 불타는구공탄은 아직도 영업한다. 주차장은 지금도 주차장이다.





타짜

25. 국제반점

고니(조승우) 가족이 운영하는 중국집.
영화 공간과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데,
가게 이름도 국제반점으로 같다.
고광렬(유해진)은 이곳에서 가족에게
돈 가방을 전달하고, 그 와중에 '얄미운
삼촌' 때문에 짬뽕 국물을 뒤집어쓴다.
국제반점은 〈타짜〉의 촬영지로 유명세를
치른 이후 주말이면 꽤 길게 대기해야
하는 영화동 식당 명소가 됐다.



타짜

타짜(2006)

〈타짜〉 속 캐릭터들에겐 각자의
공간이 있다. 군산 구도심 신흥동에
있는 평경장(백윤식)의 일본식 가옥,
정마담(김혜수)의 고급스런 도박장,
곽철용(김응수)의 하우스 도박장
등 특색 있는 디자인의 공간들이
캐릭터의 성격과 전사(前史)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독특한 건 주인공
고니(조승우)를 위한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니는 누나의 재산을
노름으로 날리고 집을 떠난 후 전국을
떠돌며 도박에 매진한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니는 평경장, 정마담,
곽철용, 아귀의 공간을 들락날락 하지만
정작 자신이 발붙이고 머물 곳이 없는
부평초 같은 인물이다.

그런 고니의 뿌리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누나가 운영하는
중국집이다. 차마 누나를 만날 면목이
없는 고니는 동료 고광렬(유해진)에게
누나한테 돈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얼핏 별다른 특색이 없어 보이는
중국집이지만 그 평범함이 고향집의
푸근함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 언젠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 고니가 아닌
고광렬이 방문한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특유의 넉살로 고니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 신경도 쓰지 않고 돈부터 챙기는
자형의 모습이 진짜 가족의 부피를
만든다. 따뜻한 이상향이 아니라
억척스럽고 피로한 생활감까지 잘
살아 있는 집의 모습을 익숙한 공간인
중국집에 녹여낸 점이 실로 영리하다.
(감독: 최동훈 / 출연: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 송경원

26. 부잔교 일원

고니(조승우)가 아귀(김윤석)와 일생을
건 화투판을 벌이기 위해 도박장이
차려진 내항 선박으로 갈 때 건너는
다리다. 고니는 정마담(김혜수)의 차를
타고 들어와 너구리(조상건)의 차를
타고 나온다. 일명 '뜬다리 부두'라고
불리는 부잔교(국가등록문화재 제719-
1호)는 간만의 차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여 언제든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이다. 1926년에 시작해
1938년 일단락된, 양곡 수탈을 위한
항만 시설이며 일부 멸실되었으나 3기가
현존해 있다.



타짜

27. 내항 폐건물

인적 드문 내항 언저리에 자리한
폐건물, 〈변호인〉(2013)에서 대학생
진우(임시완)가 고문을 당하는 장소다.
전체가 아닌 일부만 묘사되는 영화 속
폐건물은 독재 정권의 속성을 반영하듯
시종 축축하고 음침한 모습이다. 군산
외항이 생기면서 항구 기능을 상실해
방치된 내항 일원의 건물 중 하나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폐건물로 남아 있다.



변호인

변호인(2013)

부림사건을 모티브로 한 〈변호인〉에서 신군부의 하수인들은 사상 단속을 명분으로 사회과학 독서 모임 회원들을 영장도 없이 잡아가 고문한다. 공안 정치의 부당함과 하수인들의 잔인함은 속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법 전문 변호사마저 상식과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내몬다. 그런 송우석의 빛나는 순간 역시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어둠이 있기에 가슴을 울린다.

평범한 대학생 진우(임시완)는 그 어둠 한복판에 벌거벗겨진 채 나뒹군다. 수사관 차동영(곽도원)은 학생들을 끌고 가 잔혹한 고문을 가하는데, 이들의 아지트가 바로 군산 내항의 숨겨진 폐건물이다.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폐건물에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자행하는 이들 행위의 민낯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법정에서 차동영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 변호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미 궁색함을 모르지 않는다. 이미 용도를 다한 폐건물은 어쩌면 차동영을 비롯한 그들의 운명을 닮았다. 그렇게 차동영은 음지 속에서 자신이 벌이는 일을 정당화하고자 발버둥을 치지만 끝내 송우석에 의해 발가벗겨진다. 그 순간 차동영의 민낯은 대학생 진우의 속살보다 훨씬 수치스럽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폐건물은 결국 철거될 수밖에 없다. (감독: 양우석 / 출연: 송강호, 임시완) — 송경원

28. 경암동 철길마을

레일 위에 윤영(박해일)이 모로 누워 있다.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윤영의 실없는 질문에 송현(문소리)이
힐난하는 소리를 하자 그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어"라고
고백한다. 프레임 뒤를 향해 수직으로
뻗은 철로는 과거와 현재, 남자와
여자, 삶과 죽음을 연결한다. 경암동
철길마을, 가게로 들어찬 번잡한
철로를 지나 건널목을 하나 건너면
나오는 한적한 철길 구역이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29.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첫 쇼트는 군산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도 앞에 선 윤영의 뒷모습이다. 잠시 뒤 프레임 오른쪽에서 송현(문소리)이 들어오고, 송현이 들어왔던 방향으로 윤영이 나간다. 이 신은 마지막 신과 이어지는데 프레임 바깥으로 번갈아 들어왔다 나가는 오프닝의 움직임처럼 장률 감독은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을 나서는 커플의 도착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의 미스터리를 완성한다.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

30. 선유도



수학여행

영화 도입부에 묘사된 선유도는 문명
세계와 이격된, 바다와 산과 초가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벽촌 풍경이다.
눈부신 푸른 바다와 낙조에 잠긴 선유도에
사는 아이들은 도무지 쉽게 가볼 수 없는
육지의 세계가 궁금하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 이후 휴가 시즌이면 교통 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상전벽해 되었지만, 바위산
망주봉과 몽돌해변으로 이어진 선유도리
능선, 섬 전체를 물들이는 장엄한
노을만은 여전히 유구한 모습이다.

수학여행(1968)

새만금 방조제 개발 이후 지금은
연륙교를 통해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와 대장도 그리고 신시도까지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곳은 군산에서 동떨어진 섬들이었고,
유현목 감독이 〈수학여행〉을 만들던
1960년대엔 낙도 중의 낙도였다.
『한국일보』에 소개된 「낙도 어린이의
소라의 꿈」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제작된 실화 영화 〈수학여행〉은
대한민국이 한참 산업화로 치닫던
시기에도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사와 어업으로 살아가는 선유도
아이들의 이야기다. 영화가 시작되면
풍경이 보인다. 넓은 갯벌과 섬들, 바다
위의 낙조와 멀리 보이는 배. 그리고
이곳엔 선유도국민학교의 순박한
37명의 아이들과 김 선생(구봉서)이
있다. 보름에 한 번씩 배가 들어오는
선유도 아이들의 꿈은 뭍에 가보는 것.
김 선생은 수학여행을 계획한다.
섬 아이들은 기차나 자동차
같은 문물에 신기해하고 도시의 삶에
대해 선망하는 듯 보이지만, 유현목
감독의 카메라는 사람 많은 서울의
복잡한 광경보다는 영화 초반부에
공들여 담아낸 선유도의 풍경에 좀
더 방점을 찍는다.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노니는 곳이었다
하여 '선유도'(仙遊島)로 불리는 섬.
영화에서 이곳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순수함의 공간이자 언젠간 돌아가야
할 이상향처럼 여겨진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기차 안. 서울에
살며 남편이 도시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김 선생의 아내(문희)가 아들과 함께
선유도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건,
그런 의미일 것이다. (감독: 유현목 /
출연: 구봉서, 문희) — 김형석

기생충(봉준호, 2019)





건축학개론(이용주, 2012)





내 깡패 같은 애인 (김광식, 2010)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2019)은 한국사회의 보이지 않는 계급 구성을 주거 형태에 투영하여 한 장의 그림 위에 디자인한 인포그래피 같은 영화다. 잔인한 계급도는 한국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관객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다. 동시에 도저히 번역할 수 없는 지역적인 정서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지하다. 기택(송강호)네 가족이 살고 있는 반지하는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 중 하나다. 해외에선 '세미 베이스먼트'(semi basement)로 번역되었지만 그 묘한 뉘앙스를 전부 살렸다고 보긴 어렵다. 반지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건물주의 욕망과 사용자의 절박함이 결합하여 기어이 만들어낸 빈틈이자 자발적인 복지의 사각지대다. 〈건축학개론〉(이용주, 2012)에서 대학생 서연(수지)는 강남 지역 반지하에 자취방을 구한다. 같은 비용이면 분명 훨씬 나은 주거 환경을 고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에서도 먼 강남에서 굳이 반지하 생활을 자처하는 건 이러한 이중적인 욕망의 결과물이다.

반지하는 지하로 떨어지는 과정인 걸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인 걸까. 쉽게 답을 내릴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영화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공간이란 사실이다. 김광식 감독의 〈내 깡패 같은 애인〉(2010)에는 두 가지 입장이 동시에 나온다. 삼류 건달 동철(박중훈)에게 반지하 생활은 종착지처럼 보인다. 반면 맞은편에 사는 취준생 세진(정유미)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거지 같은 반지하 생활을 버틴다. 어쩌면 동철만큼 간절하게 세진의 반지하 탈출을 바라고 응원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발바닥, 그러니까 현실은 지하에 붙어 있지만 시선, 그러니까 욕망은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본다. 하지만 반지하 창문은 언제나 커튼으로 철저히 가려지기 마련이다. 내려다보는 시선의 권력으로부터 달아나야 하므로. (송경원)

반 지 하


바보들의 행진 (하길종, 1975)


넘버 3 (송능한, 1997)


싸움의 기술 (김희성, 2006)


범죄도시 (강윤성, 2017)


영자의 전성시대 (김호선, 1975)


세상 밖으로 (여균동, 1994)


공공의 적 (강우석, 2002)


럭키 (이계벽, 2016)

한국식 목욕 문화의 중심인 대중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고전영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 1975)에서 창수(송재호)가 팔 하나를 잃은 창녀 영자(염복순)의 몸을 씻어주는 대목은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슬픈 목욕탕 장면이다. 반면 〈바보들의 행진〉(하길종, 1975)에서 병태(윤문섭)와 영철(하재영)은 미팅 나가기 전에 간만에 목욕을 하며 희희낙락한다. 1980년대 에로티시즘의 시대엔 종종 여탕이 등장했는데, 그 클리셰는 임권택 감독의 〈창〉(1997) 같은 영화에서도 접할 수 있다.

〈세상 밖으로〉(여균동, 1994)에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등을 밀어주는 혼욕 신은, 기존의 목욕탕 신 관습을 깨는 신선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사우나는 종종 수컷들이 충돌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넘버 3〉(송능한, 1997)에서 마동팔 검사(최민식)가 서태주(한석규)와 대립하는 곳도 바로 사우나다. 〈싸움의 기술〉(신한솔, 2006)에선 오판수(백윤식)가 "너 피똥 싼다"면서 동네 건달을 제압하고, 〈낙원의 밤〉(박훈정, 2021)에선 태구(엄태구)가 도 회장(손병호)을 난도질한다. 탕에선 종종 경찰이 건달의 군기를 잡기도 하는데 〈공공의 적〉(강우석, 2002)의 탕에서 떠들던 건달은 결국 강철중(설경구)의 등을 밀어주게 되고, 〈범죄도시〉(강윤성, 2017)의 문신 조폭은 무릎 꿇고서 조용히 삶은 계란을 깐다. 〈럭키〉(이계벽, 2016)에선 운명이 바뀌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곽경택 감독의 첫 장편 〈억수탕〉(1997)에선 조폭, 스님, 비뇨기과 의사, 외국인, 사진작가 등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김형석)

공 중 목 욕 탕

고전영화에 기록된 서울의 풍경

‘한국영화X공간’은 한국 고전영화를 공간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콘텐츠다. 도시공학·역사 연구자와 함께 4편의 영화 〈서울의 휴일〉(1956), 〈마부〉(1961), 〈오발탄〉(1961), 〈워커힐에서 만납시다〉(1966)에 남겨진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의 표면과 그 이면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아래 그 이야기를 옮긴다. 극영화는 재현의 산물이지만 당대 시대상을 오롯이 반영하는 기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960년대 서울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콘텐츠
‘한국영화X공간’

이 콘텐츠는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영문 자막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961년 서울의 삶 — 〈마부〉(1961)

패널　정종화(JJW) 한국영화사 연구자
김영준(KYJ) 도시공학 연구자

JJW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저 같은 영화연구자는 영화라는 텍스트를 감독의 미학적 작업 혹은 상업적인 장르영화의 문법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는데요. 사실 극영화는 재현의 산물이긴 하지만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상이 오롯이 반영되는 기록의 가치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록성이라는 것은 한국영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시공학 연구자 김영준 선생님을 모시고 강대진 감독의 1961년작 〈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YJ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대학 공학계 연구과 도시공학 전공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제 주요 연구 테마는 서울의 도시계획 역사에 대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지에서 '#서울의현대를찾아서'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기록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JJW　도시공학은 어떤 학문이고, 또 선생님의 관심 분야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KYJ　도시공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이게, 사람이 살기 쉽게 만드는 일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 문제의 최적해를 찾아내는 데 공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역사, 철학, 미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학문입니다.

오프닝 신, 종로 옥인길

JJW　〈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강대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1년 2월 15일 국제극장에서 구정 특선으로 개봉했습니다. 한국영화 최초로 유럽의 주 영화제인 제11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즉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마부〉 인트로 자전거 추격 신.

영화는 오프닝 크레딧 이후 마부 춘삼 가족의 막내 대업이 훔친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역동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네오리얼리즘을 상기시키는 자전거 도둑인데요.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흡입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쯤인가요? 차가 한 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카메라는 자전거를 따라가는 시점과 쫓아오는 사람을 잡는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YJ　오프닝의 자전거 추격 신은 종로구 누상동과 누하동을 가로지르는 옥인길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고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예전에 통인시장에 갔을 때 시장 입구에서 바라보았던 산세가 이 자전거



영화의 배경으로 짝힌 2층 한옥 상가의 2023년 여름의 모습.

추격 신 배경의 산세와 비슷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지도의 로드뷰를 확인하고서 실제로 찾아가보고 나니까 확실히 이곳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S자를 그리는 곳이 의외로 잘 없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굽이가 탄생한 이유는 옥류동천이라고 하는 개천을 복개해서 길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를 촬영하던 시점에는 이미 주민들의 생활 도로로 정착된 지 오래였고요. 하천을 복개한 길이다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골목길보다 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여유롭게 빠져나갈 정도로 자연스러운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원래 길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건물들은 많이 철거되고 재건축됐을 거라고 짐작했는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자전거 주인이 쫓아올 때 배경에 비치는 3채의 2층짜리 한옥 상가 건물들이 외관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전봇대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그 분위기만큼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JW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장면이 더 잘 이해되는데요. 자동차 위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했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KYJ　대업이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길을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야트막한 한옥들 너머로 예쁜 지붕과 원형 창, 그리고 벽돌로 지은 듯한 2층 양옥이 눈에 띕니다. 지금도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남아 있는 박노수 가옥입니다. 원래 이 가옥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친일파로 유명했던 윤덕영이 자기 자손을 위해 지어준 집인데, 해방 이후 화가 박노수 씨가 이 집을 구입해서 40여 년 동안 거주하다가 서울시에 기증했습니다. 지금은 박노수미술관으로,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부〉가 1960년 작품이니, 영화를 촬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아마도 박노수 씨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었겠죠. 후손들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에의원 간판 뒤로 보이는 2층 양옥 박노수 가옥.



2023년 여름 촬영한 박노수 가옥.

춘삼의 마차 vs 옥희의 자동차

JJW 이 영화에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는 작은 딸 옥희가 부잣집 아들의 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아버지 춘삼이 끄는 마차와 부딪힐 뻔한 장면(러닝타임 26분경)입니다. 후경으로는 선거 현수막이 어지럽게 붙어 있고요. 이 공간은 어떻게 보셨나요?

KYJ 옥희와 부잣집 아들이 타고 가던 자동차의 본네트 너머 야트막한 언덕 위에 한옥 양식의 문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문은 과거 경희궁의 정문이었던 '흥화문'인데, 일제강점기 시절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신사인 '박문사'를 지으면서 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갖가지 교통수단이 혼잡하게 오고 가는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근대적 교통수단인 자동차와 전근대적 교통수단인 마차의 충돌은 근대와 전근대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소달구지나 마차가 도로를 통행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60년 전에 도로상에서 근대와 전근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그 속에서 전근대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춘삼이 같은 사람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감독은 이 신을 통해 보여주려 한 것 같습니다.

JJW 새로운 문물, 그러니까 근대를 상징하는 자동차가 마차를 위협하는데, 그렇다고 춘삼은 주눅 드는 게 아니라 그에 저항하는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경합의 상황을 영화가 잘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마지막에는 춘삼이 다리를 다치고, 마부 일을 못 하는 상황이 되죠.

춘삼과 수원댁의 극장 데이트

JJW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춘삼과 수원댁이 극장 데이트를 하는 장면(러닝타임 42분경)입니다. 둘은 1961년 1월 18일에 개봉한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을 상영하고 있는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극장은 어디인가요?



1961년 초 성남극장의 모습.



KYJ '성남극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의 전신은 1918년에 개관한 '경룡관'입니다. 경룡관은 당시 용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위해 개관한 극장이었는데, 해방 이후 성남극장이라는 이름의 재개봉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래도 단성사나 대한극장 같은 유명한 극장이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쇠퇴를 겪었고, 최종적으로 2003년에 폐관해 극장 건물은 현재 음식점, 편의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온 성남극장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당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영화 촬영 이후 1962년에 건물이 헐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마부〉에 나오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JJW 극 중에서 상영하고 있는 〈춘양전〉은 당시 개봉관이었던 국도극장과 국제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성남극장은 재개봉관이라서 상영하려면 시간이 걸렸을 터라 이상해서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실제 극장에서는 〈청춘일번가〉가 상영 중인데 〈춘향전〉이 상영 중인 것처럼 입간판을 세워서 꾸며놨더라고요. 당시 신문 광고를 찾아보면, 1월 11일부터 〈청춘일번가〉가 개봉, 15일부터는 〈암흑을 뚫고〉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촬영한 시기를 1월 11일부터 14일 사이로 유추할 수 있죠. 실제로 〈춘향전〉은 이 성남극장에서 3월 5일에 재개봉했고요.

〈마부〉 속 서울역 주변

JJW 춘삼이 호박떡을 사는 장면(러닝타임 28분경), 장남 수업이 친구 창수에게 말을 돌려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장면(러닝타임 71분경)에도 저 멀리 후경으로 서울역이 보입니다. 이 공간들은 어디쯤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모인 소화물을 옮기는 장소 같은데요.



서울역 소화물취급소 풍경.



KYJ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속도로도 없었고 자동차 보급도 더뎠기 때문에 트럭보다는 기차를 통해 서울역으로 전국 각지의 화물이 모였습니다. 따라서 춘삼처럼 마차를 이용하거나 창수처럼 3륜차를 이용해 소화물 운송을 하던 업자들이 자연스레 서울역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이곳의 위치는 현 서울 서부역의 살짝 북쪽인데요. 해당 부지는 철도 소화물 취급이 폐지된 지금도 한국철도공사의 수송 담당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의 사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서울역 소화물취급소 바로 북쪽에 1975년까지 서울의 수산시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곳은 서소문 역사문화공원으로 바뀌었고, 수산시장은 전부 노량진으로 옮겨갔죠. 극 중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춘삼과 같은 마부들은 서울역 소화물취급소와 수산시장 사이를 바쁘게 오가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증기기관차와 삼각형 굴뚝

JJW 춘삼과 수원댁이 다리 위에서 만나고, 김 서기가 둘의 사이를 알아채는 장면(러닝타임 55분경)에서는 증기기관차 소리가 들린 다음 오른쪽 후경으로 증기기관차가 지나갑니다. 이곳은 어디인가요? 또, 춘삼이 수원댁과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마차를 출발할 때, 왼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의 굴뚝이 보이더라고요.



현 숙대입구역 철뚝로 인근 거리 풍경.



KYJ 춘삼과 수원댁이 개천 위 작은 돌다리에서 애기를 나누는데, 카메라가 북쪽을 바라볼 때 동쪽으로 증기기관차가 지나갑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만초천'이라는 하천을 복개한 지금의

청파로뿐입니다. 지하철로 치면 4호선 숙대입구역 바로 인근이고요. 증기기관차의 선로는 지금의 경부선입니다.

춘삼이 수원댁을 뒤로하고 다시 마차를 출발할 때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삼각형 굴뚝은 1930년대 후반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존재했던 철공소 굴뚝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청파동1, 2가 부근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철공소가 상당히 많이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산업 유산이 형태를 제대로 갖춘 채 남아 있던 셈이죠. 이 장면이 촬영된 지역은 서울역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는 춘삼이 서울역 소화물취급소로 가서 일을 계속하려는 시간적 흐름을 감독이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춘삼의 일상 속에서 수원댁과 우연한 만남이 이뤄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당시 서울의 도시적인 생활을 영화 속에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JJW 마부 일을 하는 노동자의 일상 동선 기록이 영화 속에 보이는 거네요.

KYJ 그렇죠. 그것도 아주 있음직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한 것이죠.

함박눈 내리던 날의 율곡로

JJW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함박눈이 쏟아지고, 춘삼의 가족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남 수업이 고등고시에 합격합니다. 앞으로 춘삼의 가족, 아니 장남 수업의 가족은 행복할 것임을 암시하며, 감독은 감동적인 해피 엔드로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KYJ 수업이 합격 벽보를 확인하는 곳은 정부중앙청사로 쓰였던 옛날 조선총독부 청사입니다. 고등고시 합격 벽보가 정부중앙청사 정면 담벼락에 쫙 붙어 있고요. 합격 발표를 확인하고서 춘삼네 가족이 얼싸안고 기뻐한 다음, 눈길을 걸어가며 카메라가 페이드아웃 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어딘지 살펴봤더니 지금의 율곡로더라고요. 광화문을 마주 볼 때 서쪽에 경복궁역이 있으면 동쪽으로 인사동 방면의 길이 율곡로입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 조선총독부 청사가 완전히 철거돼서 경복궁 담장이 복원되어 있지만 길의 형태는 그대입니다. 영화에서는 눈발에 파묻혀 잘

조선총독부 청사 앞 도로변 풍경. 현 율곡로.





보이지 않지만 춘삼네가 걸어가는 곳 오른편으로 경기도청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철거되어 부지가 주차장으로 쓰이다가 현재는 조선시대 의정부 터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 당시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어디인지 당연히 알 만한 묘사였죠. 오프닝 시퀀스에 등장하는 굽이진 골목길과 같은 삶을 헤쳐온 춘삼네가 서울의 최중심부, 그것도 정부 주요 청사가 모여 있는 신작로를 걸어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극적인 대비를 감독이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JJW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사들을 뒤져봤는데요. 당시 영화들이 보통 엔딩 장면을 마지막으로 미뤄서 촬영한다는 걸 생각하고, 아까 극장 장면이 14일경 촬영됐다면 그 이후 서울에 함박눈이 내렸던 날이 언제일까 찾아봤는데요. 16일 아침부터 큰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촬영팀이 '지금 나가서 촬영하자'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건 아니고요.

1961년 1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



KYJ 촬영 기간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영화가 대략 1960년 후반에서 1961년 초반을 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장면만큼은 1961년 1월 16일이라는 확증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국가 기록 영상이 공개 일자는 명확하지만 정확한 촬영 일자는 알 길이 없는데요. 오히려 영화라는 상업 예술을 통해 핀 포인트로 그 시점 그 순간의 서울이 영원히 기록됐다는 점이 한편으로 뭉클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번화가, 충무로 입구

JJW 〈마부〉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더 언급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신가요?

현 충무로역 입구 도로변 풍경.





KYJ 수업의 동생 옥희가 잠시 일탈을 해서 부잣집의 아들을 만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게 상호와 건물 윤곽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대한극장, 지금의 충무로역 바로 앞에 있는 한 식당이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워낙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충무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혼마치'라고 하는 번화가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이 영화가 촬영됐던 무렵에도 충무로는 여전히 번화가였기 때문에 옥희가 부잣집 아들과 마실을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로 자연스럽게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감독이 당시 서울의 도시 생활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설정한 로케이션으로 보이고요.

〈마부〉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JJW 마지막으로 〈마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면들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장면은 마차와 자동차가 마주치는 세 번의 장면으로, 서민들에게 잔존한 전근대와 자본가의 근대가 갈등하는 모습을 세련되게 설명합니다.

〈마부〉에서 반복되는 마차와 자동차의 교차 신.





첫 번째는 춘삼을 위시로 마부들이 사선으로 언덕을 오르는 장면(러닝타임 4분경)입니다. 군용 지프차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한 춘삼의 마차와 작은 딸이 탄 지프차가 부딪힐 뻔한 교차로 장면(러닝타임 26분경)이고요. 세 번째는 춘삼이 마주 집에 말을 반납하러 갈 때 가마니를 가득 실은 화물 트럭이 마부들을 휙 앞질러 가는 장면(러닝타임 1시간 22분경)입니다. 선생님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무엇인가요?



KYJ 역시 아무래도 오프닝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앞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굽이지는 골목길이 등장하잖아요. 그 골목길 자체가 춘삼네 가족의 우여곡절이 깃든 삶의 형태를 나타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길을 근대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가로지른다는 점에서,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에 놓인 춘삼네 가족의 역경을 자전거로 형상화된 무시할 수 없는 속도의 근대가 관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닝 타이틀과 크레딧이 나오는 배경으로 바퀴살이 돌아가는데, 뒤이어 곧장 등장한 것이 마차가 아니라 자전거였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전근대와 근대의 대비를 보여주려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부〉 오프닝 크레딧.

욕망과 좌절의 거리 서울 — 〈오발탄〉(1961)

패널 정종화(JJW) 한국영화사 연구자
김영준(KYJ) 도시공학 연구자

JJW 2021년 한국영상자료원은 60년 전인 1961년 한국영화에 주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의 이정표가 된 해인 1961년에는 한국영화사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성춘향〉, 〈마부〉, 〈오발탄〉, 〈삼등과장〉,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영화들이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이들 영화는 한국영화라는 길을 찾는 과정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성공을 거뒀고요. 오늘은 역시 1961년 작품인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설『오발탄』과 영화 〈오발탄〉

JJW 한국 고전영화에서 보이는 도시 공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오발탄〉 때문이었다고 하셨는데요.

KYJ 중고등학생 때 국어 교과서에 소설『오발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울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생생하게 담겨 있어 인상이 깊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 작품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1959년 소설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60년에 영화가 제작됐다며 강조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대학생이 돼서 〈오발탄〉 영상을 파편적으로 보다가, 최근 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에서 고화질 영상으로 보게 됐고요. 이번 기회를 맞아 처음 접했던 심정으로 다시 봤습니다.

공간 분석 대상으로서의 〈오발탄〉

JJW 서울의 도시 공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영화 〈오발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KYJ 개인적인 감상부터 말씀드리면요. 원작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그 생생한 묘사, 예를 들면 영호네가 거주하는 해방촌에 대해서 "레이션의 껍데기를 가지고 지붕을 이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묘사를 통해 상상했던 당대 서울의 공간을 마치 다큐처럼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도시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도시공학을 탐구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당시의 기록'이라는 의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를 겪고 도시 계획이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서울의 도시 공간은 해는 물론이고 월별로 바뀔 정도였는데요.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의 상흔을 담은 도시 공간을 날것 그대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1961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발탄〉이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JJW 〈오발탄〉의 촬영 시기는 1960년 6~12월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 하반기 서울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판잣집과 계리사 사무실

JJW 이 영화는 1960년 4월 혁명 이후인 6월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영화인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비 문제로 12월에 촬영을 마쳤고, 1961년 4월에 뒤늦게 개봉하게 됩니다. 휴전된 지 7년 정도 지났지만, 영화 속에 담긴 서울은 외견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무척 황폐해 보입니다. 영화는 첫 장면에서 동생 영호(최무령)를 중심으로 상이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형 철호(김진규)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 시퀀스를 끝냅니다. 그리고 바로 아침이 시작되어 철호가 산비탈의 판잣집에서 계리사 사무실로 출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KYJ 철호가 산비탈의 판자촌 사이를 걸어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가 정면으로 비추지 않습니까? 그다음 신이 계리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철호의 뒷모습인데요. 철호가 사는 곳은 산비탈에 있는 무너져 가는





〈오발탄〉 오프닝 시퀀스.





후경의 양옥을 통해 혜화동 혹은 이화동으로 추정.

판잣집이지만 철호가 일하는 곳은 서울 도심 한복판의 말끔한 오피스 빌딩이라는 점에서, 오프닝부터 감독은 이러한 극단적인 빈부 격차가 투영된 도시 공간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 했다고 생각됩니다. 철호의 계리사 사무실이 있던 곳은 현관에 '대한상공회의소'라는 명판이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지금도 계속 그 자리(남대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산비탈의 판잣집을 내려온 철호가 조선시대 때부터 서울의 중심이었던 곳에서 일한다는 설정은 철호가 아침저녁으로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철호네 집 촬영지

JJW 철호 가족이 살고 있는 판잣집 마을은 어디쯤일지 궁금한데요. 철호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마을 전체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러닝타임 18분경). 영화 속 설정으로는 해방촌이긴 합니다. 시나리오상 지문도 그렇고, 그 유명한 영화 엔딩에서 철호가 택시를 타고 해방촌으로 가자고 했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가, 중부경찰서로 가자고 했다가, 극 중 택시기사 말을 빌리면 "오발탄 같은" 손님의 모습을 보일 때도 해방촌을 지시합니다.

KYJ 당시 판잣집이 밀집된 구역, 흔히 말하는 판자촌 중에 해방촌이 있었죠. 실제로 유현목 감독님의 2000년 인터뷰를 보면 판자촌을 촬영하기 위해 해방촌에 가서 영호네 집에 해당하는 집을 찾아서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18분경 시퀀스를 보면, 자기 집으로 올라가는 영호의 뒤편으로 높다란 축대 위에 일식 가옥 혹은 양옥처럼 보이는 집들이 여러 채 보입니다. 당시 해방촌에는 판잣집이나 단층집만 있었을 뿐이지 이러한 벽돌조 양옥은 거의 없었거든요. 빈부 격차를 극대화해 보이기 위해 일제강점기 관사가 밀집돼 있었던 종로구 혜화동이나 이화동 같은 곳에서도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사교계 스타 미리의 공간

JJW 〈오발탄〉이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영화 촬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영호가 다방에서 나온 배우 미리와 마주치는 장면이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시 번화가인 명동 안쪽 길 같아 보였는데요.

KYJ 저도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영호와 미리가 공사 중인 다방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미리의 어깨 너머로 골목길 끝편에 2~3층 규모의 번듯한 양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 빌딩의 정체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일본생명'이라는 보험 회사의 서울 지점 건물인데요. 〈오발탄〉 촬영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사회부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던, 지금의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의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던 상당히 큰 빌딩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미뤄볼 때, 명동 일대는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많은 금융 회사가 모여 있던 상당한 번화가였음을 알 수 있고요. 영화 촬영 당시에도 주식거래소나 국민은행의 전신이 되는 은행들의 사옥이 미리의 주 활동 무대인 바로 이곳 근처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가 잘





우상단이 보건사회부 청사로 추정.

1955년 촬영한 보건사회부 청사.

나가는 사교계의 스타였음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JJW 그 건물은 현재 없어진 거죠?

KYJ 그렇죠. 60년대 후반에 철거되었고, 지금 그 자리는 우회전 전용차로 교통광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상업은행 남대문지점

JJW '한국상업은행 남대문지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건물 앞에서 영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곳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 후반부에 그 장면이 설명됩니다. 영호가 은행 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건물도 무척 독특한 것 같습니다.

KYJ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물이고, 현재 이름은 '흥국생명빌딩'입니다. 1957년 준공 당시에는 '그랜드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합 빌딩이었습니다. 남대문 바로 뒤편, 카메라가 남대문을 정면으로 잡으면 반드시 잡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1966년작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에서 남대문 주변 전경을 비출 때도 이 빌딩은 아주 당당하게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수근, 김중호 건축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나상진이 정성 들여 설계했던 오피스 빌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유선형 외관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오발탄〉을 촬영했을 무렵에는 더더욱 초현대적이고 세련된, 일종의 자본의 상징으로서 회자됐을 듯합니다.

JJW 은행 강도를 하려는 영호를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곽 하사가 지프차에서 영호를 기다리다가 건물



2023년 여름 촬영한 남대문 흥국생명빌딩.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여줄 때도 등장하거든요(러닝타임 1시간 20분경).




KYJ 1950년대 후반에는 이런 높은 빌딩이 많이 없었죠. 물론 이 장면에서 곽 하사가 단순히 위를 올려다봤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바라본 주체가 곽 하사라는 상이군인인데다 그가 올려다본 빌딩은 남대문 한복판에 위치한 고층 오피스 빌딩이라는 점에서 미뤄볼 때, 곽 하사를 비롯한 상이군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세련된 빌딩과 대조시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설 원작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가칫길 재회, 설희의 아파트

JJW 영호가 또 한 명의 여자, 야전병원 간호사 설희를 만나게 됩니다(러닝타임 26분경). 이 장면에서는 오리온제과 공장과 건널목이 보입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건널목 배경에 보이는 오리온 제과 공장.

KYJ 지금 서울 시내에 경부선 철길을 넘어가는 건널목, 특히나 도로가 교차하는 건널목은 없죠. 하지만 건널목 저편에 보이는 '오리온제과' 간판을 통해 미뤄볼 때, 삼각지 고가차도가 넘어가는 한강로 1가 79번지 부근의 건널목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지도의 로드뷰로 보거나, 삼각지 고가차도를 자동차로 달리면서 보면 커브 길 한편에 오래된 공장 건물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오리온제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이 지었던 제과공장 건물입니다. 비록 건널목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가면 비슷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JJW 일제강점기 때 그 공장의 이름은 뭐였죠?

KYJ '풍국제과'라는 제과회사의 공장이었고, '풍국제분'이라는 밀가루 제조회사까지 겸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뿐만 아니라 인천 동구에 당시 풍국제분 공장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오발탄〉 촬영 때는 의도한 것이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의 네거티브적인 산업 유산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JW 오리온제과 자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KYJ 지금도 오리온제과 소유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일부 건물은 재건축됐지만, 영화에 찍혔던 공장의 3분의 1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극 중 설희가 사는 아파트로 설정된 보건사회부 청사 건물.

JJW 설희는 영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설희가 살고 있는 공간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외부는 아파트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실내로 들어가면 세트 촬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희의 대사에서 원래는 창고였다고 하는데요.

KYJ 이 건물,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적인 공간으로 나온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 찾아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서 영호와 설희가 대화를 나눴던 골목길 저편에 비춰진 보건사회부 청사였습니다. 당시에도 청사로 쓰이던 건물인데 왜 굳이 이곳에서 촬영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영호와 설희가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중요한 미장센으로 등장하는 그 철제 계단이 곧게 뻗어 있으면서 건물 후면도 적당히 예뻐야 하겠죠. 그리고 설희 방에 들어갔을 때 배경에 서울 전경이 펼쳐져야 되고, 옥상에서 둘이 대화를 나눌 때 주변이 도회지 분위기가 나야 하고요. 그런 복합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을 찾다가 결국 을지로입구 한복판에 있던 보건사회부 건물을 낙점한 게 아닐까 합니다.

여동생 명숙을 데리러 간 철호

JJW 형 철호의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호는 밤거리에서 양공주를 하다가 잡힌 여동생 명숙을 데리고 중부경찰서를 나와서 말없이 동생과 널찍이 떨어져 도심 공간을 걷고 있습니다(러닝타임 34분경).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철호 뒤로 보이는 개똥밭.

KYJ 교통광장처럼 보이는 탁 트인 아스팔트 위를 둘이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갑니다. 영호의 바로 뒤편, 오른쪽으로 상당히 말끔한 5~7층의 오피스 빌딩이 보입니다. 이 빌딩은 '개풍빌딩'이라고 불리던 고층 오피스 빌딩이었는데요. 당시로는 최신 시설인 엘리베이터도 갖췄던데다 불법 증축으로 세워진 높이 때문에 세간에 많이 오르내린 랜드마크였습니다. 어찌 보면 동생 명숙은 물론이고 영호 본인의 입장도 되게 난처해졌잖아요. 비록 풀려나긴 했지만 엄연히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어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정작 배경의 서울은 고도화되어 가고 말끔하다는 점을 대비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호텔 앞의 미군과 양공주

JJW 명숙이 밤거리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설명됩니다. 양공주들이 조선호텔 정문 앞에서 미군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러닝타임 44분경). 조선호텔은 1914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정문이 영화를 촬영한 1960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1960년 조선호텔 앞 풍속도.

KYJ 네, 실제로 조선호텔이 위치했던 곳은 대한제국 시절 고종이 건설한 환구단 자리인데요. 그 환구단 정문을 그대로 조선호텔 정문으로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문 자체는 조선시대 전통 한옥 양식인데, 워낙 미군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검문소 같은 부스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영어가 병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미군과 양공주가 길거리 만남을 가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영화적인 연출만은 아니었습니다. 1958년 무렵 신문 기사를 보면 당시 매춘으로 유명했던 종로3가의 여성들이 조선호텔 주변으로 모여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극 중 명숙과 비슷한 처지의 젊은 여성들로 짐작되는데요. 영화는 시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고 이러한 장면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철호가 내려다본 서울

JJW 철호가 집에 들어가려다가 노모가 "가자, 가자" 하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려 나와가지고 언덕 위에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러닝타임 1시간 3분경). 관광객이 높은 데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과 산비탈의 판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 도심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를 이 영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듯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1960년의 서울 도심.

KYJ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과 극소수의 부유층 한국인은 남산 중턱에 좋은 집을 짓고 살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은 당연히 자동차를 타고 다녔죠. 영호네를 비롯한 서민들, 판자촌 거주민들은 저 언덕 밑 전차 정류장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치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의 남산 3호터널 인근 소월로에서 바라보는 전경 장면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영호의 도주

JJW 다시 영호의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호가 은행 강도를 한 후에 도주하는 장면인데요. 시나리오와 비교해보면 훨씬 자세하게 찍혀 있습니다. 경찰의 무선으로 영호의 도주로가 중계됩니다. 종로2가와 청계천 사이, 청계천4가, 청계천5가, 그다음 전차 레일이 잠깐 보이고, 종암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계천과 전차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청계천이 복개됐는데, 영호는 그 도로 밑 공간으로 들어가서 도주하고 있는 건가요?

KYJ 그렇습니다. 일부 구조물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청계천이 복원되어서 지상으로 완전히 드러난 개천이 되었죠. 영화가 촬영된 당시에는 193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던 청계천 복개 공사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영호가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를, 마치 그리스 신전과 같은 기둥 사이를 어지럽게 헤쳐 다니는 장면을 찍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를 추측해보자면, 1958년 무렵 본격적으로 재개된 청계천 복개 공사가 자재 부족 등 여건 문제로 구간별로 나눠서 진행된 탓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망치던





복개 공사가 진행 중인 청계천에서 촬영한 도주 신.

영호가 곧장 청계천 밑으로 숨어들 수 있었고, 공사가 덜 진행된 곳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당시 서울 청계천의 상황이 잘 반영됐습니다.

JJW 그리고 전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부〉의 성남극장 앞 장면에도 전차가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에서 전차가 마지막 운행을 한 것이 1968년 11월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차라는 것이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도 서울에서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KYJ 맞습니다. 1960년 〈오발탄〉 촬영 시기의 서울시 인구가 약 244만 명이었는데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미 서울의 교통 수요를 전차만으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전체 교통 수요 중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분담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서울 전차는 200여 대에 불과한 차량으로 하루 약 30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지금의 서울 지하철이 하루 약 780만 명을 수송하거든요. 당시 전차가 시민의 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1968년 폐지를 앞두고 전차가 자동차 교통을 방해한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196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 수가 증가하지만, 〈오발탄〉이 촬영된 1960년 서울에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죠. 전차는 도로에서 반드시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 경관을 나타낼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JJW 〈오발탄〉에서 전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영호가 도망갈 때, 전차는 보이지 않고 전차 노선이 짧게 보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YJ 전차를 타고 도망가는 장면 대신 어지럽게 뻗어나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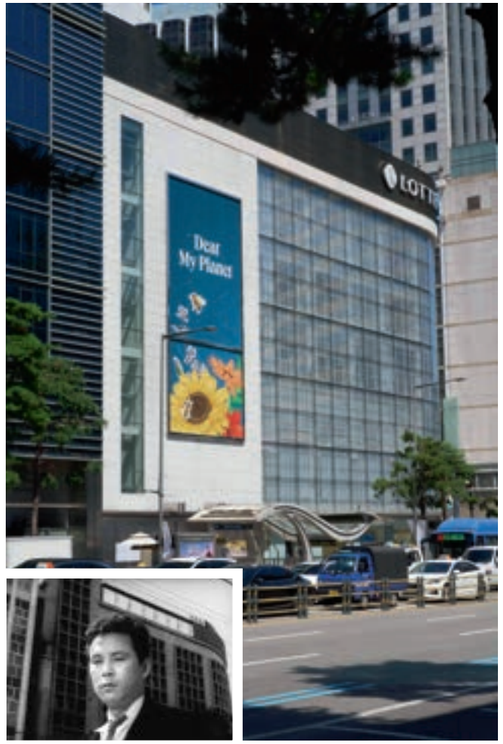


두 갈래로 분기되는 전차 선로.

전차 선로를 비춰 속도감을 살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전차 선로가 잘 가다 분기가 됩니다. 을지로입구나 종각네거리 혹은 서울역 인근의 전차 선로를 찍은 것 같은데요. 쭉 뻗어나가던 전차 선로에서 분기되어 가는 선로를 굳이 잡음으로써 영호가 돌이킬 수 없는 일탈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철호가 배회하는 서울 거리

JJW 영호가 체포되고, 철호는 다시 중부경찰서에 갔다가 서울대 병원에 가서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것을



2023년 여름 촬영한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구 미도파백화점.

확인하고 넋이 나간 채로 도시를 배회합니다. 딸에게 사주고 싶었던 신발을 보면서 신발 가게를 지나갈 때 후경으로 미도파백화점이 보이더라고요(러닝타임 1시간 35분경).

KYJ 저도 그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철호는 미도파백화점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급 호텔이었던 반도호텔 앞도 지나갑니다. 철호의 가족이 안타까운 처지에 처하고, 딸이 원하는 것도 사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배경에 비치는 건물들은 고급 호텔과 백화점이죠. 시선이 닿는 곳은 아마도 명동으로 추정되는데, 쇼윈도에 진열된 귀금속들을 비추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철호의 처지를 더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참고로 반도호텔은 1970년대 초반에 철거되어서 롯데호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미도파백화점은 리모델링을 거쳐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로 그 자리에 있거든요. 을지로입구역에 가면 철호와 같은 구도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사라졌지만 또 어떤 공간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오발탄〉이 도시 기록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JJW 그러다가 철호는 여러 치과를 전전하며 사랑니를 다 뽑고 저녁을 맞이합니다. 서울역 앞을 지나서 위태롭게 걷다가 결국 택시를 타는데요. 〈마부〉에 이어서 〈오발탄〉에도 서울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러닝타임 1시간 39분경).





KYJ 실제로 그 장면에서 서울역이 비춰지긴 합니다만, 〈마부〉에서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네온사인 불빛의 외곽선만 보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철호가 불야성 같은 서울의 야경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듯한 것을 의도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역 윤곽을 두른 네온사인이 상당히 이색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 당시에는 밤마다 조명을 켰다고 해요. 그 무렵 대한뉴스나 서울시 기록 사진을 보면, 예를 들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4·19혁명 1주년을 기념했을 때, 5·16 쿠데타 1주년을 기념했을 때 네온사인으로 장식된 서울역에 조형물이



1926년 서울역 내 운수사인 창사, 홍차: 영상역사관.

설치됐거든요. 어찌 보면 서울역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공공 시설로서 권력이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그러한 통치를 선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된 공간이 아닐까, 그 산물로서 〈오발탄〉에서도 외곽이 강조되는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JJW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50년대 서울을 산보하다 – 〈서울의 휴일〉(1956)

패널 정종화(JJW) 한국영화사 연구자
석지훈(SJH) 한국근대문화사 연구자

JJW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문화사를 전공하고 있는 석지훈 연구자를 모시고 이용민 감독이 연출한 1956년작 〈서울의 휴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SJH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을 함께하게 된 석지훈입니다. 저는 한국 근대문화와 사회상, 그리고 대중 매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역사 연구자입니다.

서울을 입체적으로 다룬 영화

JJW 〈서울의 휴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서울이라는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 영화입니다. 휴일 하루라는 시간적 배경도 제목에 포함되어 있고요. 영화 장르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의 휴일〉은 로맨스와 코미디가 결합된 멜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장르로 좁혀보면 서구 영화의 기준과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로맨틱 코미디라고 규정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전후(戰後)라는 사회 분위기, 특히 한국사회가 여성 주체를 바라보는 수정된 관점이 맞물려 흥미로운 텍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후라는 시간적 배경과 서울의 도시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SJH 사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대략 1960년 이전까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심층적으로 기록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 속의 1956년 서울은 말 그대로 공간의 전후 좌우 맥락과 그 깊이까지도 잘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귀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휴일〉의 인상 깊은 도입부

JJW 〈서울의 휴일〉에서 도시 공간이 잘 드러난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1920년대 도시 교양곡 영화의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엔딩에서도 등장하며, 영화의 처음과 끝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인트로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서울의 휴일〉 오프닝 시퀀스.



SJH 영화 〈서울의 휴일〉은 새벽녘부터 늦은 밤까지의 하루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새벽녘 안개에 싸인 남산과 옛 조선신궁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 원경을 보여준 다음, 옛 중앙청과 경기상업고등학교 건물이 바라다보이는 서울 사대문



새벽녘 안개에 싸인 남산.



청계천과 광교 전경.

안의 북서쪽 변두리 쪽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영화 내내 드러나는 두 개의 공간적인 중심축, 즉 태평로, 정동, 남대문 일대의 시내와 효자동, 유상동, 옥인동 등지로 이어지는 시외의 두 공간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동성당, 청계천과 광교, 이렇게 시내 쪽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인왕산 자락, 다시 옥인동, 이렇게 시외 방향 일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이 아버지 박순봉의 동선

JJW 선생님 말씀처럼 영화의 인트로에서 서울 시내와 시외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디제시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고다공원에서 깨어나 명동의 회사로 출근하는 옥이 아버지(박순봉).



SJH 영화가 시작되면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한 노인이 전차를 타고 시내 명동 입구를 지나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까지 왔다가 오늘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시외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인이 다니는 회사에는 '천일종국제조주식회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1956년 당시 영화 속 공간과 바로 인접한 곳이었던 서울시 중구 남창동 25번지에 제약회사였던 '천일제약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실제 회사의 간판을 임시로 살짝 바꿔 달았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종국(種麴)이라는 단어는 발효를 위해서 쓰는 누룩을 가리키는데, 영화 속 노인이 술꾼으로 묘사된 걸 보면 일종의 개그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전후 복구가 한창이었던 명동 부근의 모습, 특히 아직까지 본관의 전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서 옛 조선저축은행 본점 건물에 임시로 입주하고 있었던 한국은행의 모습도 살짝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에서 주연한 박순봉 배우.

JJW 영화의 내레이션과 함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술을 먹고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던 노인인데요. 옥이 아버지 역의 박순봉 배우입니다. 해방 이후 주로 단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2021년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공개한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에서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집, 재관의 외출

SJH 영화는 노인을 비롯해 주인공인 신문기자 송재관과 여의사 남희원 등이 이 두 공간 사이를 왕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주인공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자, 남희원이 비너스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업한 일본식 가옥이 나오는데요. 사실 영화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형을 볼 때 옥인동에서 신교동 사이의 어느 지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립서울맹학교와 신한은행 효자동 지점 사이 골목에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남희원의 자택 겸 의원. 현 옥인동과 신교동 사이로 추정.

송재관은 이 집을 나와서 후암동 살인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정동에 있던 대법원 청사에 갔다가, 갑자기 수상한 차량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서 그걸 쫓아 덕수궁과 미국 대사 관저 사이 샛길을 지납니다. 그가 차를 쫓아 간 곳은 지금의 경복고등학교 부근으로 추정되는 어떤 한옥 스타일 별장이 있는 곳이고요. 송재관은 이곳에서 젊은 여인을 데려가는 차를 다시 뒤쫓아, 창성동에 있었던 진명여고 부근을 거쳐 북악산 군사도로로 나가 당시 서울시 행정 구역의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정동 대법원 청사 앞.



현 경복고등학교 인근으로 추정되는 한옥 별장.

이렇게 여인을 쫓아간 송재관이 정신병에 걸린 이 여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산속 별장의 위치도 역시 영화에 주어진 정보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장 입구의 다리를 유심히 보면 '백운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북악산 군사 도로의 끝이자 그 당시 북한산 백운대 등산 코스의 기점이 정릉 부근이었기 때문에, 정릉 부근의 어딘가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가 우연히 붙잡은 후암동 강도 살인범이 연행되어 오는 길은 무악재를 지나 독립문 방향인데, 그가 탄 차가 별장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돌아가던 길하고는 분명히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영화 연출을 위해 실제 시공간이나 방향 감각을 생략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백운교. 정릉 부근으로 추정.



1956년 독립문공원 도로 풍경.

희원의 외출

SJH 한편, 남희원 역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들을 맞아, 일제강점기 친일파 윤덕영의 대저택이었고 1956년 당시 유엔 한국재건위원단 운크라(UNKRA)의 본부로 쓰이고 있던 '벽수산장'이라는 건물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쇼트가 등장하는 부분이죠. 여기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지금의 누상동과 옥인동의 접경지 고지대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경의 저택이 옥인동 47번지에 지어졌던 벽수산장.

친구들이 돌아간 뒤 희원은 집에서 옥이와 옥이 아버지와의 실랑이를 겪고, 영화 대사를 빌리자면 "기다리다 지쳐 빠져서" 집을 나와 시내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오후 시간을 때우고 있던 남편의 신문사 직장 동료들을 만나는데, 이들은 그 직후 조선호텔로 다시 이동해서 미니 골프를 치고, 다시 조선호텔과 반도호텔 사이에 있었던 중국 음식점인 아서원 옥상에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덕수궁 석조전 앞.

아서원을 지나 소공동 조선호텔 정문 앞까지 걸어간 희원은 옥이와 옥이 아버지를 다시 마주치게 되고요. 그 길로 남대문 바로 옆 부근에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옥이의 남자친구를 만나 옥이의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략 남대문시장 입구에 있었던 일화빌딩 뒤편 공지로 생각됩니다. 이들이 서 있는 곳 너머로 국보 남대문은 물론, 1929년에 건립됐다가 한국전쟁 때 크게 파손됐던 옛 상공장려관 건물, 지금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있는 자리인 이곳의 건물 복구 공사가 보이는 것도 이채롭습니다.



남대문 앞. 인물들 뒤로 복구 중인 옛 상공장려관이 보인다.



현 남대문로 지하상가 입구로 추정.

이들을 뿌리치고 달려가던 옥이의 남자친구는 차에 치이게 되는데, 이 위치는 남대문에서 명동 입구로 올라가는 남대문로 부근입니다. 아마 지금의 남대문로 지하상가 입구 부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범인의 판잣집에서 재회하는 희원과 재관

SJH 이 장면을 끝으로 영화에는 더 이상 시내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대는 시외에 있는 후암동 살인 사건 범인의 판잣집으로 옮겨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희원과 재관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집은 아마 지금의 누상동과 누하동 사이, 배화여자대학교 교정에서 조금 아래쪽 지점인 걸로 보입니다. 희원과 재관이 영화 속에서 휴일의 마무리를 하는 곳도 바로 이곳이고요.



범인의 판잣집. 현 배화여자대학교 인근 추정.



이중노출 기법으로 합성한 서울 도심의 야경.

영화의 라스트 신에서는 이 판잣집 벽에 기대어 앉은 두 사람의 모습 뒤로 경복궁과 중앙청 등 서울 시내의 전경이 흰히 내려다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장면은 세트에서 촬영한 판잣집 장면과 서울 시내 전경 장면을 이중노출 기법으로 찍어서 합성한 장면이라는 사실이 쉽게 드러납니다.

왜 이런 촬영 기법을 썼을까요? 촬영 장소였던 실제 판잣집 위치에서 감독이 원하는 야경 전망이 안 나왔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화면 좌상단에 있는 흰 사각형 물체는 이 전경 장면에서 원래 드러나야 할 경모대(현 청와대)를 감추기 위해서 렌즈를 가린 흔적 같습니다. 1950년대 조금 열악했던 당시의 영화 제작 환경과 당시 민감했던 보안 문제 등을 한꺼번에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JJW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중노출로 촬영돼서 환상적인 분위기도 나고, 시정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 특별한 공간들

JJW 그 외에도 이 영화에서 더 언급하고 싶은 공간이 있을까요?

SJH 이웃집 여자가 짧은 일탈을 즐기러 찾은 한강 백사장 장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맞은편에 한강철교와 한강인도교가 보이는데요. 대략 지금의 용산구 이촌동 혹은 흑석동 일대로 추정됩니다.



1950년 휴가 온 남편이 현 청계천 호수도.



청계천로 홍현필 코주부 김용환 화백.

또, 1950년대 만화가로 유명했던 코주부 김용환이 특별 출연하는 장면에서는 시각 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1950년대 중반의 실제 신문사, 즉 동아일보사의 편집국 내부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이채롭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휴일〉은 당시 서울의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서울의 여러 공간과 그 주변 모습을 매우 실감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을 따라 함께 보내는 서울의 휴일

JJW 서사의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건과 관련된 등장인물의 동선을 통해 모던 서울의 면모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사회부 기자인 남편은 동료 기자들의 장난 전화를 받고 살인 사건 용의자를 쫓다가 소동에 휘말리고요. 옆집 노인의 부인은 남편을 따돌리고 젊은 남자들과 뱃놀이를 하다 밤늦게 돌아오고, 산부인과 의사인 남 의원은 남편을 기다리다 혼자 외출해 덕수궁에 갔다가 남편의 동료들을 만나고, 이후 옥이네와 살인범의 아내를 돕게 되죠. 주인공 부부에 한정해 보더라도 기자 남편의 행보보다는 주인공 남희원, 즉 여성의 행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묘사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SJH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 주인공 남녀의 서로 다른 하루 동선을 통해서 1956년 서울의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서울의 여러 공간과 그 주변의 모습을 매우 실감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JJW　네, 말씀을 들어보니 1950년대 중반의 관객들도, 그리고 지금의 관객들도 1950년대 중반 어느 휴일에 서울 시내와 그 주변의 다양한 공간들을 직접 산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한국영화X공간 〈서울의 휴일〉편을 마치겠습니다.

총천연색의 1966년 서울 –
〈워커힐에서 만납시다〉(1966)

패널　정종화(JJW) 한국영화사 연구자
김영준(KYJ) 도시공학 연구자

JJW　오늘 김영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는 한형모 감독의 1966년작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이 워커힐에서 만나야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과정에서의 볼거리들을 즐기는 것이 당대 관객들의 감상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워커힐에서 만납시다〉에 기록된 서울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 총천연색의 서울

KYJ　이 영화의 배경은 1966년의 서울입니다. 서울의 근현대사를 통틀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고가도로와 지하차도 그리고 택지가 개발되었고, 이호철 작가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가 연재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의 두 주연이 1966년의 서울을 어떻게 걷고 탐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966년의 명동 거리.

먼저, 극 초반에 등장하는 서울 시내 정경 신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열차 내부에서 처음 만난 노인과 삼룡이는 서울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공통적인 목표 덕분에 금세 의기투합합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당도하는 서울이 얼마나 광활하고 복잡다단한 도시인지 초반 5~6분 시퀀스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흑백 사진이나 흑백 필름으로만 보던 당시의 서울을 총천연색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숭례문 전경.

숭례문을 중심으로 동쪽에 서 있는 '일화빌딩', 그리고 북쪽에 서 있는 '그랜드호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러닝타임 5분경). 일화빌딩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건축가가 지은 아르데코 양식의 오피스 건물이고, 그랜드호텔은 해방 이후 한국인 건축가 나상진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오피스 빌딩입니다. 숭례문이라는 조선시대의 거대한 랜드마크를 사이에 두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상징적인 근대 건축물이 대칭 배치된 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도저' 김현옥 시장 시절의 서울

KYJ　이어지는 후반부의 쇼트에서는 충정로 입구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바라봄으로써, 서울 시내를 무수히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 행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쇼트 왼편의 빌딩에는 '코리안 에어라인즈'(KOREAN AIRLINES) 간판이 확인되는데요. 이 간판은 지금의 대한항공, 한진그룹 소속의 대한항공이 탄생하기 이전 공기업 시절 대한항공공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제법 커다란 규모의 가건물이 설치된 모습이 보이는데요. 당시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옥 서울시장의 시정 혹은 행정에 관한 홍보 행사가 개최된 곳이었습니다.

특히 〈워커힐에서 만납시다〉가 촬영되었을 1966년 하반기 무렵은 김현옥 시장이 취임 직후 아주 열정적으로 서울 시정에 임하던 시기인데요. 당시 신문



서울시청 앞 광장 풍경.



연료현대화 전시회장 전경. 출처: 서울기록원.

기사나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면, 정확히 이 영화가 촬영될 무렵 '연료현대화' 전시회가 개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극 중 노인과 삼룡이가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가 대한항공공사 빌딩이나 '연료현대화' 전시회장 앞을 지나치면서, 문맥상으로 서울의 초현대적인 도시 문명에 감탄했을 것이라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꺽다리 빌딩의 별천지 세계

KYJ 시청 앞을 걷던 노인과 삼룡이가 "아이고 이게 다 뭐여" 하면서 올려다보는 꺽다리 빌딩이 등장하는데요. 6분 초반 무렵 등장하는 이 빌딩은 바로 현재 한국은행 소공별관 빌딩입니다. 1965년 12월 한국 상업은행 본점으로 지어진 13층 빌딩인데요. 당대에는 준공









초지야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의 전신.

소식이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로, 지금으로 치면 63빌딩이나 롯데월드타워 이상의 랜드마크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골에서 갓 상경한 노인과 삼룡이에게 높이 50미터를 훌쩍 넘기는 13층 빌딩은 경의를 넘어서 불가사의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다음 신에서 노인과 삼룡이는 지금의 명동길을 활보하는데요. 두 사람의 뒤편에 미도파백화점이 찍혀 있습니다. 미도파백화점은 2천년대 이후 현재 롯데백화점 영플라자로 리뉴얼이 되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초지야백화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백화점 또한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과 삼룡이에게는 마치 별천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남산 등반을?

KYJ 노인과 삼룡이는 남산의 중턱을 세 번 오릅니다. 첫 번째로 노인의 딸을 찾기 위해서 남산 중턱의 호화로운 주택지를 탐색하고(러닝타임 6분경), 두 번째로 시민회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쫓겨난 뒤에 오르고(러닝타임 45분경), 세 번째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남산 중턱에 올라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러닝타임 1시간 2분경). 이렇게 중요한 심정의 변화가 있을 때 혹은 극 중의 고비마다 남산을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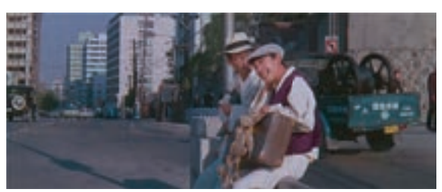
물론 쉽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 딸을 거둬들인 중상류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등장한 것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극 중간중간에 서울의 전경을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남산 중턱을 촬영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갈등이

격양되는 순간마다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에 위치한 남산에 오른다는 점에서 두 주연의 감정선과 서울의 지리적 공간이 마치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를 활보하느라 지쳤을 텐데 남산 중턱까지 기를 쓰고 올라갔을 두 사람의 모습이 코믹하게 다가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JJW 그러고 나서 노인과 삼룡이가 남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러닝타임 9분경).

KYJ 그렇죠. 남산에서 내려온 노인과 삼룡이는 잠시 시내 한복판에서 쉬어 갑니다. 그 장소가 다름이 아닌 서소문 고가차도 입구, 정확히는 서소문 고가차도의 시청 방면 램프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6월 25일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대한 입체 교차 시설로서, 당시에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가 위치한 충정로는 1960년대 중반부터 5층 이상,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층의 오피스 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한 서울의 중심 업무 지구였는데요. 이 신에서도 서소문 고가차도의 시청 방면 램프에서 잠시 몸을 쉬어 가는 두 조연의 등 너머로 갓 준공된 빌딩들, 예를 들면 대한화재보험 사옥이라든가, 60년대 후반 한국인 건축가들이 지은 다수의 근대적인 빌딩들이 잡힙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시청 방면 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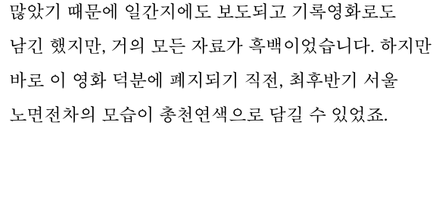
JJW 저도 영화를 보면서 두 인물이 왜 서소문 고가차도의 램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KYJ 남산 중턱에서 서소문 고가차도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20분 이상 소요될 텐데요. 생각해보면 서소문 고가차도는 이 영화의 크랭크인 직전에 개통된 최신의 토목 시설이기도 하고, 배경으로 서울의 메트로폴리스적인 오피스 빌딩이 솟아 있는 지극히 도회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촬영지로 선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두 사람의 처지와 아주 극적으로 대비되는 도시 공간을 선택함으로써 두 사람이 처한 여건을 극대화해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폐지되기 직전의 서울 노면전차

JJW 영화에서 노면전차가 등장하는 모습이 대단히 이색적인데요. 노면전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KYJ 남산 중턱을 뒤로한 노인과 삼룡이는 서소문 고가차도를 거쳐서 다시 시청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곧이어 순경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노면전차가 두 사람의 뒤편을 아주 느긋느긋하게 지나갑니다(러닝타임 10분경).



폐지 직전 서울 노면전차의 모습.

서울에 노면전차가 최초로 등장한 때는 1899년입니다. 서울 노면전차는 개통 이후 7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 활약했습니다. 1966년 6월 1일, 이 작품이 촬영되기 직전에 서울 노면전차의 운영 주체가 민간회사인 한국전력에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일 타고 있는 서울 지하철의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의 전신 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서울시가 공공교통을 주도적으로 행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노면전차 사업을 인수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산으로 편입한 다음에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아주 단편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청록색 은은한 빛깔의 노면전차 차량이 또렷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1968년 11월 30일에 서울시 노면전차는 영원히 폐지되고 맙니다. 물론 노면전차 폐지를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기록영화로도 남긴 했지만, 거의 모든 자료가 흑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영화 덕분에 폐지되기 직전, 최후반기 서울 노면전차의 모습이 총천연색으로 담길 수 있었죠.

남산 KBS 스튜디오를 컬러로 담다

KYJ　한편, 노인과 삼룡이는 삼룡이의 옛 사랑인 노옥순을 찾아서 인기 작곡가 구봉철의 저택, 명동의 세시봉 뮤지컬을 거쳐서 남산의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달합니다(러닝타임 24분경). 여기서 말하는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란 지금의 KBS인데요. 1966년 12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당시 공보부의 주도로 국영방송으로서 개국한 KBS는 지금 여의도 사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3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남산 KBS 스튜디오 내외부.



극 중 등장한 KBS 스튜디오는 지금도 거의 원형을 유지한 채로 케이블TV 사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 작품이 컬러영화였던 덕분에 당대에는 필시 흑백으로 송출되었을 가수 이금희의 가창 신이 총천연색으로 담겼다는 사실입니다. 흑백 TV 시절의 방송국 스튜디오 내외부를 오롯이 컬러로 담아낸 것은 아마 이 작품이 역사상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서울시민회관의 모습

KYJ　노인과 삼룡이는 방송국 스튜디오 입구에서 가수 남미라를 찾으려면 서울시민회관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시민회관으로 향하는데요. 그 장면에서 카메라는 당시 서울시민회관의 상징과도 같던 높다란 탑신부와 상당히 넓은 주 출입구를 멋진 패닝샷으로 담아냅니다(러닝타임 30분경). 참고로 주 출입구에 걸린 11월 4일의 '대희극 제전'이라는 간판을 통해서 이 작품의 촬영 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민회관 외관.



이 서울시민회관 시퀀스는 자니브라더스의 '방앗간집 둘째 딸',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등 유명 가수의 가창 신이 이어지다가, 노인과 삼룡이가 무대뿐만 아니라 대기실에까지 난입하는 코믹한 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당시 관객들에게 이 장면은 정말 큰 웃음을 주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가 개봉하고 채 6년도 지나지 않았던 1972년 12월 서울시민회관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건물 자체도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이후 1978년 같은 자리에 세종문화회관이 지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자니브라더스의 무대.



1960년대 중반 서울시청 주변의 빌딩군

KYJ　시민회관에서 쫓겨난 두 사람은 남산 중턱에 한 번 올라간 다음, 귀향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청 앞 광장을 배회합니다(러닝타임 1시간 3분경). 바로 이 장면에서 1960년대 중반의 시청 주변 빌딩군의 모습이 총천연색으로 담깁니다. 지금은 재능교육빌딩으로 개칭된 옛 뉴코리아호텔의 포치 부분이 두 사람의 배경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나름 고층 빌딩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개풍빌딩, 롯데호텔에 자리를 내주고 철거된 반도호텔도 등장합니다.



1960년대 중반 시청 주변 빌딩군의 모습.







옛 시청사의 철거, 현 시청사의 신설로 인해 완전히 개변된 서울시청 북쪽의 공간 또한 이 신의 중요한 무대로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곳을 촬영지로 설정해준 덕분에 컬러 사진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서울시청 뒷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워커힐에서 만났습니다

JJW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인물들은 워커힐로 모이게 됩니다(러닝타임 1시간 18분경). 당시 워커힐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KYJ　워커힐은 처음부터 미군 휴양소로 지어진 시설이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초대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월턴 워커(Walton Harris Walker)에서 따온 것이고요. 정부 주도로 지어진 시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관광공사 전신인 국제관광공사라는 국영 기업체가 운영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민간 기업에 분화되어 지금의 워커힐호텔, 리조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렸던 신성일과 엄앵란의 결혼식이 치러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대 서울 시민들에게는 워커힐이라고 하면 꿈과도 같은 종합 유락 시설 혹은 리조트 파크로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제3의 주인공, 서울

JJW　〈워커힐에서 만납시다〉는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과 젊은 청년이 각각 딸과 애인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남정임이 연기하는 그 딸이자 애인인 여성은 그들의 행보와 계속 엇갈리게 되죠. 이것이 영화의 서사가 나아가는 한 축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순애의 잃어버린 아버지인 대훈, 그리고 옥순의 헤어진 애인인 삼룡과 함께 서울에 큰 건축물을 구경하며 함께 돌아다니게 됩니다.



뉴 서울 클럽 내부.



서울시민회관 무대.

또 하나의 축은 당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배치한 가수와 무희들의 생생한 공연 장면입니다. 그 덕분에 방송국 스튜디오라든지, 시민회관 무대와 관객석이라든지, 동양호텔이나 워커힐호텔의 클럽까지, 그 공간의 내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준 선생님도 마지막 말씀 해주시죠.

KYJ　〈워커힐에서 만납시다〉는 심오한 주제 의식을 담거나 당대 사회 문제점을 신랄하게 짚어내는 작품은 아닙니다. 홍보 문구에 나타나듯 호화찬란한 총천연색 뮤지컬 희극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감독을 비롯한 이 작품의 제작진들은

보다 재미난 뮤지컬 희극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볐습니다. 만약 초반 10분 동안 카메라가 숭례문과 시청 전경을 담지 않고, 남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전경을 담지 않았다면, 노인과 삼룡의 좌충우돌이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 1966년의 서울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하나의 중요한 배역이었던 셈입니다.

JJW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극영화이지만 당시 서울이라는 공간이 영상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이 콘텐츠를 기획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국영화X공간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자 김형석: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영화 월간지 『스크린』에서 취재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다. 이후 프리랜서 영화저널리스트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송경원: 영화 주간지 『씨네21』의 기자이자 영화평론가다. 『미지의 거장, 숨은 걸작』, 『격조의 예술가, 파격의 모험가』, 『프로듀서』를 공저했고, 『이충호』, 『마음의 일렁임은 우리 안에 머물고』(공저) 등을 썼다.

윤이나: 거의 모든 장르의 글을 쓰는 작가. 네 권의 에세이집을 출간했고, 한 편의 드라마를 썼다. 그 어떤 드라마도, 영화도 1배속으로만 본다.

조혜영: 프로젝트 38 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영상 매체와 관련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공저로 『한국트랜스젠더영화사』, 『원본 없는 판타지』, 『소녀들: K-pop, 스크린, 광장』 등이 있다.

최원준: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한국 근현대 건축사를 연구하며 『김종성 구술집』, 『우리가 그려온 미래: 한국 현대건축 100년』 등의 공저가 있다. 건축과 영화가 걸쳐 있는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CDAPT: 재건축으로 사라져 가는 오래된 아파트를 좋아한다. 아파트를 탐방하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twitter.com/CDAPT0



추격자(나홍진, 2008)

도주 중인 지영민(하정우)을 뒤쫓는 엄중호(김윤석)와 오좇(구본웅). 〈추격자〉의 골목길 추격 장면에서 인물들은 모서리를 돌 때마다 사라지며 엉뚱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황해(나홍진, 2010)

강남의 대로에서 경찰 무리로부터 도주 중인 구남(하정우). 〈황해〉의 추격전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한눈에 드러난 가운데 오직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이 긴장감을 자아낸다.

골 목 과 대 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은 확연하게 다른 도로 체계로 이뤄져 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강북 옛 동네의 골목들은 지형과 물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좁고 구불구불해, 연인들에게는 은밀하게 로맨틱한 구석을 제공하지만 어디서 누가 갑자기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긴장형 공간이기도 하다. 한편 강남은 1970년대 이후 개발되어 반듯한 격자 체계의 도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곧게 뻗은 도로 위로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와 〈황해〉에는 각각 강북과 강남의 도로 체계를 활용한 추격 장면이 등장한다. 망원동(실제 촬영지는 북아현동) 골목길에서 전개되는 〈추격자〉의 두 차례 도주극은 길 자체가 워낙 갈래가 많고 변화무쌍해 두세 사람의 힘겨운 뜀박질만으로도 충분히 스릴 넘친다. 인물들은 모서리를 돌 때마다 사라지며 엉뚱한 곳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강남 한복판 반듯한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황해〉의 추격전은 쫓기는 자와 쫓는 자가 한눈에 드러난 가운데 오직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만이 긴장감을 자아내며, 좀 더 극적인 스릴을 위해 쫓는 자를 일군의 무리로 증폭시키고 자동차의 충돌 액션을 더하기도 한다. 강북은 호러에 어울리고, 강남은 스릴러에 최적화되었다고 할까? 도로 조직은 한 도시가 가진 가장 고유한 공간적 특징이며, 〈블리트〉(피터 예이츠, 1968)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로닌〉(존 프랭컨하이머, 1998)이 파리에서 그러했듯, 나홍진의 두 작품은 서울에서 그 도로의 물리적 속성을 한껏 활용해 인상적인 추격 장면을 만들어냈다.

감독은 또한 우리 도시의 고유한 건물 유형들도 면밀히 관찰해 내러티브와 연결시켰다. 〈추격자〉의 밀폐된 화장실에서의 끔찍한 행위는 높은 옹벽과 담으로 둘러싸인 강북 단독주택에서나 가능하지 층간 소음이 문제인 아파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악명 높은 개미슈퍼 장면은 구멍가게 내부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잘 아는 우리에게 더욱 큰 공포감을 안겨준다. 〈황해〉의 근린 상가는 도처에 널린 가장 일반적인 건물 유형 중 하나로, 1층에 상점이나 음식점, 중층에 오피스, 상층에 주거가 켜켜이 쌓여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 패턴으로 이용하기에, 그 계단실에서 살인을 계획하는 주인공을 더욱 초초하게 만든다.

지역마다의 독특한 도시 조직은 오늘날 상당 부분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또한 〈황해〉에서 의미심장하게 등장한다. 범죄 후 접선 장소로 전달받은 주소를 찾아가보니 거대하고 황량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으로, 갈 곳과 의지할 이를 완전하게 잃은 주인공의 심리적 공황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은 없을 것이다. (최원준)



32
9 772733 605005
ISSN 2733-6050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자하문터널—기생충(2019)